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발간등록번호
34-9761031-140024-14

K-매니페스토
함께 만드는 좋은 공약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I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Ⅱ』를 발간하며

우리 위원회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도입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정책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정책으로 소통하며,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한국형 매니페스토(K-Manifesto)의 정착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유권자가 의제선정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시·도에 ‘매니페스토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의 공약을 제안 받고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하여 정책과 공약 작성과정에 유권자가 희망하는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2차에 걸쳐 ‘유권자 공약제안’ 이벤트도 개최하였습니다.

공약제안 이벤트 등에 힘입어 우리위원회가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 및 선거공보를 공개한 결과 선거기간 중에 248만여 명의 유권자가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1차 이벤트에서 접수된 우수공약 153건을 모아 「유권자 희망공약집」을 발간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2차 이벤트에 접수된 우수공약 150건을 모아 「유권자 희망공약집Ⅱ」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유권자 희망공약집Ⅱ」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인의 자치행정 운영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약제안에 참여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도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수록된 공약 제안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Part 1 사회·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 1

■ 영유아를 위한 이동형 장난감 도서관	2
■ 하남시 산책로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2
■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재난대응 매뉴얼 체험 학습	3
■ 건강 걷기공원 열량표기화	3
■ 다문화가정, 외국 근로자들에게 귀기울여 주세요	4
■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습대책 방안	5
■ 사내보건지소를 통합형 보건지소로	6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연·문화프로그램의 정보를 공유	6
■ 충북권 난임부부 전문병원 설치 및 지원	7
■ 도서관, 체육시설 등 문화편의시설 복지 편의성과 접근성 확대	8
■ 곡릉천 환경 조성사업	10
■ 파주 문화체험 둘레길조성	10
■ 동네방네 실버택배	11
■ 사보험 및 건강보험 관련 개선안	12
■ 저렴하고 안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평가 인증제 도입	14
■ 대학생을 위한 창업 및 취업 융합과정 개설	15
■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한 제안	16
■ 출산장려 어플 제작·보급	17
■ 다문화 가정주부의 일자리 주선	19
■ 자전거 대여소 활성화 방안	20
■ 대형마트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살리기	21
■ 효 중심 나눔 공약	22
■ 나들가게의 경쟁력 제고	23
■ 보건소에서도 장애인등록 진단 실시	24
■ 마을버스도 버스도착정보에 추가	24
■ 주민자치센터에 24시간 보육센터 운영	25
■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25
■ 출산장려 사업 제안	27
■ 광고신도시 직행버스 도입	28

- 저소득층 대상 통합사례지원센터(사업)의 활성화 방안 제안 28
- 장애인 교통할인 제도 개선 30
- 상가와 대학생을 연계한 외국인 안내 30
- 성범죄자 관리시스템 보완 및 강화 31
- 고용복지 종합센터 유치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33
- 내가 사는 지역에 내 가로수 한 그루 만들기 33
- 휴일당직병원 및 약국 확대 운영 실시 34
- 심리상담소 설치운영 제안 34
- 경비아저씨에게 택배 수당 지급 36
- 맞벌이 엄마들을 위한 영유아 방과후 및 연장 어린이집 확대 36
-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방안 37
- 경로당(노인정)을 이용하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 제안 38
- 어린이들에게 우비 및 투명우산 나눔 행사 개최 40
- 학교밖, 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공간 마련 40
- 자원봉사센터 건립 41
-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노란조끼요원 배치 42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43
- 장난감 도서관 설치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 45
- 농어민 전용 피트니스센터 건립 46
-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 48
- 울진군 호스피스병동 설립 재추진 50
- 완벽한 장애우 편의시설과 이동의 제한 해결 50
- 안전관리, 생활편의시설 확충 51
- 보건소 심리 상담서비스 53
- 도로명사업이 제외된 지역에 도로명체제 구축 - 사회 안전망과 소통망 54
-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휴양산업의 발전 55
- 응급치치교육 56
- 어린이와 청소년이 설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56
- 실버이야기선생님 58
- 삭막한 아파트 담장을 멋진 작품으로 변신 59
- 유아 동반하고 외출하기 쉬운 사회 환경조성 60

Part 2 경제·민생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 61

- 지하철 5호선 방화역과 일산 등 경기서북부지역 연결노선 확장 62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시간제일자리 확보를 통한 일자리 제공 63
- 독거인들을 위한 장터 63
- 월드컵 경기장 주위를 관광 메카로 63
- 젊은 농촌을 만들어주세요. 64
- 권선동 곡선중학교 주변 주차전쟁 해결요청 65
-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 혹은 고시텔 66
- 어르신 일자리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일자리 창출 67
- 버스노선 확대 및 지하철 연장(서울시 양천구~부천시 오정구) 68
- 전통시장의 활성화 -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탄력적 버스 운행 69
- 농어업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앱개발 보급 69
- 용인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제안 70
- 창조경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공공 도서관 로비에 창조경제 코너 마련 71
- 효율적인 제납해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73
- 법정근로시간 제도 정착 방안 75
- 관광 특성화 전문대학 유치(설립)로 지역 교육 및 경제 시너지 효과 창출 76
- 전주 한옥마을 교통 및 환경 개선 76
- 나라에서 운영하는 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연결 시스템 구축 77
- 안양천 옆 카페 78
- 용인 경전철 부채 절감 방안 78
- 전기자동차산업 경쟁력향상을 위한 전기차충전소 확충방안 79
- 전통시장 마일리지 80

Part 3 교육·환경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 81

- 실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82
- 공공도서관의 활성화 82
- 재활용 자판기 83
- 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인척 보육교육 후 보수지급 공약 83
- 자발적 우리 아이 지킴이 제안 84
- 학교에서 대피방법 관련한 교육 실시 85
-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통한 수업시간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Project 추진 85
- 공교육강화 사교육억제 86
- 부산외곽지역 장난감 도서관 설립 확대 87
- 지하철 연장 88
- 제주도의 무분별한 개발 제한 89
- 아파트 조경관리 중간검사제 도입 89
- 사교육 과외교사 인증마크(면허) 부여 90
- 집 근처에 어린이, 아이들을 위한 소아과 병원 시설 외에 문화시설,
문화센터, 어린이집, 학교, 공원 등 설치 90
- 동래문화회관의 활성화 91
- 지역 거점대학교와 교육연계방안 93
-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청소년관) 94
-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 95
- 동사무소 및 문화센터 주차장 야간이용 및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96
- 급식 관리 감독 체제 강화 96
- 어린이 시티투어버스 운영 97
- 한눈에 알아보는 남산동 지도 제작 활용 97
- 진정한 양성평등의 기회제공 98
- 어린이놀이터의 해묵은 모래 교체 99
- 긴급안전반 조직 운영 99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공약 제안 100
- 유치원 보조 교사 배치 101

■ 섬지역 재능기부 강사파견 프로젝트	102
■ 군산 바다·생태 박물관 신설	104
■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여가 시설 확충	105
■ 안전교육 체험관 건립	106
■ 역사 인식 개선과 연극 활성화	107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찰자 안전도우미 선생님 필요	109
■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제안	110
■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의 안전 확보	110
■ 전신주의 무분별한 전기선 제거 사업	111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12
■ 방화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각급학교 조무직 채용	113
■ 청소년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멘토시스템	114
■ 공공 도서관 활성화	115
■ 어린이집 근처 주차와 속도 규정	116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인프라 구축	116
■ 인천시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추진 방향	123
■ 경북 봉화 춘양) 숲, 생태체험 -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관련 공약제안	124
■ 도지사, 교육감에 바라는 청소년 정책 제안	125
■ 안산시 문화시설 확충	130
■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개발·지원	131
■ 밀양시 버스환승시스템 도입	132
■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젝트	132
■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해결	133
■ 특수교사 증원의 확대	136
■ 어린이 보호를 위한 난간설치 제안	136
■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대책 제안	137
■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수능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약	138
■ 대전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수 공급	140

Part 4 정치·행정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 141

-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142

Part 5 외교·안보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 143

- 행복한 파주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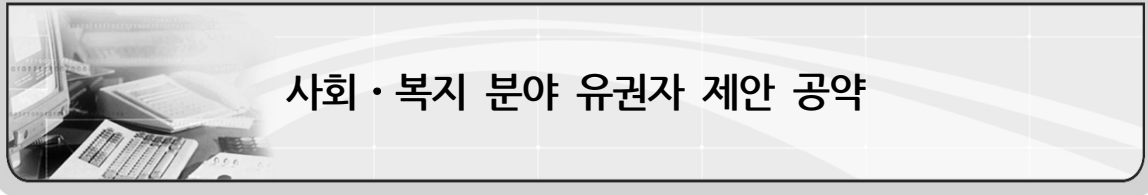
Part 6 기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 145

- 육교의 안전성 점검 146
- 모세의 기적, 건강한 도로 만들기 147
- 안전한 귀가길을 위한 장치 148
- 지역축제 활성화 148
- 카파라치(블랙박스)를 이용한 교통질서 확립과 산불예방 149
-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신호체계 150
- 공공시설내 각종 재난안전 실시간 알림망 및 대피동선 설치 의무화 150
- 지하철에 민원서류발급기, 도서반납기 설치 152
- 기존 태양광사업의 마을단위 전기생산 저장소 건립으로
농업인과 저소득층의 노후대책 152
- 안산에 경기도119안전체험관(세월호 희생자 추모관 포함) 건설 153
- 20대가 꼭 가고싶은 충남 공주 154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II

사회·복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제목	영유아를 위한 이동형 장난감 도서관	지역	대구광역시
----	---------------------	----	-------

현재 동구청에서는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하면서 장난감과 책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1. 하지만 신암동에 위치해 있어서 대다수 영유아를 돌보는 부모들이 찾아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가까운 효목동 신천동 신암동 주민들은 걸어서 찾을 수 있지만 반야월 쪽이나 팔공산 쪽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기가 힘듭니다.
2. 엄마들이 대부분 애기를 데리고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3. 주차장이 협소하여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도 불편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운티 차량에 이동식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 요일별로 순회한다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목	하남시 산책로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지역	경기도
----	---------------------	----	-----

하남시 산책로를 자전거로 다니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잠시 불일이 있을 때 자전거를 보관해둘 데가 없어서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하남시 산책로에 무인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캐비닛형 무인자전거보관소는 무료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보관함을 이용하려면 비어 있는 보관함을 찾아 단말기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으면 됩니다.

소요예산은 약 2백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후원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제목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재난대응 매뉴얼 체험 학습	지역	경기도
----	----------------------------	----	-----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시청, 구청, 교육청에서는 중고등 학생에게 수련회와 마찬가지로 재난대응 매뉴얼을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각 학교, 각 학년, 반 단위로 체험학습을 합니다.

동영상 시청 등의 이론교육이 아닌, 실제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대피할 때 순서 등등 모든 상황을 실제와 같이 연습합니다.

학생들끼리 결속도 다지고 그런 학생들이 성장하여 어른이 되면 전국민이 재난대응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체험학습비의 개념으로 학생들도 소정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무료로 의무로 하게 되면 그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증서도 발급하고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제목	건강 걷기공원 열량표기화	지역	대구광역시
----	---------------	----	-------

건강에 가장 무난하고 격렬하지 않으므로 무리가 되지 않아서 제일 편안한 운동이 걷기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걷는 것조차 무척이나 줄고 있지요 차량을 탑승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예전처럼 정기적으로 걸어 다니지 않고 사무직으로 장시간 앉아 있으니까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비만이 많이 생긴답니다. 게다가 보행은 심란한 감정을 정화하고 전환하는데 탁월한 기능이 있지요.

우울증이 심하거나 평소 감정의 변화가 많이 되어 심란하거나 하면 자연히 자살을 고려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좋은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공약을 이행하자면 결국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지자체도 재정자립도 무척이나 낮고 중앙정부도 국가채무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할 겁니다. 그래서 걷는 공원을 조성하되 공원에 기존에 없었던게 있습니다. 바로 열량이에요. 그래서 걷는 공원에 경관도 쾌적하고 조경도 신경을 써서 나무도 많이 심고 전망도 좋아야 하지만 심야에도 문제가 없도록 야광이 되는 도료를

사용하여 열량(칼로리)표기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을 증진하고 자살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자금으로 최대의 이익을 거둘 겁니다. 낮에는 생업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하면 심야에도 걸을 수 있도록 좋은 걷기공원 많이 만들어서 조명등이 편안하게 비추는 공원을 열량표기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걷는다면 운동효과도 발생하고 또한 걷는 동안 섭취를 한 음식물 소화도 되니까요. 건강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금액을 지급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면 지역의 사정과 지자체의 각기 처한 사정이 다르고 운영상에 문제점 많이 지적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민이 운동화만 신고 공원에 나가면 바로 운동이 가능하도록 열량을 표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갈수록 아이들은 체력은 약골이지만 체구는 비만이 심하지요. 많이 걷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테고, 또한 열량을 표기하여 걷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확대 운영하여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이런 곳에도 확대 표기하여 무작정 보행하든 종전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열량의 소모를 알게 된다면 좀 더 비만에 대해 많은걸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기 보다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봐야 합니다. 지금 지자체도 재정자립 무척이나 힘드니까요. 특정한 계층에게 무조건 많은 금액을 투입하는 사업은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지자체 재정파탄이 우려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열량을 적어 놓는 것은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 다수가 편리할 겁니다.

일상에 쫓겨 낮에 운동하지 못하면 심야에라도 운동이 가능하도록 조명등도 달고 열량표기를 야광도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체중감량에도 도움 되고 보행으로 자살도 어느 정도 감소하리라 판단됩니다.

제목	다문화가정, 외국 근로자들에게 귀기울여 주세요	지역	인천광역시
----	---------------------------	----	-------

저는 우선 다문화 가정도 외국인 근로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주위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 이국까지와서 생존해야하는 그들의 현실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외국에 나간 경험이 있는데 불안하고 너무도 다른 문화에 이리저리 방황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가족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가지의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이 된 이상 그들을 좀 더 많이 보듬고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의 자녀들에게 교육비나 학원비 지원, 매일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면 그들 가정은 좀 더 열악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듯합니다.

먼 한국까지 와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면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준다면 그들은 우리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근로자들에게도 근무하는 회사를 방문해 그들의 안전한 일터와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토록해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회사를 종종 보는데 말도 서툰고 몸으로 일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하지 않은 3D업종에서 참 힘들겠구나,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월급지연이나 기나긴 근로시간의 불합리함, 관리자들의 차별 등등 수많은 어려움을 그대로 감내하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국 산업의 기초에서 대부분 일하는 그들은 우리가 외면하고 하지 않는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고마운 근로자임은 분명합니다.

제목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습대책 방안	지역	전라남도
----	---------------------------	----	------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인거주자 100만명시대를 넘어선지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한해 결혼하는 10쌍중 1쌍이 국제결혼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다문화가족으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학습진도에 따른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학업포기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업중도 포기율은 일반 국내아이들 보다는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장성군에도 수많은 다문화가정이 존재합니다. 이런 다문화가정의 이주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정작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습이나 소질개발을 위한 음악프로그램 그리고 상시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활동은 사실 그다지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민상담 부분은 담임선생님이나 진로상담 선생님 그리고 양호선생님을 통하여 일을 하게 하면 될 것이고 방과후 학습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시간을 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질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음악담당 선생님이나 외부에서 전문가를 시간제로 초빙하면 될 것입니다.

제목	사내보건지소를 통합형 보건지소로	지역	강원도
----	-------------------	----	-----

☐ 제안이유

- 사내면의 인구가 화천읍과 비슷하나 상태적으로 의료혜택이 취약
 - * 인구 : 화천읍 8,853명, 사내면 6,674명
 - * 의료기관 : 화천읍 의원 5개 보건의료원 1, 사내면 의원2 진료소1
 - * 의사수 : 화천읍 의원 5명, 보건의료원 10명, 사내면 의원 2명 진료소 1명

☐ 주요내용

- 무엇을 : 보건지소를 통합보건지소로 승격
- 어떻게 : 의료인력, 장비 및 보건사업 보강

☐ 소요예산 : 30억

☐ 재원조달방안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보건복지부)

제목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연·문화프로그램의 정보를 공유	지역	인천광역시
----	-----------------------------------	----	-------

☐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 공연, 문화프로그램을 누구나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요내용

예를 들어 인천평생학습관 시민을 위한 공연, 시립박물관 공연프로그램, 부평아트센터 무료공연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연·문화프로그램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았거나 기관이 위치한 인근 시민들만 플래카드 등을 통해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계속 이용하는 것 같다.

이를 시청, 구청, 주민센터 홈페이지내 공연·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링크로 안내하는 페이지를 만들면 한번에 다양한 정보를 찾기 쉽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한다.

제목	충북권 난임부부 전문병원 설치 및 지원	지역	충청북도
----	-----------------------	----	------

☐ 제안 이유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다양한 환경문제 등으로 매년 난임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등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난임부부는 20만명이 넘습니다.

현재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있지만, 실제로 이용해 본 결과 부족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정책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충북지역에 난임부부를 위한 전문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인공수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돈 벌기 급급할 뿐 난임부부를 위한 환경이 아닙니다. 일반 임신부와 난임부부를 분리하지도 않은 채 영업을 하는데 이는 난임부부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두 번째,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 아쉽습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지원 비용과 횟수를 좀더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 지자체 등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정부 지원정책도 설명해주고, 임신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한 후 임신이 안되서 고통을 받고 있는 난임부부만 해결해도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제안 내용

1) 충북권 난임부부 전문병원 설치

광역별(지역별) 난임부부 전문병원 설치 : 광역권별로 난임부부를 위한 전문 클리닉 병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신부와 분리된 공간 필요. 난임부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단계별, 맞춤형

관리를 해준다면 심리적으로도 안심되어 임신출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난임부부 지원 시술 비용 및 횟수 증대

인공수정 횟수는 3회로도 충분하지만 시험관 아기 시술은 대폭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을 추가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이 너무 비싸서 시도를 하기 어려운 난임부부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결혼 연령도 매우 늦춰지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 연령도 대폭 늘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지자체 난임부부 전문상담사 배치

난임부부들은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결혼 후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난임부부를 위한 전문상담사가 지자체마다 있어서 적극적으로 난임부부를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난임과 남성난임 등의 원인을 분석하여 생활습관을 지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흡연, 음주, 스트레스 지수 관리 등)

☐ **소요 예산** : 약 40억원

1) 신규 전문병원 설치가 아닌 기존 병원의 전문병원화

- 충북권 3개소(청주 2, 충주 1) : 병원 리모델링 및 운영비 지원 연간 20억원

2) 난임부부 시술비용 확대 지원 : 20억원

☐ **재원조달방법** : 충북지역 저출산 대책 예산

☐ **기대 효과**

난임부부들은 제때 클리닉이나 시술을 받지 못해서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비용에 부담이 가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된 난임부부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들이 포기하지 않고 임신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출산 장려 정책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도서관, 체육시설 등 문화편의시설 복지 편의성과 접근성 확대	지역	서울특별시
----	-----------------------------------	----	-------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문화편의시설들이 인근 거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애매한 거리에 있습니다.

인근 대학 도서관과 협약을 통해 도서 대여에 한해서만 대학 도서관 및 구립 도서관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각 도서관들은 중복 도서가 있을 경우 상호 대차를 통해서 도서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도서관이나 대학 자체에 대한 홍보가 될 수도 있고, 도서관 관련 행사나 대학 내 행사에 관해서도 서로 협력이 가능할 겁니다.

혹은 상호대차 서비스로 타 기관에서 빌린 도서를 인근의 대학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만이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도서관의 이용도와 사용자의 편의성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 구민체육시설 등도 버스를 타고 가야 이용이 가능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셔틀 버스의 정류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관내 셔틀버스의 대수를 늘려 다니는 정거장 수를 늘리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시설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인 셔틀 버스 대수를 늘리는 것이니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해당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서관과 체육관 등 문화편의시설이 있는 모든 지역구에서 고려하고 시행에 옮겼으면 합니다.

☛ 제안이유

관내 문화편의시설의 편의성 증대, 교통상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문화복지 추구

☛ 제안내용

1. 인근 초중고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시설과 협의하여 인근 국공립 도서관과의 예약/대출/반납 서비스 공동 운영
2. 인근 국공립 체육센터 등의 셔틀버스 대수 증가, 정류장 및 운행시간 증가

☛ 제안방법

인근 학교의 도서관 시설과 협약을 통한 회원 DB 공유, 기존의 도서 대출/반납 시스템 활용
셔틀버스 구입, 버스기사 고용, 기존의 셔틀버스 정류장이 아닌 주민 주요 주거지 위주로 새로운 정류장 개설

☛ 기한 : 2014년 8월까지 (여름방학 시기에 문화편의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므로)

☛ 소요예산 : 광진구로 한정, 도서관 시설 협약과 버스 구입, 기사 고용 등 고려할 때 약 1억 내외

☛ 재원조달방안 : 문화복지기금 예산 내에서 활용

제목	곡릉천 환경 조성사업	지역	경기도
----	-------------	----	-----

지금 곡릉천 환경 조성 사업이 한창인데요.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도 좋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과 산책 그리고 공간 이동을 위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봅니다.

1. 무료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해 주세요(장곡하나로 ⇒ 조리읍 ⇒ 금촌2동) 3곳
2.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위해 지붕이 있는 벤치를 설치해 주세요(갑자기 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음)
3. 자전거 대여소 옆에 깨끗한 화장실을 설치해 주세요.
4. 노선을 따라 가로수를 많이 심어 주세요(여름에는 햇빛을 피할 곳이 없어 낮 시간에 이용자가 거의 없음)

재원은 쓰레기 불법투기나 하천오염 단속으로 거둔 벌금 및 지역 유지들의 참여로 조달

제목	파주 문화체험 둘레길조성	지역	경기도
----	---------------	----	-----

파주의 대표 관광지인 헤이리문화마을과 영어마을 프로방스를 활용해서 그 둘레를 둘레길로 만들면 휴일마다 만성 정체되는 성동사거리나 프로방스 편도의 정체를 해소할 수 있다.

시발점을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많은 영어마을과 만나는 헤이리 8번 게이트로 하고 중간기점을 프로방스로 하면 파주를 찾는 관광객이 차를 출발점에 두고 만성정체구간인 프로방스를 도보로 구경하고 상대적으로 한산한 헤이리로 이동해서 상대적으로 상권이 죽은 영어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기침체로 상대적으로 상권이 죽은 관광지상권이 둘레길로 활성화되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파주시의 세수입도 많아지면 더 살기좋은 파주가 될 것 같다. 자원조달방법은 그주변상인연합회를 활용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둘레길은 기존도로에 우회길을 확보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활성화되면 모든 상인들이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제목	동네방네 실버택배	지역	전라북도
----	-----------	----	------

☐ 제안이유

- 전국적으로 노인의 수는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매년 확충해가고 있음.
- 기존의 지하철택배나 아파트택배가 있으나, 기존의 것과는 다르게 노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택배를 배달함으로써 특색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양한 접목이 가능한 노인일자리임
- 해당 지역내 이웃을 통한 택배 전달로 이웃사촌간의 왕래 및 지역민들의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관심을 갖게 함
- 지역내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택배물량을 조금이나마 덜음으로써 지역주민인 택배기사들의 체력 및 심적부담을 줄이고, 지역내 노인들에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윈윈’ 일자리 나눔

☐ 사업내용

- 지역내 택배사와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 각 동네마다 거점을 설치
 - 예를 들면 각 거점마다 담당자(노인)를 두고 하루 적정량을 거점에 물량을 내려 놓음(신청자 수와 물량을 적당히 배분)
 - 실버택배 일자리 신청자들중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을 선정하여 거주지별로 선발
- 10kg이하의 물품, 주로 서류봉투·의류·전용품 등을 배달
- 일자리 참여자에게 개별로 택배를 위한 손수레 지급
 - 손수레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홍보 스티커 부착

☐ 기대효과

-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창출효과 및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
- 지역내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택배물량의 부담을 덜어 줌
- 지역내 노인이 직접 배달하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극심한 시대에 이웃간 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 마련
- 지역내 택배배달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접목이 가능함
(예 : 독거노인 안부 확인, 택배배달 활동과 겸한 쓰레기 줍기 등)

재원조달방안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분야에 많은 예산을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 특별 사업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절반정도의 사업비만 받아 사용하고 절반은 해당 지역의 택배회사와 협약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 더 나아가 노인들 모두가 주인인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 시키면 더욱 좋은 사업이 될 것임.

제목	사보험 및 건강보험 관련 개선안	지역	경기도
----	-------------------	----	-----

제안이유

- (1)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인의 의학적 지성수준이 높아지며 건강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고 있지만 2012년 통계청 집계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 건수 총계 13억 건, 해당 비용은 370억원에 이르며 이는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음.
- (2) 만성질환의 표본이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유병률 또한 1998년에서 2012년까지 통계청 표본조사에 의하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3) 비만 유병률의 증가는 불필요한 사회비용 증가와 공적 기금의 기반을 위협하는 요소라 판단됨.
- (4) 미국 HDR 사의 경우 직원급여에서 공제하여 보험사에 지급하는 의료보험 비용을 BitFit Force 손목시계형태의 Wearable(착용식) 건강 모니터 장비를 통해 건강상태 유지를 위한 활동의 객관적 지표를 구축하여 보험료에 대한 삭감 혜택을 지속 장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입 증대라 판단하는 임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으며 이에 따른 감량효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남.
- (5) 높은 건강보험 비용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미국 기업의 해당 건강보험 관련 대책을 토대로 보다 국내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사보험 및 건강보험의 사회적 비용감소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무엇을
 - 1) 건강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으로 다자간의 보다 이해가능한 자료 형성
 - 건강관리상태 및 예측용 자료 수집
 - 2) 건강보험법 등 각종 법제에 해당 시스템 도입

(2) 어떻게, 왜

- 1) 사보험은 병력(病歷), 가족력,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요소를 기반으로 비용을 책정하며 국민건강보험은 주로 소득을 근거로 비용을 책정하는 방식임. 여기에서 더 나아가 건강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여 더 현실적이며 개인별 각 수준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비용적 혜택을 제시하고자 함.
- 2) 제도적 정비를 통해 의과학적 증거가 충분한 건강관리 행위와 상태에 관해 실제적 지표로써 각 보험사 및 건강보험운용 주체들이 활용하게끔 장려함.
- 3) 이를 참고하여 비용적 혜택을 사용자에게 주게 되며 동시에 질병에 대한 위험 부담률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며 기금의 내실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미래의 건강보험의 경쟁력을 마련할 수 있으며 또 보험업의 새로운 형태의 상품생산이 가능해짐.
- 4) 보험과 관계된 새로운 건강관리 패러다임(Paradigm) 구축에 BitFit Force 혹은 껌력시 기어핏과 같은 국내형 Wearable(착용식)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측정을 위한 건강관리 지표의 발전은 더 발전적이고 예방적인 의료시스템의 정착 또한 기대할 수 있음.

(3) 언제까지 : 총 3년 이상의 과정 예상

- 1) 건강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증거기반의 지표구성에는 사회적 표본 조사와 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중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체계적 검토와 전/후향적 연구의 증거 기반 시스템 수립과정이 필요함.
- 2)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의 국내를 중심으로 수집된 후향적 연구자료와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제도적 시스템 도입은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의 완성 이후 진행 수순에 따름.

■ 소요예산

- (1) 건강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한 팀을 선정하여 중기적 지원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한 예산소요는 규모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음.(산정불가)
- (2)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 필요한 의료, 보험업, 자료수집 및 분석영역의 TFT 구성에 따른 최소인력은 10인 이상으로 총 24억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판단됨.(13년 의료국책사업, 전북대병원)

■ 재원조달방안

- (1) 국책사업 프로젝트 선정
- (2) 외부재원 조달 : 대형병원 및 의료기기업체와의 공동 연구 제시로 대부분의 실험적, 정보적 재원에 대한 부분은 해소 가능하리라 판단됨.

(3) 보건복지부 예산 수립시 반영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1) 수정된 건강보험 및 사보험 책정 형태의 발달은 국가재정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보험업 발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와 관련된 건강 관련 측정장비의 발달은 국내 의료기술개발 시너지가 나타나리라 판단됨.
- (2) 신뢰도와 타당도 높은 보험체계의 완성으로 재정적 불확실성에서 국가와 보험업 계통의 안정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보다 합리적인 사회비용을 지출하게 됨.
- (3) 건강, 재정, 과학, 보험의 발달을 동시 다발적으로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의료보험 선진국인 한국의 실상에 더하여 세계 의료보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그에 따른 사업이라 생각하며 본 제안을 제출함.

■ 결론

상기 건강보험 관련 개선안에 대한 검토와 공약 반영, 나아가 제안의 골자(骨子)가 더욱 발전하여 국민건강 증대에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제목	저렴하고 안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평가 인증제 도입	지역	인천광역시
----	--------------------------------	----	-------

■ 제안이유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의 산후조리원은 54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공공 산후조리원은 서귀포시에 1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 간 격차가 10배에 이르고 있고, 불투명한 비용으로 산모들에게 부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바뀐 뒤 시군구에서 위생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을 뿐 산후조리원 서비스 실태를 평가할 만한 평가인증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보건소와 종합복지시설을 활용하여 국가와 각 지방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저렴한 안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사설산후조리원에 대한 서비스를 평가하는 평가인증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 주요 내용

-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보건소와 종합복지시설을 활용하여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지원
- 사설산후조리원 표준화 체계,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품질관리, 인력관리, 시설·장비 및 환경·안전관리, 위생과 감염관리를 철저히 평가하여 국가가 인증서를 부여

☐ 기대효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산모들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저렴한 비용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줄 것이며, 국민의 출산 장려와 함께 사설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도 공공수준으로 동반 상승할 것입니다.

산후조리원의 평가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산모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산후조리원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목	대학생을 위한 창업 및 취업 융합과정 개설	지역	인천광역시
----	-------------------------	----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가 이전 세대에 비해 높아지면서 취업난 속에서도 대기업에는 취업희망자가 몰리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생각됩니다. 지난 4년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구직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대기업에만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스펙을 쌓는 것이 일반화 되어 가고 있죠.

이러한 구직자들의 무한 스펙경쟁은 창업이나 벤처정신 등의 결여, 취업재교육, NEET족의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로서 매년 50명 이상의 신입직 취업을 위한 구직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과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의 취업지도 교육 사업에 참여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광역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청년창업, 1인 창업 등의 시스템과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취업진로 교육을 융합한 형태의 창업 취업 융합 과정을 개설하여 취업을 앞두고 경험이 부족하고 미래의 진로가 불확실한 대학생들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고경력자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맞물려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사회적 문제에 일부 기여할 수 있도록 실무지원 코칭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고경력 장년층 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층의 창업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써의 운영을 설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대상 : 대학생 참가자
 - 대학생 2학년, 3학년 대상
 - 창업 취업 융합과목 수강 신청
 - 2학기 과정으로 참가
 - 1팀 8명~12명으로 배정
 - 인문 교과목과 공학계열 통합
2. 교육 지원
 - 창업 특성화 과정 교육과정 개발
 - 대학연계 교과 과정 운영
 - 팀별 맞춤 교육 설계
3. 실무 지원
 - 창업 실무과정
 - 50대 이상 고학력자로 구성
 - 교육 외 실제 창업 과정과 현장 실무과정 지원
 - 업계 경험 전수

제목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한 제안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 교통체증이나 사고다발지역 등 시내 곳곳 그리고 교통 요충지에서 비롯되는 고질적인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고 한단계 발전해서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위해서

▣ 효과 : 주요 도로나 변화가 도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다발적인 사고 요소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성숙된 시민의식의 정착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내용 : 현재 주요 도로에서 불법차선운행 차량, 양체끼어들기 차량,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많은 교통 혼잡과 사고원인이 되고 있다.

▣ 해결방안 의견

현재 차량들 대부분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도로주변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보다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영상을 확보 할수 있는 것이 차량의 블랙박스이다.

블랙박스는 현재 고성능화되어 GPS, 속도계측, 주행이력 등을 확인 할 수 있다.(보다 정확한 내용과 상황의 설명 그리고 증거가 될 것 입니다.)

사고 현장의 시시비비 유무나 불법주정차 차량의 확인 및 불법 운행 차량들의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공약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시민들 스스로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면... 이라는 발전된 시민의식으로 고질적이던 교통체증원인 해결, 사고유발원인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의식이 성숙될 것입니다.

블랙박스로 제보·신고를 하는 시민에게는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에 있어 각 내용마다 차이를 두어 2/4/6점등의 점수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점수가 누적되었을 시 30점 - 전통시장상품권, 60점 자동차세 1회면제, 90점 벌점 일정부분 삭감 등의 포상을 하는 겁니다.

공약 초반에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후에는 시민의식 개혁에 큰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출산장려 어플 제작·보급	지역	대구광역시
----	---------------	----	-------

■ 제안배경

-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 흐지부지 되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출산장려 정책들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자체의 미온적인 협조와 저출산 대책 수립 및 시행 등에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 현실입니다.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 없이 역량을 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갑작스런 예산삭감으로 지속적인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역삼각형이 되어 노인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고비용이 들어가는 육아문제로 복합적인 저출산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초혼 연령도 높아지고 미혼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추세입니다. 청년실업 또한 늘어나면서 직장에 대한 불안정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고용환경이 불안해지면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 또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세부내용 및 개선방안

- 사회적으로 출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출산장려어플 ‘Mom대로’를 제작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예비부부들에게 유경험자 및 육아전문가들이 조언해주는 쌍방향 스마트폰 어플을 정부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출산장려어플 ‘Mom대로’를 통해 출산에 대한 부담과 육아에 고민을 덜어주므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출산 및 임신 육아정보를 담아 초보 엄마아빠들의 관심과 반응을 살펴본 후에 본격적인 출산장려 앱으로 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출산장려어플 ‘Mom대로’에 담길 내용들은 육아&건강, 임신&출산, 이유식&간식, 예비맘&대디 등등 입니다. 구체적으로 코너를 소개한다면 건강한 아기를 위한 육아정보 “아장아장”, 현명한 엄마를 위한 이유식 및 간식정보 “맘마미아” 예비맘들을 위한 임신출산정보 “나도 엄마아빠” 아기를 키우며 생긴 다양한 에피소드와 추억을 남길 “맘&대디 추억쌓기” 육아용품을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Mom대로 쿠폰북” 등등 입니다.
- 출산장려어플 ‘Mom대로’를 보급하면서 시범적으로 육아문제로 고민하는 예비부부, 초보 엄마, 다자녀 가정에 정기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업데이트 하거나 이메일로 어플을 보내준다면 내 아이와 함께 배우고 나아가며 출산과 양육에 초보 엄마아빠들을 위해 함께하는 특별한 출산장려어플이 될 것입니다.
- 공공기관 민원실과 병원, 대학 등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슬로건 및 정책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세금고지서나 시정홍보물 또는 공공기관의 번호표에 출산을 장려하는 표어와 슬로건을 기재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으며 기억하기도 편한 출산장려 표어들을 등장시켜준다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까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는 희망솟고 자녀출산 행복솟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구의 희망소리” 등등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행복한 모습과 부모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이와의 감동적인 순간, 형제자매가 있어 좋은 이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가치 있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저출산 극복에 한 몫하게 될 것입니다.
- 출산장려를 위한 ‘Mom대로’ 어플을 제작한다면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각종 정보를 클릭 한번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육아를 위한 매거진어플을 통해

임산부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임신·출산·양육 정보와 꼭 필요한 예방접종 정보를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보 엄마들이 쉽고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앱이 될 것입니다.

- 육아매거진 ‘Mom대로’ 앱을 제작하여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서비스 한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면 초보 엄마들이 스마트폰 어플 하나로도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열린 상담실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궁금한 점을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육아용품 알뜰나눔방도 어플리케이션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소개하며 출산 및 양육용품을 대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제목	다문화 가정주부의 일자리 주선	지역	경기도
----	------------------	----	-----

■ 제안사유(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농촌여성들 보는 것이 이제 거의 일상화 되다시피한 우리 농촌에 이주여성들의 생계 보장, 자아실현 및 다문화사회의 정착률을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과 취업에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됨.
- 상당수의 이주 여성이 여러 정신적 고통,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의 어려움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음.
- 한국인 남편이 고령인 경우가 많아 한참 경제 부가가치를 창조할 연령대이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유흥업소나 성매매로 전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사회 문제시 되고 있음

■ 공약내용

- 한국어와 현지어가 가능하기에 해당국과의 무역에 있어 이들을 통역이나 문서작성 등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상당한 업무증진 효과가 기대됨. 언어뿐 아니라 모국의 문화와 소비패턴에 대한 인지도가 있기에 해외직접투자 마케팅 전략에도 이들의 견해와 의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해당 수출입 업체에 적극적으로 취업을 장려하고 채용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

- 다문화 여성들이 마음을 합심하여 자립형 의존도를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예산 집중적으로 투입
-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두루 섭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나 쉼터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마음의 안정 및 정신적 유대와 대인관계 교류의 기회를 선사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 이혼이나 출산국가로의 도주, 자발적 귀국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외국여성들이 당당히 이질적인 서로의 가치관을 통합하고 우리 농촌을 대표하고 리드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됨
- 외국여성들이 함께 모이고 교류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와 같은 노하우나 생활 정보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봄
- 당장 지출된 소요예산보다는 이로 근절되는 사회적부담 비용이나 이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소요예산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사료됨.

제목	자전거 대여소 활성화 방안	지역	서울특별시
----	----------------	----	-------

저는 이수역 근처에 사는 서울 시민입니다.

지나가다가 자전거 대여소가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무료가 아니라 유료라는 것이 일단 눈에 띄었고, 또한 반납은 반드시 원래 있는 곳에서 반납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자전거대여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해보았더니, 서울시 20개 자치구가 36개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전거 대여소가 무료인 곳도 있지만 유료인 곳도 있었습니다. 이를 일관되게 통일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만 하면 통일시키기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27곳이 무료로 대여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9개 대여소만 일치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자전거 보관 관련입니다. 저는 이수역쪽만 보았지만 다른 곳도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자전거대여소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옆에 설치되어 근접성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대여소라고는 하지만 자전거를 보관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붕도 없어서 비가 오면 자전거가 고스란히 비에 맞아 부식되기 쉬워 보입니다. 최소한 지붕과 차단막을 만들어 비와 먼지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자전거 반납 관련입니다. 자전거를 반납을 받드시 대여한 곳에서 해야 된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자전거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불편을 감수할 정도로 자전거를 타려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제안과 관련 첫째, 셋째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구간의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둘째 보관과 관련하여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나 조립식으로 짓는다면 적은 비용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목	대형마트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살리기	지역	부산광역시
----	----------------------------	----	-------

☛ 제안이유

식료품에 경쟁력이 있는 전통시장과 공산품에 경쟁력을 갖춘 대형마트를 같은 경쟁라인에 두고, 대형마트를 규제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형마트 안에 전통시장 코너를 만듦으로써 전통시장도 살리고 대형마트는 주말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주요내용

1. 전통시장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전통시장 상인 pool을 만들어 공정하게 서로 돌아가면서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줌. 즉, 대형마트 내에 전통시장 코너를 만들어 상인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줌.
2. 상인들은 가격을 공개하여 물건을 팔고,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자부심을 가지도록 “철수네, 순이네” 등 상호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걸고 또 자신의 얼굴로 표지판 등으로 만들어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할 것임. 이름과 사진을 내거는 이유는 익살스럽고 정감있게 소비자에게 다가가서 전통시장만의 향수를 살리기 위한 것임.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법

1. 대형마트는 주말 규제때문에 손해보는 비용이 있음. 그 비용을 전통시장 코너를 만드는 것

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정부는 전통시장을 입점하여 운영하는 마트에게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줌.

2. 또한 대형마트 자체 홍보효과와 기업의 이미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반응일 것이기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가 win-win하는 전략이 될 것임.

☛ 지자체의 역할

1. 이 제도를 악용하는 대형마트가 없도록 지자체는 대형마트 편이 아닌, 전통시장 상인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금전적, 심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제목	효 중심 나눔 공약	지역	전라북도
----	------------	----	------

따뜻한 효도청원기반 확대

- 방문민원처리반 ‘행복배달원’ 운영
- 노인건강전문 강사 운영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대 설치
- 노인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안전망 구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소외계층 한글 및 정보화 교육
-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 여성사회참여 기반 강화
- 북이·내수보건지소 신축 및 확대
-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
-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책 추진 방과후 초등학교 공부방 지원 확대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초중생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년간 2억원투자 시설확충 및 건립기반 마련

* 시에서 50% 정부에서 50% 재원조달 받아서 점진적으로 실천방안 마련
 2015년 7월 이후 정읍시에서 봉사 및 나눔인원 매달 자원봉사자 모집
 식재료는 시에서 부담 및 모금방안조달

제목	나들가게의 경쟁력 제고	지역	대전광역시
----	--------------	----	-------

☛ 제안이유

매출실적이 좋지 않은 나들가게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동인구가 적고 입지가 좋지 않아서 라기 보다는 점포 내부의 인테리어에도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게 내부 정리, 진열대 재배치, 물품정리 외 기타 조명이나 여러 부대시설 장식 테코레이션까지 시각적으로 점포 내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어서 고객들로 하여금 다시 오게 하는 점포, 발길을 가다가도 멈추게 하는 점포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점포주들은 이런 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원하는 업주로 하여금 가게 인테리어 컨설팅을 요청하면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컨설팅을 해주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면 매우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 제안내용

나들가게 업주들에게 이런 인테리어 컨설팅 상담을 받는다는 식의 안내 팸플릿을 배포합니다. 또는 여러 매체나 SNS를 통해 이런 식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니 관심 있는 업주들은 신청 바란다는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실시하고, 반응이 예상외로 크다면 소정의 수수료만 받는 식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컨설팅 상담 후 점포주의 형편과 희망사항에 맞는 맞춤형 인테리어를 통해 전문컨설팅 업주와 증개역할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을 듯싶네요.

☛ 기대효과

내부 인테리어의 변화로 기존보다 분명 고객들이 많이 들르는 점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보다 많은 상품을 진열하거나 보다 고객위주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도 용이할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업종별로 주 타겟 고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업종에 잘 조화되는 섬세한 공간창출의 컨설팅이 점포의 매출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기존에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중개역할만 잘 하면 소요예산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민의 삶과 직결된 생계형 상권이기 때문에 일정부문의 재원지원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제목	보건소에서도 장애인등록 진단 실시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장애인등록을 위해서는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야 함. 보건소도 시행규칙상 장애인진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긴 하나 인력의 부족으로 장애인등록을 위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인같은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에서 장애인등록을 위한 진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못하고 있다고 판단
- 인력공급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의사협회등과 연계해 각 장애유형별 진단을 저렴한 수가로 받을 수 있게 하도록 개선
- 장애인등록을 받으려는 많은 장애인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완화 및 장애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보건소를 이용함으로써 각종편의 제공
- 의료인력 보충에 따른 인건비 소요 국비보조금 지원

제목	마을버스도 버스도착정보에 추가	지역	부산광역시
----	------------------	----	-------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이용에 있어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마을버스만 해도 도착시간을 아는 것도 어렵습니다. 시내버스는 차츰씩 버스정류장에 도착시간의 정보를 알 수 있지만 변화가나 인구밀집 지역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도심외곽으로 조금만 벗어나도 휴대폰 어플이 없는 한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요.

5분당 한 대 꼴이 버스가 있는 반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오는 버스도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더 하지요. 마을버스라는 게 그 동네의 구석구석으로 가는 버스이지만 언제 도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공약은 버스도착전광판에 마을버스도 따로 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마을버스도착 알림판이라도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버스 회사에서 만든 A4짜리 종이가 아니라 LED전광판이나 하다못해 철제알림판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마을버스 요금을 현행요금에서 100원이나 150원 인상으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민자치센터에 24시간 보육센터 운영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늘어가는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장, 야근, 특근이 잦은 이들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 주요내용(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주민자치센터에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센터를 구청에서 운영한다면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1년 후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면 될 듯합니다.

☛ 소요예산과 재원조달방안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복지부 예산과 서울시 예산,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구비로 충당하면 가능할 듯합니다.

제목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지역	충청남도
----	--------------	----	------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비장애인입니다. 사고가 나 다쳐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장애 아동들은 부모가 양육한다 하지만 청소년이 되면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진로와 직업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 제안이유

1. 장애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진로와 직업교육 인프라가 부족
2. 스스로 노력해야 돈 벌 수 있다는 직업교육을 통한 자립심 강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주요내용

1. 무엇을
 - 우리 지역 기업 및 기관들과 함께 진로 및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도록 한다.
2. 어떻게
 - 가.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기업 및 기관들과 함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는데,
 - 나. 진로탐색교육(현장체험학습) - 고교 1,2학년 대상
복지연계 일자리사업 - 고교 3학년 대상
각 학습학교일자리사업(희망일자리사업) - 고교 졸업생 대상
 - 다. 주 1회 1시간씩 실시하는 진로탐색교육은 교육지원청과 지역내 기관들을 모집하여 교육 실시
 - 라. 1일 4시간 이내로 실시되는 복지연계 일자리사업과 희망일자리사업은 국비와 도, 군비의 지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 마. 구체적인 예로는 병원, 문구점, 중소형 수퍼마켓, 도립 도서관, 각 학교의 행정실 보조 등의 일자리 사업이라 하겠다.

☛ 소요예산

1. 진로탐색교육(현장체험학습) ⇒ 특수교사 및 학교 진로교사의 교육으로 거의 들지 않음
2. 복지연계 일자리사업 : 국·도·군비의 지원
3. 각 학습학교일자리사업(희망일자리사업): 국·도·군비의 지원
높게 책정해도 1교당 5천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됨

제목	출산장려 사업 제안	지역	충청남도
----	------------	----	------

☐ 제안이유

저는 충남 예산군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고장 예산은 아이보다 노인이 많은 곳입니다. 읍사무소에 출생신고 하러 가면 직원들이 정말 반가워하는 곳이지요. 시골마을이다 보니 노인정이 넘쳐나고 시골장터에도 노인들이 참 많 습니다. 아이보다 노인이 더 많아지는 이유를 생각해보니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직장에 대한 불안 정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고용환경이 불안해지면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 또한 부담으로 다 가 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주요내용 및 개선방안

1. 출산 장려 정책들은 대부분 1년 이내에 끝납니다. 보건소에서 엽산을 주고 철분제를 주고 양육수당으로 주는 것이 끝이지요. 이런 미온적인 출산장려 정책 때문에 저출산의 악순환 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악순환의 결과로 예산에는 아이를 분만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지요. 그래서 인근 천안이나 아산에서 출산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 대비하 기 위해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역량을 넘는 계획수립은 없어야 할 것이며 예산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출산장려정책 중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부분 출산 등 어린아이 위주 로 되어 있다보니 실제로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중, 고교, 대학생 자녀가 여럿인 다 자녀 가정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가 들이 많은데, 지원기준이 보이는 규모(소유 농토)만 따질 뿐, 부채는 반영이 되지 않아 대 상에서 제외되곤 하므로 세심한 행정이 요구됩니다.
3. 노인이 많은 동네이다 보니 노인관련 사업이 집중되는 일이 많습니다.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 시대에 대한 정책도 많이 나와줘야 합니다. 예산벚꽃 길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문화시설의 적극 활용과 함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의 확충과 함께 전문가 배치도 중요할 것입니다.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아야 지역이 발전하고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 소요예산

출산 양육재원의 활용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비용의 20%증가로 확충하도록 합니다.

제목	광고신도시 직행버스 도입	지역	경기도
----	---------------	----	-----

매일아침 광고 호수공원 상록아파트에서 영통 홈플러스쪽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자가 차량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매일아침 출근하려고 버스를 타면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이유인즉,

1. 버스가 광고도시 블럭마다 뱅글뱅글 이잡듯이 온 아파트 단지를 거친 후에야 광고 마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자가 차량으로 하면 법원 사거리까지 10분 미만으로 도착하는 거리이나 버스로 하면 25~30분이 소요됩니다).
2. 구역마다 설치 되어있는 신호등, 한 신호를 받고 꺾으면 또 신호, 꺾으면 또 신호, 처음에 광고로 이사왔을 때 버스기사님들이 왜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시고 달리시나 했더니 제가 며칠만 버스를 타보니 저라도 무시하면서 달리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호에 붙잡히는 횟수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잡듯이 여기저기 다 거치는 버스 노선과 다량의 신호등 조합으로 광고시내를 빠져나가기가 어찌나 힘이 들고 오래걸리는 지 그 고충은 말도 못합니다. 직장 동료가 그러더군요. 광고는 교통편이 불편해서 이사가기 싫은 동네라고, 차 없으면 살기 불편한 동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름 사는 곳에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에는 대꾸할 말도 없고 씁쓸한 순간이었습니다.

광고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커져갈 도시임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집 있다고 이사오라고 하기 전에 교통편부터 편리하게 정립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광고단지를 돌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는 직행 버스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도입해 주세요.

제목	저소득층 대상 통합사례지원센터(사업)의 활성화 방안 제안	지역	인천광역시
----	---------------------------------	----	-------

☛ 제안이유

- 1) 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나머지 채무 조정 대상자 262만명 중 60% 이상은 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이거나 소득은 있지만 빚을 갚을 정도의 여력은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 2) 14년 4월 28일부터 제한적이기는 하나 모든 회생과 파산관련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
어진다.
- 3) 이럴 경우 전산화 소외계층의 경우 더욱 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양질의 일자리복지를
통한 자활, 자립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 주요내용

- 1) 전산화 소외계층 및 법률지원 소외계층의 저소득층 주민들 및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 2)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자가 중심(중앙본부 인천)이 되어 금융복지 행정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전산화 프로그램 구축)을 가동하여 실질적인 근로방해요인을 제거
함으로써
- 3) 근로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키고, 취업률 및 근속률을 향상시킨 후 통합사례지원센터(사업)
에서 재무교육 및 상담, 신용회복프로그램 교육, 소양 및 직무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커리를 제공하여
- 4) 6월말까지 운영을 위한 사업비만 집행이 되면 2014년 12월까지 전국 247개 기관을 하
나의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로 묶을 수 있다.

☛ 소요예산(만원)

- 1) 사업비 : 홈페이지 구축비용(2,500)+사업운영비(500)
- 2) 인건비 : 초기 Pilot 사업임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약 2인 고용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경우 자활급여로 대체할 수 있어 인건비 미발생)

☛ 재원조달방안

- 1)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연장선상임을 감안하여 자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 2)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에서 3,000만원에 1/n을 하여(약 122,000원/1개소당) 전산구축
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비로 집행 가능 방안

제목	장애인 교통할인 제도 개선	지역	경기도
----	----------------	----	-----

☛ 제안이유 : 장애인 지하철 할인제도의 대중교통 확대

☛ 주요내용

장애인 할인카드가 현재는 지하철만 할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은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의 거리합산제 교통카드에 비하면 할인율이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 지하철 ⇒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실 장애인 지하철 할인카드를 이용하면 가격이 훨씬 높게 내게 됩니다. 지하철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되어 이용에 도움이 되지만 버스가 포함되거나 환승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교통카드가 도움이 됩니다.

☛ 재원조달방안

장애인 복지예산에서 교통할인카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목	상가와 대학생을 연계한 외국인 안내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저는 서울 동대문구 외대앞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지요! 얼마 전에 그곳에서 겪은 일이며 관련하여 제 페이스북에도 올린 일이 있네요.

한무리의 중국인분들이 비가 오는 길에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며 계속 마주치기에 짧은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분은 중국어만 할 줄 알았고 저는 한국어와 짧은 영어만 가능해서 근처 중국분이 운영하는 가게로 데려가 통역을 요청했으나 같이 온 일행을 잃어버렸기에 정말 발로 뛰어서 찾아야 했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외대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데 오고가는 이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없고 처음 온 학생들이 당황스럽고 이처럼 길을 잃거나 할 경우 휴대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황을 할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외대역 입구부터 문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캐릭터와 예를 들어 [길을 잃었거나 길을 찾으시는 외국인들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 주요내용

외대역과 경희대 지하철과 주변 상가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TV에서 봤는데 서울 서대문인가 어느 마을에 위험할 때 방문할 수 있는 집을 선정한걸 보았습니다. 비슷한 방법입니다. 외대역과 회기역 지하철역과 대학주변 상가들로 [welcome] 상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생들과 주변대학생들과 함께 통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외국인에게 편하게 오고 당황하지 않게 한국생활을 시작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홍보도 하고 언제까지 기준은 없습니다. 쪽 가는 겁니다. 상가에겐 건별로 일정의 사례금 또는 인센티브 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본 관리도 해야되니까요!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는 한국학생에게는 자원봉사 점수를 외국국적 학생들에게엔 김치 또는 대한민국과 관련된 쿠폰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덕수궁 또는 경복궁 등을 갈수 있는 무료관람권 또는 서울학생들에게 부산을 여행할 때 KTX할인권 등을 주는 겁니다!

우선 외대와 회기역 주변을 근거지로 해서 점차 확산되어 가면 전국의 외국인들에게 좀 더 편리한 한국방문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 **소요예산** : 상가들에게 인센티브 건당 1천원내외... 그리고 기본 관리가 있으므로 관리비 관련해서는 상가들과 협의해서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재원조달방안

품앗이 개념이라 큰 돈은 들지 않고 초반에 홍보비만들꺼라 생각합니다!

확산되면 인천공항에서부터 지하철에서부터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길을 잃은 당신에게 대한민국은 손을 내민다는 문구를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성범죄자 관리시스템 보완 및 강화	지역	경기도
----	--------------------	----	-----

아이 둘을 키우는 아이엄마입니다.

저는 요즘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특히 성범죄자 관련 법이 너무나도 가벼운 우리나라는 더 살기 무섭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 강화는 많이들 제안하셨네요.

유명한 나영이 사건 조두순사건들 다들 아시죠.

그 일이 있는 뒤 많은 사람들이 솜방망이처벌에 분노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술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형까지 감해줬죠. 기가막히더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몇 년이 지난 현재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이제 곧 조두순이 풀려날 것이라는 소문에 딸 가진 엄마로서는 불안함이 더해집니다. 성범죄는 재범율도 높은데요.

선진국의 성범죄자의 형량 기사를 보며 역시 선진국은 달라 저런 곳에서 딸을 키우면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면 뭔가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니까 성범죄관련하여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며 표를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우리 동네 성범죄자 관련 안내문이 한번 우체통에 배달이 되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가 우리동네에 정말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지만 우리 동네이며 실 거주지는 다른 동네일 경우엔, 다른 동네거주자가 우리동네에 실 거주할 경우 성범죄자 알리미에 헛점이 보이더군요.

좀 더 뭔가 확실하게 보완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장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동네 놀이터에 이상한 아저씨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노래를 부르며 그네를 타며 아이들을 쳐다보곤 하는데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 아저씨는 우리 동네에 성범죄관련된 아저씨라는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그런데 성범죄 알리미에는 등록이 안되어 있었으며, 소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만 소수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마음놓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당선되시면 의회에서 제발 성범죄시스템강화를 위한 인력증가 및 예산에 힘써주십시오!

☛ **소요예산** : 각동마다 2명의 감시인원배정(동사무소 또는 경찰 계약직), 일주일에 한번씩 직접 실거주확인

☛ **재원조달방안** : 광명시 생활체육예산을 축소하고 그 예산을 가져온다

시민을 위한 체육 예산이 아닌 시민들 몇 명 모아놓고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사용되는 예산 시스템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목	고용복지 종합센터 유치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지역	충청남도
----	-----------------------------	----	------

제안이유

- 현재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군청과 고용센터, 자활센터 등 관련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며, 홍성군은 보령고용센터, 예산군은 천안고용센터 관할로 구인구직,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소재한 각 관할 센터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음.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에서 고용과 복지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복지 종합센터 건립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2014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70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음.
- 충남도청 이전으로 홍성과 예산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기에, 홍성, 예산 두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내포신도시에 유치(신설)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제목	내가 사는 지역에 내 가로수 한 그루 만들기	지역	서울특별시
----	--------------------------	----	-------

저는 4살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 또래의 아이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 아이는 자연, 생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나무에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인도에 심어져있는 가로수를 볼 때마다 이 나무, 저 나무 이름을 물어보곤 하는데 사실 소나무,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이상은 모르겠더군요. 서울시에 심어져있는 가로수 목록을 받아서 공부를 해볼까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내 가로수를 하나씩 만들면 어떨까?

매년 가로수가 죽어서 뽑기도 하고 봄이 되면 전선에 걸린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무자비하게 자르기도 합니다. 가지하나 남기지 않고 나무 기둥만 텅텅 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한 두 해 산 나무들이 아닐텐데 아깝고 나무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구역을 정해서 학교나, 유치원 등 교육 시설이나 기관에 부여를 해줍니다. 매일 물을 주거나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어도 이 나무가 우리 나무라는 생각을 하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돌볼 것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아이들 혹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전봇대에 걸리는 이 지역은 가지치기를 하고 여긴 다음해에 해도 되겠다는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면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로수나 도시 환경 관리에 대한 기존의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아이들에겐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는 1석 2조의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휴일당직병원 및 약국 확대 운영 실시	지역	대전광역시
----	----------------------	----	-------

현재 공휴일에 당직병원과 약국운영 실태를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주위에 환자나 위난 발생시 응급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직병원과 약국을 확대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확대규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재원은 국비와 시비 등으로 조달

제목	심리상담소 설치운영 제안	지역	경기도
----	---------------	----	-----

☐ 제안이유

- 1) 급속한 현대화에 따른 사람들의 소외감 및 우울증 급증
- 2) 자살률의 급증, 범죄율 증가 및 기타 사회적 문제 야기
- 3) 정서적 불안 해소 대책방법 미흡
- 4) 병원 정신과 치료 시 기록에 따른 사회적 낙인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 및 반감

☐ 주요내용

- 1) 전화 및 인터넷상담소 설치
 - 접근성 용이
 -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상담사의 재택근무가 가능하여 인프라 구축 부담 절감
- 2) 각 주민자치센터 내 심리상담소 운영
 - 동일그룹(ex.연령, 지역, 동호회 등) 대상 단체상담 운영
 -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심리불안요소에 대해서 조기 예방 진단 가능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1) 소요예산

(1) 전화 및 인터넷상담소 소요예산

- 388,053세대*시간당6천원*1/2=금1,164,159,000원(금일십일억육천사백일십오만구천원)
 - ※ 세대별 1명씩 1시간씩 상담 받는다고 가정
 - ※ 상담사의 1/2는 자원봉사자로 충당

(2) 주민자치센터 내 심리상담소 소요예산

- 상담소 인테리어 4평 *평당50만원*48동=금96,000,000원(금구천육백만원)
 - ※ 상담실은 기존 자치센터 내의 비품실 등을 활용한다고 가정
- 성남시 48동*자치센터 상담사1명*100만원=금48,000,000원(금사천팔백만원)
 - ※ 주3회, 일4시간 가정

2) 재원조달방안

- 복지예산으로서의 국가보조금 기본채택
- 자원봉사 모집을 통한 상담사 충원으로 예산절감
- 유료 상담운영을 통한 예산확보 ※단, 수직적 형평성 고려하여 저소득층 무료 지원
(ex.단체상담 10명기준 월1회 1시간 5만원, 개인상담 1시간의 5천원 등)

☐ 기대효과

- 1) 주민만족도를 통한 성남시 가치상승
- 2) 정서적 안정을 통한 행복지수 및 경제·사회적 효율 상승

제목	경비아저씨에게 택배 수당 지급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아파트에 살다보면 아주 많은 택배를 경비 아저씨들께 맡기고 찾아 갑니다. 어떨 때 보면 산더미 같더군요. 경비아저씨들 월급을 보면 정말 알바학생 수준인데요. 택배 수당을 줬으면 합니다.

☛ 주요내용(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경비아저씨들 기본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택배 업무가 가중되는 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박카스 한병 정도 보다는 실질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복지 차원에서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고령의 경비 아저씨들이 잔업도 많고 임금은 쥐꼬리인데 택배 업무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데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

1. 택배 한건당 수당을 주기보다는 일당으로 하루에 3,000원 정도 수당을 주는 게 어떨까합니다. 경비 아저씨들 월급 한달에 5만원만 올라도 크게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정도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아니면 못받은 택배는 일괄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게 합당할거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할일을 경비아저씨들에게 넘기는 건 아닌거 같습니다.

☛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따로 '택배 업무'를 고지해서 일괄 징수후 경비아저씨께 배분하는게 아주 합당할 것 같습니다. 경비 아저씨 택배 업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인데요. 관리비에 서 배분하면 사람들 인식도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최저 노동자중의 한명인 경비아저씨들 처우는 우리사회 모두가 동참했으면 합니다.

제목	맞벌이 엄마들을 위한 영유아 방과후 및 연장 어린이집 확대	지역	울산광역시
----	----------------------------------	----	-------

요즘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맞벌이 엄마들의 아이들 맡기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5시에 일괄 하원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받을 동동 거립니다.

공공형이나 국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연장으로 아이를 돌보아 주지만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시설을 늘리기가 힘들다면

1. 민간형 어린이집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거나
2. 방과후 또는 하원후에만 돌보아 주는 시설을 늘려주거나
3. 국공립, 공공 시설을 확대해서

엄마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제목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방안	지역	광주광역시
----	---------------	----	-------

갈수록 심화되는 북구 지역 골목 주차난은 주민 스트레스 및 이웃 간 다툼 증가, 행인의 통행 지장초래, 재난발생시 소방차 진입방해 등 주민의 행복도를 낮추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 지역의 주차난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1. 폭발적으로 늘어난 차량 등록 수
2.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원룸
3. 좁은 골목길
4. 공영주차장 부족

위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난 해소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골목가에 어떻게 하면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1. 원룸의 주차면 활용

최근 몇 년 새 엄청나게 증가한 원룸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자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남대 정문 쪽만 해도 어림잡아 50개가 넘는 원룸이 들어섰습니다. 신축 원룸 대부분 10면이 넘는 주차 면을 가지고 있어서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골목에는 이중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도 원룸들은 3대에서 5대 넘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들이 보입니다. 북구청에서 원룸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1~2대 정도 각 원룸에 주민들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게 협조를 얻으면 어떨까합니다. 나아가 재산권을 침해하

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원룸에 주민도 주차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식당, 회사, 교회 주차장 개방

지금도 일부 교회에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규모 있는 식당엔 꽤 여러 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퇴근 후, 주말엔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죠. 이런 공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회사나 식당들이 주말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을 봤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응 또한 아주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 주택가에도 큰 교회와 식당,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이끌어 낸다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청에서 이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주민도 좋고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쪽도 만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3. 공영주차장 건립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민과 구청, 지자체, 국가의 힘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북구 지역 주택가를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 많습니다. 이를 지자체에서 구입 또는 임대하여 주차타워나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부담하기엔 그 비용이 막대하여 광역단체와 국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주민들의 염원과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앞으로 녹지 조성이 많이 이뤄질 테니 공원이 조성될 지역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면 좋을 듯합니다. 공원은 주택을 허물지 않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 가지 주차난 해소 방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디 앞으로 선출될 인재들이 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살기 좋은 북구,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됐으면 합니다.

제목	경로당(노인정)을 이용하시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 제언	지역	대전광역시
----	-----------------------------------	----	-------

☐ 제안이유

저는 87세의 친정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대전시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의 친정 노모를 비롯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무료함의 일상을 달랠 수 있는 공간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나 없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곤 합니다.

그나마 저의 친정어머니 같은 경우엔 오전에 아파트에 있는 시설인 경로당(노인정)에 가서서 오후쯤에 돌아오시는 것이 일상의 활력이곤 하는데,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경로당은 그저 어르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일 뿐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란 곳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차량이 시간마다 운행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위치가 멀리 떨어져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을 위해 활성화되어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약을 제안해 봅니다.

1. 경로당(노인정)안에 매일은 못하더라도 매주에 두 번씩이라도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열렸으면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처럼 한글과 수학, 노래교실, 노인체조,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이러한 프로그램이 생겨서 동참할 수 있는 봉사자들의 많아졌으면 합니다. 저부터도 동참하고 싶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니 하고 싶어도 늘 마음뿐입니다. 경로당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봉사자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봉사자들이 많아지도록 봉사점수 등 혜택을 부여해 주신다면 동참하시는 봉사자분들이 손길이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3. 경로당에 다녀가시는 의료서비스의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의료서비스가 오기는 하지만 극히 드문데 경로당을 찾는 노인분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지원이 많아져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4. 경로당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문화비를 지원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도관광이나 어버이날을 위한 축하잔치 등을 위한 지원 등을 해주신다면 어르신들의 노후가 더 즐거울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고립되어지고 소외되어지는 노인분들은 건강악화와 치매 우울증등으로 어르신들의 문제는 참으로 크게 느껴집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공약으로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되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대해봅니다.

제목	어린이들에게 우비 및 투명우산 나눔 행사 개최	지역	경기도
----	---------------------------	----	-----

어린이들이 비올 때 우비나 우산을 많이 쓰고 다니는 데요. 앞의 시야가 잘 보이지 않고 특히 비바람이 불면 더욱더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자동차 사고나 장애물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비나 투명우산을 쓰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최선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우비나 투명우산을 나누어 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우비나 투명우산을 무료로 나누어 주기에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기업의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우비나 투명우산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말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비오는 날 더욱더 취약한 어린이 교통사고나 장애물 충돌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사고 유발율이 높은 1~3학년까지 제공하고 학교별로 차별화해서 우산만 보고 어디 학교인지 알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이름도 넣고 위험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119나 112와 같은 문구를 우산이나 우비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	학교밖, 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공간 마련	지역	서울특별시
----	------------------------------	----	-------

본인은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대표로 있으며 청소년 관련하여 24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로 사회적 관심이 아동 청소년에 집중되고 있는데, 정작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열악합니다. 다 가정이 있지만 부모들은 쉬쉬하면서 맘고생 하고 있습니다. 자식일이라 드러내 놓고 상담할 수 없어 대다수 병어리냉가슴을 앓고 있죠.

이런 학교부적응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내 보안관 제도라든지 엄격한 학교내 강화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골목 골목 어두운 곳을 찾아들었습니다. 담배와 음주, 성적으로 문란함에 노출되기 쉽고 범죄장소로 골목골목이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것은 이들이 선거에 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몇 아이들을 만나며 상담한 결과 “어른들은 무조건 우리를 싫어한다” 또는 “우리를 보면 누구든지 싸우려고만 하고 소리 지른다”라고 합니다. 이들 세대는 에릭슨도 ‘상상의 관중’, ‘개인적 우화’를 가지는 세대라 보여지는 것과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대하면 안되는 데도 사회적 지지기반이 없다보니 계속 탈선이나 방황의 늪에서 헤어나

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쉼터 (함께 간식도 먹고 놀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됩니다. 현재 휴카페 등이 개설되어 있지만 턱없는 예산으로 (연2,000만원) 운영되어 사실상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지역아동센터처럼 민간에서 이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 사회가 함께 이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에 하나씩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권역별로 1개소 이상 설치가 되어 아이들을 재교육하고, 금연교육, 직업교육,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학기회 등 다양한 접촉점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들의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노인요양병원, 센터는 많아지는데 청소년 시설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토록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가출해 쉼터로 가기 전에, 또 원조교제나 가출팸을 만들기 전에 미리 예방차원에 지역 지역마다 청소년들의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지역아동센터처럼 보편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청소년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변화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원봉사센터 건립	지역	충청북도
----	-----------	----	------

■ 제안이유

충주에는 4만5천여 자원봉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열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자원봉사센터는 충주시청 10층에 10평 내외의 공간에서 무상임대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3~4평정도의 자원봉사자 회의실이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회의실, 교육장, 연습장등을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건물도 없거니와 예산도 없어 제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주요내용

자원봉사센터 단독 건물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경기 및 전라도, 경상도등 일부 지역센터에서는 단독건물로서 500석 회의실, 소규모 회의실, 전문봉사단 연습실, 자봉카페 등 자원봉사자들이 맘놓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봉사활동 준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주시 같은 경우 2013년 경우 108회/9,435명 정도 교육을 하였으며, 장소는 시청

및 유관기관에서 빌려가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정 맞추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자원봉사업무는 1993년도부터 시작하여 2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독립된 건물에서 자원봉사자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때가 되었습니다. 금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자분이 임기내에 꼭 건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힘을 합치면 되지 않을까요?!

충주시자원봉사자는 인구대비 21%의 등록률로 활동봉사자 수는 19,000여 명으로서 48%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5천여 충주시자원봉사자는 센터 건립을 간절히 원합니다.

제목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노란조끼요원 배치	지역	경기도
----	------------------------------	----	-----

노란조끼요원이 안전을 지킨다.

1. 환승지하철역 안에 경험 많은 노란조끼

〈지하철, 버스등의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많은 노란조끼 요원들〉

- 지하철 승하차시 안전하게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걸 도와주고 몸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아이들의 안전을 도와줍니다.

2. 주말에 붐비는 관광지에 학생, 지자체 노란조끼

〈젊고 건강한 학생노란조끼,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노란조끼 요원들〉

- 자원봉사를 원하는 학생들, 지자체의 봉사희망자들에게 관광지의 안전을 도와줍니다. 학생들은 봉사시간을 벌수 있고 지자체의 봉사희망자들에게는 봉사시간과 더불어 지자체에서 배울 수 있는 컴퓨터 등 무료프로그램의 수강증을 지불합니다.

3. 학교 스쿨존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노란조끼

〈퇴직한 선생님들이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는 노란조끼 요원들〉

- 스쿨존에서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안전사고가 빈번하여 아이들이 골절상을 입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노란조끼들이 아이들의 등하교와 안전을 책임집니다. 퇴직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안전과 풍부한 경험으로 학교 앞을 지킵니다.

일본에 갔을때 정말 놀라웠던건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지하철이나 전철역에 수많은 직원들이 사람들의 타고 내리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관광지에

서도 유명한 관광지로 진입하는 길을 수십 명의 조끼를 입은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차들을 안내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지키는 조끼를 입은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사람이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끼를 입고 위험한 곳곳에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자원봉사자들과 젊은 노인들을 재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과 안전을 지키는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세상이라면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제목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지역	서울특별시
----	------------------------	----	-------

저출산 제도 및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데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회적 배려와 그 풍토조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아직 우리 현실에서 직장여성이 출산을 하고 양육하는데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행 보육시설 지원정책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어촌과 저소득층 지역의 보육시설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도농복합지역이 많은 지역은 특별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대안 마련에 나서야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① 아이돌봄 사업의 전사적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아이를 맡놓고 맡길 수 있는 돌봄사업의 전사적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공급자 중심의 보육 정책이 아닌 수요자 중심, 특히나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지만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돌보미 사업이 외면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돌보미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력공백이 심한 중장년 여성들의 재취업을 원할 경우 이런 아이돌봄 사업의 확대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②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 도전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고, 이들 여성들에게 일자리 정보제공, 구직상담과 직업교육기관의 설치, 기업의 구인을 도와주고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경력단절여성

전문 헤드헌터〉의 양성도 적극 생각해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③ 동네별로 자녀양육 부담을 함께하면서 육아정보나 육아용품품을 물물 교환하는 센터의 활용도 검토해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④ 미래 위험 담보차원의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대상입니다.

세계적으로 40대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양육의 부담이 가장 큰 40대에 한부모가족이 될 미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실직이나 경제적 빈곤 등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바 미래 저소득층 가족, 한부모 가족이 될 지도 모를 미래 위험 담보차원에서도 지원정책을 펴야 저출산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 한가족 부모들이 창업지원비용이나 장기저리대출 그리고 취업장려정책 등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도 연구해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⑤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외국의 경우 어머니 혼자서 사회적 활동과 함께 자녀 양육을 하는 경우 비밀비재 합니다. 사회적 가치관이나 윤리적 잣대는 차치하고라도 아직 우리 사회에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개선이 잔존하는 한 출산을 역시 개선될 기미는 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혼모라 할지라도 일과 양육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이들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여성의 경우 결혼하고 출산을 하면 자연스럽게 직장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맞벌이가 아닌 이상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기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육아와 출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언제든지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취업을 장려하고 여성들로 하여금 적극적 도전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불행하게도 한부모가족이나 미혼모가 되더라도 부담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이런 정책들이 많이 도움을 주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상기 공약은 사회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캠페인 차원의 공약으로 소요예산이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경력단절여성이나 취업희망 여성의 사회 재배치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는 소요예산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목	장난감 도서관 설치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	광주광역시
----	------------------------------	----	-------

☐ 제안이유

광주 동구의 가장 큰 과제는 인구유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택지개발 사업 등 최근 들어 건설관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는 200만원, 셋째 아이는 1000만원의 파격적인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 출생전 부모의 거주지 등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인구유입율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구 재정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1) 무엇을

그래서 파격적인 장려금 정책보다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프라로 어린이공원, 공공도서관의 영유아 어린이 코너 및 프로그램 확충, 영유아 단시간보호시설 등이 있지만 실제 필요하지만 없어서 불편을 느끼는 ‘장난감 도서관’ 설치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관내에는 장난감도서관 자체가 없고, 평일 업무 등으로 주말(토요일 오전)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일곡지구에 있어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어떻게

- 종합복지관 또는 동구문화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 코너 설치, 또는 푸른길 주변의 신규시설 활용
- 현재 시행중인 장난감도서관, 광주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행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및 노하우 전수, 상근인력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배치, 비상근 인력은 자원활동가 및 일반·청소년 자원봉사자 활용

3) 언제까지 : 준비기간, 예산편성 등으로 고려하여 2015년 4월 사업 시행

☐ 소요예산

기존시설 리모델링 비용, 장난감 구매비용 등 첫 해 3천만원, 이후 연 1천만원 예산 소요 예상

☐ **재원조달방안** : 지역의 유통업체 등 영유아 아동 소비층과 연관된 기업의 후원 요청, 아동복지재단의 기금 협조 요청 및 구 복지예산 활용

제목	농어민 전용 피트니스센터 건립	지역	대전광역시
----	------------------	----	-------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농어촌은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설립이나 확충이 미약한 상태이고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헬스클럽(Health Club)이나 피트니스센터(Fitness Center)의 경우 사업주들이 경제성 문제나 농어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농어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비단 피트니스 센터 뿐 아니라 농어촌에서는 다른 여가생활을 즐길만한 인프라 시설도 전무한 실정.
- 지자체별로 문화회관이나 기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는 하지만, 가족단위나 단체 이용객들을 위한 용도의 성격이 짙고,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으며 생계 문제로 인해 이용할 수 없는 농어민들 또한 많음.
특히나 새벽 일찍 조업을 해야 하는 어민들 또한 시간이나 거리상 문제로 인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용이 절실한 고령자분들이나 독거노인들이 이용하는데도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시 되고 있음.
- 골프나 스키 등 부유층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는 말할 것도 없고, 수영이나 게이트볼, 댄스 스포츠와 같은 대중적 스포츠도 인프라의 부족으로 즐길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개선방안

- 피트니스센터의 건립과 지원
사업성이 없어 농어촌에 피트니스 센터 건립을 주저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세금지원의 혜택 또는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함. 시설의 운용은 국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농협이나 수협 등 농어민과 관련이 많은 단체에게 지원 형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음
- 체육활동 이외의 여가활동도 장려
피트니스 센터 이외 기타 교양, 취미 활동을 장려하는 강좌를 부가적으로 실시하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장려한다면 많은 농어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그밖에 피트니스 센터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여 농민들 간 직거래 장터를 운용한다면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기회도 가져볼 수 있음
- 건강과 관련된 여러 부대시설의 장려
따로 공간을 설치하여 무료 혈당·혈압체크기, 비만도 측정기기 등의 의료 측정 관련 기기를 설치하여 농어민들이 직접 자신의 건강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

○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체계화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 운동종목(ex.에어로빅) 보다는 센터를 찾는 농어민들의 건강, 나이,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개인적(Individual)이고 다양하고(Various) 체계적인(Systematic) 프로그램 작성 강사진의 육성이 필요

가령 농어민 부녀자들이 가장 선호한 것으로 보이는 ‘댄스스포츠’의 경우 마땅한 강사진이나 활동공간이 없기에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역시 농어촌에서는 거의 접하기 힘든 볼링이나 골프 등의 종목도 강좌 개설을 한다면 많은 농어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사료.

각 센터마다 트레이너코치를 배치하여 농어민들의 운동능력 향상과 체력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각 계절별 특성에 맞게 운동종목의 강좌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농어민들의 호응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Ex. 수영, 스키). 강사진의 운용은 현재 대체복무제도로써 시행하고 있는 공익 근무요원 중 체육특기생이나 체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있음. 또한 농한기나 어업 비수기 등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계절을 이용하여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봄.

○ 콘테스트나 대회를 열어 적극적인 참여의 유도

체육종목을 비롯하여 각종 취미활동에 여러 콘테스트나 대회를 열어 농어민들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함께 분위기 조성 그리고 자아만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함.

○ 기타 건강관련 및 식생활에 대한 강좌의 개설

운동 활동과 병행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식생활과 휴식 및 금연·절주에 대한 강좌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이런 강좌는 농어촌 보건소 인력의 협조를 얻을 수 있고, 보건·의료계열 대학 재학생 중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인원을 활용할 수도 있음.

■ 기대효과

고령의 농어민들에게 규칙적 운동을 하는 습관을 견인하게 하는 요소로써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터득하게 하는 동시에, 건강행위의 수용을 통해 자아에 대한 존중과 긍정적 마인드를 함양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는 사회보장성 보험의 국가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됨.

농어민의 건강은 농어촌경제 더 나아가 국가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자신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정신적 여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배려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그 점진적 개선과 함께 그 선순환 효과가 계속 될 것으로 사료됨.

제목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	지역	충청북도
----	-----------------------	----	------

■ 제안이유

제가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를 이용합니다. 학교까지 가는 시간을 따져 도착시간 1시간정도 전에 버스를 타는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도중 어느 한 중년의 남성분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정류장앞에 계신 거예요. 눈으로 딱봐도 몸도 안 좋으시고 거동도 불편하신 몸으로 버스를 타실려고 하신 것을 눈치챘습니다. 저는 버스 시간이 거의 15분정도 남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상버스(장애우들을 태울 수 있는 유일한 버스)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남성분께서 그 버스를 타기위해 전동휠체어로 인도끝부분까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버스는 이분이 타실 것을 감지했는지 버스를 인도에 최대한 붙이려고 버스를 이리 저리 돌리면 최대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도와 버스 사이의 틈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중년의 남성분은 어떻게든 타기위해 휠체어를 이리 저리 돌리며 애쓰고 계셨는데 버스 기사아저씨께서는 최대한 붙일려고 붙인다 생각해서 왜 안타시냐고 오히려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분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결국 버스기사분은 혼자 중얼거리시더니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디가시는 중이시냐 여쭙았는데 휠체어 앞에 설치된 핸드폰의 자판을 입에 문 연필 뒷쪽 지우개로 누르시더니 ‘체육관을 가야한다. 장애우버스를 타야 한다’ 라는 글씨를 어렵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하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저상버스는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에 늦었지만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죄송하지만 먼저 가봐야할거 같다고 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오히려 저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시면서 먼저 가보라고 하시드라고요. 결국 저는 버스를 타게 되고 저 자신에게 우리나라에게 너무 큰 실망과 화가 났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너무 안되었고 또한 현대 사회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풍성하여 지기는 하였어도 외부적인 환경이나 교통사고의 급증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 이 같은 경우 저상버스를 만들어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장애인이 장애 상태를 극복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요내용

1. 의료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아무래도 몸이 좋지 않으므로 재활의료를 거주지나 가까운 지역에서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 기관을 증설해야 하고 보건소에서도 방문 진료와 상담진료등이 추진하여 농촌지역 또한 재활의료에 취약한 지역이므로 장애인 보장기구 지급이나 장기적으로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재활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군 단위 지역 거주자는 물론 저소득 장애인들까지 재활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도시지역 보다는 농촌의 면지역이 더 심하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은 도시인들 보다 교육 혜택을 잘 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실시해야 합니다.

2. 장애인 시설의 개선

기본적인 생활여건에서 벗어나 질적 양적으로 발전된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개선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고 시설의 낙후로 인해 안전문제나 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재정지원으로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항시 감시하는 운영대책 전문반을 만들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감독과 통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므로 결국 그 불편함이 장애인의 교육과 노동 또한 문화생활까지 다양한 참여를 박탈하고 집안에서만 그 주변만 맴도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버스 이용뿐만 아니라 계단오를 때 수직형 리프트 역시 너무 위험해보이고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좀더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가장 편리한 택시를 이용할 때는 무료가 아니더라도 할인이 많이 되도록 하여 장애인용 택시를 만들어 타고 내리기 편한 특수한 택시로 LPG요금을 할인하여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들의 의식수준 기여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을 증진시키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고용 기회를 확대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는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잠재된 노동력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사회에 발전을 도모하는데 유용하다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서 사회적응력도 키워나가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양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시설과 같은 장소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야한다.

■ 소요예산 : 다른 사업을 대부분 축소하여 장애수당 지원을 더 넓혀 지방적 예산으로 총 400억

☐ 재원조달방안

민간 비영리단체에서는 지역 후원금의 확대와 일부 서비스의 유료화 등을 통한다. 정부지원의 확대와 서비스의 유료화, 그리고 지역사회의 후원금 활동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기업의 후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적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목	울진군 호스피스병동 설립 재추진	지역	경상북도
----	-------------------	----	------

현재 울진군의료원에 호스피스병동이 설립추진되었다가 유야무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노인인구가 늘어가는데 추세이고 물론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고는 있지만 호스피스를 비롯하여 의료원이 간병인 및 요양사를 배출하여 한 때 노인인구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습니다.

울진은 의료적인 목적지를 떠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울진군 의료원은 호스피스병동에 대한 거의 다 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치유의 목적을 가진 곳이 아닙니다. 이 곳은 마지막을 정리하고 차분히 내려놓는 곳이라고 생각하기에 관광지로서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와 말기암이나 불치병 환자가 늘어나는 이 때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적 요소를 제공할 곳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호스피스 간병사와 복지사도 교육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더없이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완벽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동의 제한 해결	지역	전라남도
----	-------------------------	----	------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움직이기 불편한 장애인 학생, 시민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적은 수이지만 그들도 인간이고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여 제안합니다.

첫째,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초·중·고·대학교를 대상으로 계단을 경사로로 바꾸는 것.

이것은 계단을 없애 경사로를 만들거나, 계단이 경사로로 바뀌는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이동에 불편함을 줄이고 없애는 것입니다.

계단이 경사로로 바뀌는 아이디어 사이트(<http://chucksidea.com/?p=2542>)

둘째, 초·중·고에는 최소 하나의 장애우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고, 대학교에는 학교 하나가 아닌 단대마다 장애우 엘리베이터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합니다. 또한 대학교는 반 층 건물들을 없애거나 반층에 경사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목포시 그리고 모든 전국에 장애우들이 혼자 돌아다닐 수 있게 턱이 있는 건물, 인도, 보도블럭의 경사로를 최소 50m 간격으로 경사로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우들이 경사로를 찾아다니느라 낭비되고 아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인들보다 2배 아니 5배는 된다고 봅니다.

소요예산은 이 모든 것을 하였을 때 대략 5천만원~1억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도 중요하지만 장애우들의 편의를 위해 예산을 신경쓰지 않고 진행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안에 시행 되어야합니다.

제목	안전관리, 생활편의시설 확충	지역	경상남도
----	-----------------	----	------

☐ 제안이유

1. 안전관리

요즘들어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세월호, 지하철, 화재 등등 많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안전관리에 대한 이야기나 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각 지역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도 그 지역(사건이 있었던 지역)외에는 낮은 편입니다.

2. 도시가스

현재 저희 건물도 작년인가 겨우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까지 LPG사용 건물이 많습니다.

도시가스설치를 통해서 안전하고 비용절감을 통해서 가계부담이 낮아지면 좋겠습니다.

3. 생활편의시설 확충

저희 지역이 생각보다 발전이 늦은 건지, 타지역과 비교해서 인구대비 생활시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인터넷 속도문제, 문화생활 즐길거리 부족, 도서관 부족, 종합터미널 등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 주요내용

1. 안전관리

노후된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건물 안전도 검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산업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조사도 겸해야합니다. 사실 제가 살고있는 건물도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 어떤 건물 안전검사도 없었다는 점이 놀랄 따름입니다. 그리고 지방일수록 더 오래된 건물이 많은 점도 이번 기회에 조사항목에 넣어서 혹시 모를 붕괴사고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시 예를 들면 임시 다리를 놓아서 강을 건너는데, 이동료는 받으면서 강을 건너는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볼 수 가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해야지만, 그제서야 준비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대비하겠다는 말보다는 이번에 많이 발생된 사고를 교훈삼아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점입니다.

2. 도시가스

각 지역별로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을 조사한 후에 지역 주민의 투표를 통해서 시에서 도시가스 설치비용의 몇 프로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시설확충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LPG사고로 인한 불안감해소와 가스비절감으로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에서 빠른 시일안에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3. 생활편의시설 확충

타지역 인구대비 생활편의시설이 정말 부족한 편입니다.

제가 어릴때부터 고향에서 지내다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 10년정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정말 여가생활, 그리고 문화생활을 즐길 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청주관 무료 영화상영이나, 각 동별로 문화센터 추진 그리고 작은 도서관(어린이도서관, 문화도서관)건립추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잡하고, 낙후된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을 일원화해서 종합터미널 건립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1. 안전관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요즘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과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비지원을 통해서 안전관리 교육과 재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산업시설에 대한 안전조사는 그 회사에 직접 맡기지 말고, 연계해서 조사를 하면 좋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2. 도시가스

도시가스 설치비용의 20%정도를 지원하고, 도시가스 설치를 통해서 가계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준다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설치를 할거라 예상합니다.

현재 저희 건물도 처음 LPG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가스비 절감으로 인한 가계비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3. 종합터미널 건립

현재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의 건물이 너무 오래되었고, 이용자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감이 있습니다.

민자유치방식으로 종합터미널을 건립하되, 계약상 시 예산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잘 조절해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4. 작은도서관 건립

현재 시립도서관이나, 대학 도서관은 있지만, 어린이들이 이용할 만한 어린이 도서관이 부족하고,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없다는 점에서 기부를 통해서 그리고 복지예산 확충을 통해서 어린이 도서관과 같은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면 좋겠습니다.

제목	보건소 심리 상담서비스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현대인이 앓고 있는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치열한 경쟁과 갈등, 가족불화, 큰 스트레스, 외로움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전 연령대의 사람들에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9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주요내용

저는 보건소에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희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건소는 우선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또 방문이 용이 합니다. 임상심리사분들에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목소리를 경청을 통해서 마음속에 담긴 깊은 눈물과 상처를 치유해 갈수 있습니다.

☐ 소요예산

임상심리사 분의 채용 인원에 따라 예산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대 학생들을 위해 미술치료사 분들도 계셨으면 합니다.

☐ 재원조달방법

서울시의 일부 지원 및 자치구의 예산 편성으로 운영됩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가끔은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습니다. 지쳐 있는 현대인들에 이런 깊은 슬픔과 상처를 들어줄 수 있는 열려 있는 공간이 보건소에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도로명사업이 제외된 지역에 도로명체제 구축 - 사회 안전망과 소통망	지역	부산광역시
----	---------------------------------------	----	-------

☐ 제안이유

일부 지역에는 주민이 갈망하는 도로명사업이 되지 않아서 도로명주소 체제가 보장하는 사회 안전과 생활편의, 물류비 감소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로써 응급시 신속 정확하게 건물에 접근할 수 있게, 생활이 편리하게, 물류비를 줄이게 해 주십시오.

☐ 주요내용

도로명사업이 제외된 지역 내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사회안전과 소통망인 도로명 체제를 구축한다.

- 도로명주소의 위치안내 기능(안행부에서 적극 홍보해야 할 것)
(중앙로 3)은 (중앙로 기점에서 30m) 건물
메트로시티도로명사업추진위원회

제목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휴양산업의 발전	지역	경기도
----	----------------------	----	-----

☐ 제안이유

고양시는 곧 100만 시민을 바라보는 거대도시로 시민삶의 질 향상이 대두되는 현대사회에 적합하게 도시 내 녹지축이 잘 연결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심지 내 쾌적한 환경에 비해 최근의 생활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근교 산림 휴양에 대한 여건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산림면적 64%에 비해 고양시의 산림면적이 37%로 자원의 부재라는 취약성이 있긴 하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산림휴양림, 오토캠핑장, 청소년수련원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양시 덕양구는 개발노력이 부족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관내 국·공유림 활용이나 혹은 사유림과 연계한 휴양타운 설립으로 경관과 시각적 녹음제공의 숲을 넘어서 시민이 이용하고 머무르고 누리며 치유하는 생활 속 숲 제공은 앞으로 고양시민에게 더 질 좋은 복지제공을 위해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주요내용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치유의 숲 형성 및 산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 치유의 숲 형성 (나무 심기 및 가꾸기)
-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산림 관리 및 각종 인력 개발
- 시민의 접근 용이성을 높이고 이를 적극 홍보
- 숲 주변 하천 및 문화산업 개발
-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교육 실시
- 주민들과 산림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
- 오프라인 및 온라인 홍보

☐ 소요예산 : 15억(숲 형성과 인력개발, 홍보 비용 등)

☐ 담당부처 : 산림청

제목	응급처치교육	지역	경기도
----	--------	----	-----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심정지 환자발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법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아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몇가지 제안을 합니다.

1. 모든 관공서에 AED설치(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는 물론이며 주기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하여 실제 심정지 환자 발생시 소생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당자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AED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설치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시가 주체가 되어 AED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의정부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해야한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AED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을 함께 진행해야 의정부역에 설치된 AED가 제 몫을 할 수 있다. 의정부 시민들에는 중고등학생들 역시 포함되며 미국은 초등학생때부터 학교내에서 심폐소생술의 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3. 2번과 비슷한 얘기이지만 서울 5678서울 도시철도에서 보면 역에 설치된 화면과 지하철안에 있는 화면 등을 통하여 지하철 예절과 함께 심폐소생술의 방법 등의 동영상이 상영되는 것과 같이 의정부에 위치한 역들, 경전철 내부, 의정부 시내에 있는 영상이 플레이 될 수 있는 모든 곳에 심폐소생술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면 의정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좀 더 친숙하게 느끼고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제목	어린이와 청소년이 쉴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지역	경기도
----	-----------------------------------	----	-----

☐ 제안이유

학교 방과수업이 끝나면 우리주변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학원이나 각자의 특성과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나 학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방과후 수업이나 학원이 끝나는 시간 이후 우리 주변의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주변의 놀이터는 입주민들에 의해서 외부인들의 출입금지가 된지 오래이고, 주변의 공공 놀이터나 쉼터는 어른들의 노숙이나 음주가무가 이루어지는 곳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로 인해 설 곳이 꼭 필요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설 수 있는 쉼터나 공공장소가 설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요내용

어린이와 청소년이 설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지역에 어린이와 청소년 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엄마와 함께 쉼터를 찾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은 또래아이들과 함께 만나서 설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주변의 나쁜 환경에 침해받지 않고 건전한 놀이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쉼터공간이 만들어 진다면 아이들을 더 마음놓고 키우며, 주변 환경에 눈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설수 있도록 공간이 만들어 진다면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지역이 될듯합니다. 또한, 공공 쉼터를 통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이 된다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 소요예산

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과 공간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참여 및 봉사도우미들로 이루어진다면 소요예산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재원조달방안

지역의 후원이나 성금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봉사 도우미를 활용한 쉼터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된다면 재원조달 방안은 무리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효과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아이들이나 청소년을 위한 안락하고 쾌적한 쉼터 공간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면 방황하는 아이들과 청소년을 만들지 않고, 쉼터의 다양한 놀이 공간을 통한 참여는 아이들에게 안정과 함께 행복한 매일을 선물해주는 행복한 공간이 만들어 질 것이며 아이들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지역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하며, 환경을 만들어주는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제목	실버이야기선생님	지역	서울특별시
----	----------	----	-------

80년대 지금의 30대 이상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들으면서 커왔다. 어르신들의 옛날이야기는 tv나 라디오보다 더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 소재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대 간 단절이 되어 그러한 추억이 사라졌다.

핵가족화 되고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일 년에 두 번 설날 추석명절뿐인 현 실태와도 연관이 있다. 또한 획일적인 어르신 일자리 정책에도 그 이유가 있다.

어르신들 일자리를 보면 청소나 순찰 수위 같은 단순일자리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일자리만족도가 아주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공약이자 어르신 일자리의 획기적인 제안인 실버이야기선생님 공약을 제안한다.

실버이야기선생님이란?

65세 이상 노인 분 이야기를 잘하거나 말주변이 좋은 어르신들을 선발하여 콩쥐팍쥐, 흥길동전, 심청전 등 옛 고전이야기의 소재를 교육받아 그렇게 교육받은 내용을 서울의 유치원, 유아원 등의 아동시설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님이다.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는 옛 이야기들을 현대의 아이들에게 들려주어 우리 전통문화를 들려주고 요즘 아이들과 어르신세대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정책이다.

예산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인원을 초과한 어르신청소용역이나 어르신 수위, 순찰알바 분들 중 일부를 선발하여 운용하면 되므로 예산도 청소용역이나 순찰인원 등에 책정된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면 된다.

기대효과

- 1) 단절된 어르신세대와 아이세대의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 2)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에게 어르신 공경문화를 이어가고 세대간에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3) 획일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제목	삭막한 아파트 담장을 멋진 작품으로 변신	지역	광주광역시
----	------------------------	----	-------

■ 제안이유

아파트 단지들의 담장이나 담벼락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그냥 벽돌이나 시멘트로 지어져 있는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이 담벼락에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면 보기도 좋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지나다니는 수많은 행인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주요내용

아파트 담장을 전문가들의 작품이나 명화들로 채우려 한다면 비용이 만만찮게 들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린이나 학생들의 작품으로 채우거나, 또는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또는 졸업한 화가들 중에서 실력은 있으나 아직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섭외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그림의 담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소요예산

담장을 아름다운 그림 작품으로 변신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0원에서 1천만원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 학생들의 봉사 활동 개념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봉사한다는 취지로 참가한다면 페인트값 정도만의 재료비가 들거구요. 미술 전공의 대학생이나 무명 화가들을 섭외하는 경우에도 기업이나 유명 화가에게 맡기는 것 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실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재원조달방안

여기에 드는 예산을 2천만원이라 가정한다면 저희 아파트 1~3차 관리사무소에서 소요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각각 7백만원 정도로 줄어들고, 여기에 지역환경 개선 차원에서 시나 구청의 보조를 받는다면 그 비용은 더욱 줄어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즐거움이 커지고 담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이를 지역 사회에 널리 알려 다른 아파트 단지로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지역 행정기관에 잘 홍보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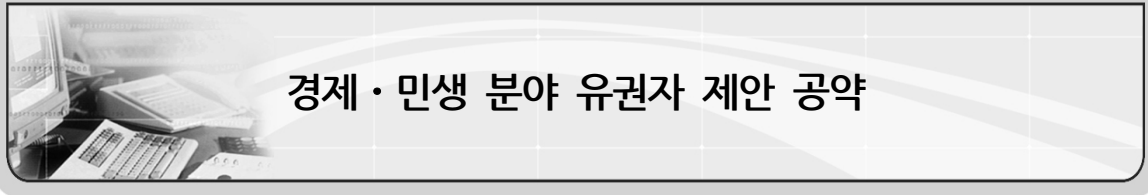
제목	유아 동반하고 외출하기 쉬운 사회 환경조성	지역	경기도
----	-------------------------	----	-----

1.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영유아 카시트 구비-영유아 동반하고 대중교통 타기 매우 어려움, 사고발생시 영유아안전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함,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해 탄소발생도 줄일 수 있음.
2. 민원인 대기 시간이 긴 관공서나 도서관, 국공립병원 등에 영유아 실내놀이터마련-보건소나 병원, 도서관 등은 민원인들이 긴 시간을 대기하는데 영유아 동반시 활동 통제 및 관리,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데 실내놀이터를 개설해 영유아동반 외출이 쉽게 해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3. 횡단보도와 보도블럭 연결되는 일부분 턱 없애기-유모차를 몰고 횡단보도에서 보도블럭으로 올라설 때 턱이 높아 매우 불편함, 유모차를 인도로 올리려다 우회전 차량과 부딪힐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음. 장애인도 휠체어 이용시 편리함.
4. 어린이집 차량(보육시설및학원 등의 모든 통원차량) 정차시 후면과 측면에 정차중임을 알리는 LED stop표지판 설치 - 차량 정차시 주변차량이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정차중임을 알리는 전광판을 달아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어린이차량 사고를 막아 저출산 극복 및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해야합니다.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II

경제·민생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제목	지하철 5호선 방화역과 일산 등 경기서북부지역 연결노선 확장	지역	서울특별시
----	-----------------------------------	----	-------

현 황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항공 및 도로교통은 편리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한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한강 건너편인 일산지역 등과 연결되는 수도권 지하철이 없어, 교통환경 개선차원에서 5호선 방화기지에서 강건너 일산지역과 직결하는 전철노선 연장이 빠른 시일내 착공되어야 할 것임.

현황에 대한 문제점

1.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나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항공교통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한강이남인 강서지역은 전철을 통해 이용할 수 없어, 버스 등을 바꿔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경기서북부지역과 서울 서북지역인 강서, 양천 등 지역에서 일산 등 신도시로 내왕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대처 방안

1. 지하철 5호선 방화기지에서 강건너 일산방향의 전철노선과 연결하거나 그 지역으로 노선 확장이 이뤄져야 하겠음.
2. 노선간 연장할 경우 한강을 끼고 있어, 일반 지상구간 이용시는 토지매입, 토지주와 협상 등 많은 절차와 비용이 소요되나 한강이란 하천구간은 교량이나 하저터널을 구축하여 이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토지 매입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잇점도 있음.

제목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시간제일자리 확보를 통한 일자리 제공	지역	경상남도
----	----------------------------------	----	------

일은 하고픈데 육아와 병행하는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일자리의 수요를 더 많이 확보하여 기업에게는 특별혜택부여와 시간제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육아로 인해 부담감을 덜기 위한 분야별 육아도우미, 특히 병원을 데려다 줄수 있는 일을 도맡아 해주거나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도우미가 있었으면 합니다. 업무가 바빠 누락되거나 시기를 놓치는 사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양산업체들에게 특히 공공기관부터 확산되어 일반기업에 까지 쉽사리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목	독거인들을 위한 장터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먹거리해결에 고민하는 독거인들이 많기에 1일 장터를 제안드립니다.

☐ 주요내용

1주일에 하루(ex. 수요일이나 목요일) 낮부터 저녁 9시까지 열리는 동네장터. 생산자와 직거래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시중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겁니다. 판매자 분들이 원산지 표시를 해주시면 더 믿음이 가겠지요. 독거인들을 위한 반찬코너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봤을 수도 있지만, 용산구에서 지속적으로 열리는 1일 장터를 보지 못한 아쉬움에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제목	월드컵 경기장 주위를 관광 메카로	지역	대구광역시
----	--------------------	----	-------

서울은 유명한 관광지가 많은데 대구는 중심지라고 하면 동성로 밖에 없지요. 대규모 투자를 한 시지족 월드컵 경기장은 2002년 이후 참으로 한산합니다. 동네 주민이 이용하는 정도이고

축구도 인기가 적어 경기장이 별로 차지 않습니다. 경기장 주변에 홈플러스와 오락실, 옷매장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장소가 만들어져 있지만 동성로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부족하지요. 뭔가 대구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있으려면 집중이 필요합니다.

서울은 시내! 하면 떠오르는 곳이 너무 많으며, 제 2도시 부산만 해도 중심지가 어디냐 하면 3곳을 말하더군요. 하지만 대구는 동성로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7호광장도 활성화 되었다지만 그곳도 대구인만 아는 곳에 불과하며 동성로에 근접해 있지요. 이에 마침 야구경기장도 월드컵 경기장 인근으로 간다고 하니 그 곳을 스포츠·관광 메카로 동성로와 같은 변화기를 만드는 겁니다. 타도시인도 구경을 만큼 매력적인, 그러기 위해서 최근 논란인 달성공원 동물원도 수성구의 월드컵 경기장 인근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에 의해 타 도시인도 올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우방랜드를 보십시오. 건립당시에는 아주 좋은 놀이공원으로 타 도시에서도 많이 왔지만 지금은 시설이 추가로 개발이 안되니 타도시인들은 잘 오지 않는, 대구인을 위한 놀이시설로 전략했어요. 동성로 고택을 이용한 관공지역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월드컵 경기장 근처를 제 2의 중심지로, 볼거리가 많은 공간으로 바꾸면 타 도시인들도 끌어들이는 관광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마침 수성IC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월드컵 경기를 위해 만든 것으로 끝나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수성IC에 시지쪽은 기존 도로가 넓어 교통 편이성이 좋으며, 지하철도 있어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일단 가기 쉬워야 사람들이 모이지요. 추가 재원도 거의 없습니다. 이미 달성공원 이전에 대한 재원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을 거니깐요. 이미 모든 조건이 훌륭한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관광 메카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제목	젊은 농촌을 만들어주세요.	지역	강원도
----	----------------	----	-----

■ 제안이유

- 10년뒤 농촌에는 공무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농지가 황폐화 되고, 식탁에서 국산 농산물은 자취를 감추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 통계에 따르면 現농업가구수는 114만으로 전체가구수 1,750만 가구의 0.63% 밖에 안됩니다.
- 0.63%의 농업가구수의 평균연령은 65.4세이며, 50대 미만의 농업가구수는 단 0.063%밖에 되지 않습니다.
- 지금으로부터 10년뒤를 생각하면 지금의 농업인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로 농업에 중

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 제안공약

- 평창(전국)의 공유지 중 관리가 안되고 있는 평지는 도시민에게 1인당 00평씩 텃밭으로 개방(직전5년간 도시지역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실거주민 대상)
- 5년이상 텃밭에서 농산물 재배실적(퇴비, 농약, 농업부자재 구입내역)이 있는 경우 귀농시 처리자금 대출, 농기계구입시 국고보조, 농지취득세 감면 등 혜택 부여
- 도시민 텃밭 우수농작물 경연대회, 초보농부 교실 등 지속적인 참여 독려
- 언론사에 정기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홍보 극대화

☛ 기대효과

- 도시에 거주하며 친족이 충분히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규모의 텃밭 제공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귀농 의지 고취
- 텃밭을 가꾸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쓸모없는 공유지의 개간 및 정기적인 경운 등 관리를 통한 옥토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 정착

제목	권선동 곡선중학교 주변 주차전쟁 해결요청	지역	경기도
----	------------------------	----	-----

저는 곡선중학교 근처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도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곡선중학교 근처 도로는 왕복2차선 좁은 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나, 저녁때만 되면 양쪽길 가장자리에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단속요청하면 나와서 일시적으로 좋아지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곡선중학교 주변에 다세대 주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만 되면 사람과 차가 인도/차도 구분없이 다니고 있어 사람(특히 곡선중학교 학생)이 매우 위험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던지, 아님 근처 공유지가 있으면 주차구역을 정해준다던지 등등입니다.

요즘 세월호 사건 등 대한민국이 안전불감증으로 아주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사소한 불씨가 큰 화를 부른다는 것 공직자께서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 혹은 고시텔	지역	인천광역시
----	-----------------------	----	-------

■ 제안이유

송도에 대학들이 들어서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학당을 이용하는 중국인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의 주거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송도의 땅값이 비싸다보니, 한국인 학생들의 주거문제도 마땅히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 외국인 학생들까지 신경쓰기는 힘든 실정이죠.

한국어학당을 이용하는 중국인 학생들 상당수는, 집값이 비싼 송도에는 집을 구하기 힘들어, 연수4단지 쪽에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잦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 주요내용

중국인 유학생들의 주거문제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적응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고, 유학생들 상당수가 본국으로 귀국 후 재취업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며,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이해할 기회도, 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학당에 다니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의지를 가진 유학생이라면,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받아들이기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한국인과 중국인 유학생, 근로자 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송도에 위치한 대학에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마련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그들의 한국내 거처를 학교 측에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원과 배려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정 건물, 혹은 고시원 등을 통채로 임대해, 중국인 유학생 전용으로 하던가, 한국인 학생들과 셰어하우스를 적극 권장합니다.

낮선 환경에서 한국인들과 부딪쳐 갈등을 빚지 않도록, 차근차근 한국문화를 배우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엔 한국인, 인천시민, 연수구민은 물론 중국인 유학생, 근로자들을 돕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소요예산

송도내 대학들의 기숙사 설립이 힘들다면, 송도 인근의 빌딩을 인수해, 중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학내 중국인 유학생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사전에 알아본 연후에, 그에 맞는 건물을 매입, 기숙사로 리모델링합니다. 중국인 유학생들도 낯선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입소문을 탈 것이고, 비슷한 가격의 다른 고시원, 원룸보다는 기숙사를 이용할 것이고, 따라서 투자금은 빠른 시간내에 회수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 재원조달방안

다문화정책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인천시나 연수구에서 수익성을 검토후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연수4단지 상당수가 중국인 유학생, 근로자임을 감안하면, 사업주를 공개입찰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	어르신 일자리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일자리 창출	지역	대구광역시
----	---------------------------------	----	-------

☛ 제안이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65세이상의 많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 창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대구시 북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노인일자리센터 사업을 찾을 수 없으며 노인일자리센터의 업무가 미약하여 북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고 정보검색이 어려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1. 대구시 북구 시니어 클럽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포털사이트(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하여 많은 북구주민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북구청 홈페이지에 북구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연계하여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의 보유자격증 등을 이용하여 교육형으로 유치원에서 책임어주는 이야기할머니, 할머니와 요리하기, 문화해설사업과 공익형으로 어르신 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 초등급식도우미, 지하철 3호선안전지킴이, 사회적기업연계지원사업, 복지형으로 지역아동연계지원사업, 문화복지지원사업 등 재능기부프로젝트를 활용하면서 어르

신들에게 하루 2~4시간정도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북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봉사활동, 경제수준이 더욱 여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사회적기업연계(어르신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복지비와 재산세 등의 교육비나 교육발전기금(어르신일자리 중 교육형사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대구시 북구 시니어클럽홈피구축과 북구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제목	버스노선 확대 및 지하철 연장(서울시 양천구~부천시 오정구)	지역	경기도
----	-----------------------------------	----	-----

■ 제안 이유

부천 시민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돈벌면 목동으로 이사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지리적으로는 가까우면서도 경제적 격차와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이 있다는 말일텐데요. 까치울에서 양천구 신정동으로 통하는 교통수단을 활성화하여 그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오히려 전원도시 및 교육도시로서의 부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 아래 분당 사람들이 굳이 강남으로 이사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분당에서 강남으로 통하는 교통수단은 쉽습니다.

■ 기대 효과 : 부천의 입지 이점이 부각되고 실질적 교류 증대

부천에서 서울로 나가는 길은 배차 간격이 큰 7호선과 700번 버스로 화곡동으로 돌아돌아 가는 몇몇 버스입니다.

양천구와 부천사이의 교통수단이 증대되면, 부천의 요양병원이나 춘의역의 기업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리라 기대합니다.

■ 재원 조달 방안

비효율적인 노선으로 운행중인 버스 노선을 점검하여 대체하는 방법 및 까치울~ 오목교역 지선 건설(서울시 내지는 중앙정부 지원)

제목	전통시장의 활성화 -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탄력적 버스 운행	지역	경상남도
----	--	----	------

현황

-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 고객 : 주부 및 어르신
-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방법 :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 대중교통(버스) : 농어촌버스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름.

문제점

- 건강상태 및 교통이 불편하신 곳(외곽지역 거주자) 어르신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어르신들은 5일 장날에 맞추어 시장을 보고, 병원진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심. 버스 배차 시간의 문제로 일정시간에 어르신들이 몰리는 현상을 볼 수 있음.

개선방안(개선내용)

-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장날) 탄력적 버스 운행(추가운행)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장의 접근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목	농어업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앱개발 보급	지역	충청남도
----	-----------------------------	----	------

제안이유

현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끊임없이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주민들은 이 많은 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하고 있음.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조성 및 경제활성화의 요충지가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1차 산업인 농어업이 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음.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위한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여 보급 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

정부 3.0을 비롯한 많은 앱이 개발되어 주민들에게 보급되어 지고 있음.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농업정보 관련 앱(농어업인교육 일정, 농어업 지원사업 내용, 농기계 및 농어업

관련 장비 대여 정보 등)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보급. 앱 개발 후 스마트폰 및 앱 사용 방법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 이런 교육을 지속 실시하게 되면 지역주민에게 농업정보제공 및 정보화 교육이 병행 실시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소요예산** : 2천만원 내외(앱 개발 비용)

- 주민교육은 정보화교육장 및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을 활용

☐ **재원조달 방안** : 군비 활용

제목	용인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제안	지역	경기도
----	--------------------------	----	-----

☐ **제안이유**

1. 복잡한 유통과정을 간소화한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장터 활성화로 먹거리물가 안정을 도모 하며,
2.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환경적으로 이익이 되는 농축산물 직거래가 미래의 대안 이라 생각됩니다.
3. 북미와 유럽을 포함 전세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농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한 직 거래장터가 farmer's market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지들에서 경험한 직거래장터의 농축산물과 기타 상품들은 우수한 품질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수송과 저장비용의 절감에서 오는 환경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화의 지역경제 선순환에서 오는 경제적 측면과 함께 지역주민간의 유대와 애향심고취 등 장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각종 농축산물 생산농가가 공존하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시 및 인근 위성도시와의 접근성 또한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적인 장점을 이용하면 시의 대표적인 문화로 발전 해 나갈 수 있고 근교뿐만 아니라 외부지역에까지 용인을 소개하고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작년 초 이미 용인시에서는 가격이 하락한 용인 양돈 농가를 위하여 돼지고기 직거래 장터 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족도 수지구청 앞 공터에서 판매한 양질의 돼지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사먹을 수 있었고 용인의 양돈농가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 반가웠습니다.

5.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에서 파생되는 이차적인 경제효과는 경제성장 동력이 필요한 용인시의 재정에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요내용

1. 무엇을 : 용인시 및 용인근교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2차 가공품들을
2. 어떻게 : 생산자가 주중이나 주말에 학교운동장, 구청, 주민센터 등 사용가능한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3. 언제까지 : 이러한 형태의 직거래는 사실상 제한기간이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4. 품질관리와 지역농산물 인증 등의 필요한 절차와 제도는 시에서 주도하여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1. 직거래 장터의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장소 확보는 주차장과 화장실 등 필요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 위주로 하고 위생과 품질을 관리하는 규정과 농수산물 인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초기 제도 설립에 들어가는 예산은 용인시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하고 판매자에게 일정부분 수수료를 책정하여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Farmer's market의 특성상 유통제반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할당된 예산 등 관련 분야 예산을 할당한 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확대되는 현상에서 보듯, 유통과정을 최소화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자 생산자간의 이익 극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가정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식품물가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정기적인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께서 꼭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목	창조경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내 공공 도서관 로비에 창조경제 코너 마련	지역	서울특별시
----	--	----	-------

☐ 현황 및 문제점

- 현 정부의 화두인 창조경제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이해도나 실천 정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생활에서 창조경제를 자주 접해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생각합니다.

- 현재의 창조경제에 대한 홍보는 주로 TV의 뉴스나 공익광고, 그리고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TV로 창조경제에 대한 실체를 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고, 인터넷의 경우는 익숙하지 못한 중년층들이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특히 창조경제에 대해 책이나 자료와 같은 인쇄물을 자주 접할 수 있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창조경제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현재의 홍보 시스템으로는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 개선방안

- 지역 내 공공도서관은 전국 어디에나 위치해 있고,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공도서관에 창조경제의 홍보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국민들의 창조경제 참여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 창조경제 공간이라고 해서 거창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장소이고 또한 가장 눈에 잘 띄는 장소인 로비를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도서관을 방문해 보면 로비에는 방문객들이 앉아서 기다리거나 휴식을 취하는 의자들이 있고 그 옆에는 신문이나 잡지들이 꽂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소를 활용하여 창조경제와 관련된 단행본이나 카다로그 등을 비치하자는 것입니다.
- 또한 로비에 PC와 TV 모니터 등을 설치하여 PC에는 창조경제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타운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TV 모니터에서는 창조경제의 성공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방송하여 공공 도서관 로비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창조경제에 대해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 특히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사서나 직원들에게는 창조경제에 대해 문의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창조경제와 관련된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어느 기관에 전화를 해보라거나 아니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라는 답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창조경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기대효과

- 도서관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이 단행본이나 카다로그와 같은 지면으로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보를 자주 접하게 된다면 관심도 및 이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 또한 TV 모니터나 PC 등을 통해 창조경제의 성공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접한다면 ‘나도 한번 시도해 볼까?’라는 의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별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 없는 공약입니다. 다만 창조경제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전국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쇄 비용과 대부분의 도서관이 보유 중인 집기인 PC 및 TV 등의 재배치, 그리고 도서관 직원들의 창조경제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시간만 주어진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창조경제의 성공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시해 봅니다.

제목	효율적인 체납해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지역	경상남도
----	------------------------	----	------

■ 제안배경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자체 재원조달을 통해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이다. 특히 매년 재정건전성 발표를 하지만, 자체 재원만으로 재정건전성이 100% 확보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하며, 그나마 큰 빛이 없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안내용

지방세 등 세금을 제외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쉽게 세 가지가 있다.

1. 공공 수익사업을 창출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방법
2.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들을 합법적으로 징수하는 방법
3. 지출해야하는 비용을 정당한 법적 근거와 이유로 보류하는 방법

이중 공공 수익사업 창출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각종 방법을 모색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들을 체납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은 이미 받아야 할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효과적인 방법의 부재 등으로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은 공감한다. 그래서 3번의 방법으로 든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정당한 법적 근거와 이유로 보류하는 방법’을 2번의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들을 합법적으로 징수하는 방법’과 묶은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정부에서는 체납확인을 통해 각종 공사대금 및 보조금 등을 체납해소 전까지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 중으로 지방세와 국세 등은 납세확인증명서 등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경우를 확인했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지방세와 국세만 납세하고 세외수입이나 과태료 등은 체납한 상태에서도 비용 지출은 계속되어왔다. 특히 각종 계정의 체납액을 통합 수납하려고 해도 각 부서별로 분리되어 있는 체납 계정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탈피하고자 현재 시중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 교통관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다양한 체납액을 통합관리하고, 수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프로그램)이 출시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은 ‘함안군’, ‘밀양시’, ‘창녕군’, ‘영덕군’, ‘서천군’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사용중이며, 많은 체납 징수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기대효과

1.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통한 자주 재원 및 재정건전성 확보
2. 공정한 체납 징수 근거를 통한 행정 서비스 신뢰성 향상
3. 체납정보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구현
4. 체납정보 통합관리로 체납관련 통합 확인 및 수납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

☛ 재원 조달방안

- 예산금액 : 본 시스템 약 3,000만원 + DB 암호화 약 2,000만원 소요 예상
- 예산 조달방안 : 가장 좋은 방안은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정당한 근거로 자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나, 그 밖의 방안으로 몇년을 주기로 시금고 계약을 하면서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본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는 큰 비용없이 체납 해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을 늘릴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시금고는 각종 세금 및 과태료를 관리할 수 있어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시민은 세금 및 과태료 등의 체납을 편리하게 통합 확인 및 수납할 수 있는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일련의 모든 것들은 시와 시민, 시금고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제목	법정근로시간 제도 정착 방안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안 지키는 회사가 너무도 많은데요. 이를 단속할 효과적인 단속접근 방법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보면 자주 하는 질문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애타게 민원을 제기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만 공약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공약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의 수많은 기업들이 법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야근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음을 이번 선거를 통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일단 법정근로시간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다시 민원을 넣고 참 번거롭습니다. 사업주 인식변화도 필요하지만 신고하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하게 되어 바로 시행될 수 있게 변화됐으면 합니다.

서울시와 각 구 홈페이지에 법정근로시간 신고란을 운영하고, 곳곳에 홍보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만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철 버스처럼 ‘법정근로시간 버스’ 홍보 버스를 운영해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방문해 점검을 하고 민원을 듣는 버스를 운영하면 보다 효율적인 법정근로시간 제도가 정착하리라 생각합니다.

☐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고용노동부가 쓸데없는 홍보비를 좀 줄이고 있는 버스로 홍보 페인트칠을 하고 기업들마다 돌게 하면 예산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도로 물청소차가 있는 데요. 물청소할때 시선을 확 끄는데요. 그 물청소차에 홍보를 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 결론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는 서울이 되어야 육아/가정/대통령 공약/관광여행/주5일제까지 지킬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됩니다.

제목	관광 특성화 전문대학 유치(설립)로 지역 교육 및 경제 시너지 효과 창출	지역	충청북도
----	--	----	------

■ 제안이유

- 충북 단양군의 경우 해마다 지역 인구 유출, 특히 학생들의 진학에 따른 외부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뿐만 아니라 노령화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경제, 교육을 비롯한 지자체의 존립 자체가 향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임.

■ 주요내용

- 단양군 경제의 주 관광 분야의 특성과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봄. 단양 팔경으로 대표되는 지역 관광 자원과 인프라를 비롯, 연중 호황인 단양 대명리조트, 관광 분야 특성화고등학교인 한국호텔관광고 등의 지역 산학 연계망을 통한 관광 분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종 단계로, 관광 관련 특성화 전문대학을 설립 또는 유치하는 것임.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만듦으로써 단양군이 국내 유수의 명품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 군 차원의 적극적 홍보로 관련 전문대학의 분교(제2 캠퍼스)유치, 단양군 또는 충청도 차원의 소규모 특성화 학과를 갖춘 전문대학 설립 등이 방법임.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지방 및 중앙 정부 지원, 유력 기업 등의 산학 연계 및 투자 유치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제목	전주 한옥마을 교통 및 환경 개선	지역	전라북도
----	--------------------	----	------

전주 한옥마을은 작년 2013년에만 관광객이 500만을 돌파할 정도로 전주에서는 관광지로서 가장 유명합니다. 전주에 20년 넘게 살면서 전주가 지금처럼 다른 도시 사람들의 유입이 많은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기와는 다르게 한옥마을 주변의 교통난이나 주변 시설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불법주정차 해결, 관광객 및 지역주민 보행권 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주 도로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복층화하거나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예산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전주는 버스파업률 1위를 기록하고,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시민의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인 버스가 매번 파업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버스파업하는 노동자들이 전주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분위기를 흐려 재작년 전주국제영화제는 다른 도시의 관광객들에게 전주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매번 시장이 바뀌어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보조금이나 버스 광고 등 시민들 모르게 시와 버스회사간의 뒷거래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도시의 교통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전주시의 교통난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아니더라도 시와 버스회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정기적 모임이나 시민 투표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목	나라에서 운영하는 믿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연결 시스템 구축	지역	대구광역시
----	-----------------------------------	----	-------

☛ 제안 이유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세자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 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해주는 부동산 연결 시스템을 해주어서 나라에서 확실하게 신용을 보증해서 집을 사고 팔거나 임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

예를 들면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집을 내놓거나 살집이 있는 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그 자리에서 등기부등본 등을 다 뺄 수 있고 신원확인 및 저당잡힌 것이 없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서 신용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엄청난 수수료도 좀 깎아주고 나라에서는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도 수수료도 적게 내고 믿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이러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주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재원 조달방안

집매매 수수료를 받게 되면 오히려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기존에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들 망한다고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이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동산 매매를 도와주는 인력들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서 뽑는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안양천 옆 카페	지역	경기도
----	----------	----	-----

☐ 제안 이유

한강처럼 안양천은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까지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걷기) 안양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양천 옆 길도 정비가 잘되고 있지만, 편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강과는 달리 음료수 마실 수 있는 쉼터가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양천 따라 10킬로미터 간격으로 카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 방법

사회적기업이 주도하는 카페 : 간단한 음료, 다과 판매
수익금은 일정금액 사회환원 & 안양천 정비 사업

☐ 효과

- 사회적 기업이 주도하는 카페로서 착한 소비를 이끕니다.
- 카페 바리스타 혹은 판매사원을 일정부분 장애 청년을 채용, 청년 일자리 창출
- 안양천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만 해소

☐ 소요예산, 자원조달방안

- 사회적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돕고 시설비 약 5천만원 이하는 경기도에서 대출지원, 추후 기업의 수익이 나면 상환

☐ 언제까지 : 2014~2015년까지

제목	용인 경전철 부채 절감 방안	지역	경기도
----	-----------------	----	-----

용인 경전철 부채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부채를 절감하려면 최대한 수요 예측치에 비슷하게 사람들이 이용해야 함.

사람들이 경전철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 역 위치가 제대로 정해지지 못해 굳이 탈 필요를 못 느낌

2. 환승할인이 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듦
3. 분당선에서 경전철 환승시 불편함을 이길 정도의 매력이 없음
4. 아파트 단지와 역 사이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부분 버스를 이용함

사람들이 경전철을 이용하게 하려면?

1. 환승할인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함.
2. 용인대, 송담대, 명지대, 강남대 등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와 대학 간의 셔틀 버스 협력이 필요함.
3. 매력을 끌기 위해 에버랜드 역과 에버랜드 사이의 셔틀버스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단, 주말과 공휴일에만 배차를 짧게)
4. 특히나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동백역을 중심으로 공용 자전거를 운영하도록 함. 공용 자전거의 도난 등은 자전거 대여 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될 것으로 봄. 동백역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에 공용 자전거 보관장소를 설치해 교통망을 만들 수 있고 주민들의 편의와 건강을 지킬 수 있음.

소요예산은 환승할인과 자전거 설치시 비용이 발생할 것임

재원은 최대한 경전철 예상 소요량에 근접하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재원마련이라고 생각함. 다만 추가적으로 관광 명소 코스(예를 들면, 민속촌,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도 박물관 등을 연계)를 시 측에서 운영한다면 재원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함.

제목	전기자동차산업 경쟁력향상을 위한 전기차충전소 확충방안	지역	부산광역시
----	-------------------------------	----	-------

☛ 현황 및 문제점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걸음마 단계이다. 차세대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필수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 개선방안

폐업위기 및 적자에 시달리는 주유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은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적다는 것이다.

☛ 기대효과

국가적인 지원으로 주요 구별로 주유소를 전기차충전소로 전환하는 재정지원책을 실시하면, 전기자동차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이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제목	전통시장 마일리지	지역	경기도
----	-----------	----	-----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을 살리기 위하여 전통시장마일리지를 공약으로 내세워야합니다.

전통시장마일리지란 시내에 위치한 전통시장어디서든 물건을 구입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실행방법은 시내에 있는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과 협약을 맺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협약카드로 가격을 결제하면 항공마일리지처럼 일정금액이 쌓이고 그렇게 쌓인 마일리지로 전통시장에서 다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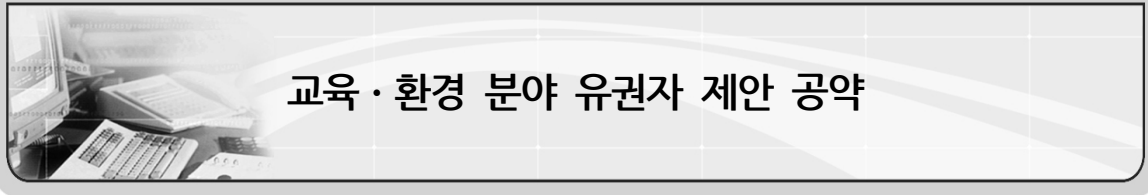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입장에서도 카드고객확보에 좋은 아이템이므로 메리트가 있는 정책이고 그만큼 참여를 유도하기 쉬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래시장 이용고객들은 마일리지가 쌓이니 재방문하고 전통시장은 그만큼 고객확보에 유리해지고 지역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지역의 금융회사들도 모두 좋은 1석3조의 정책공약입니다.

시에서는 각 전통시장과 지역의 금융권과 협약 중재역할만 수행하면 되므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바로 실행가능한 공약입니다.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II

교육·환경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교육·환경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제목	실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충청남도
----	----------------------------	----	------

지역민의 나이 분포도를 볼 때 장노년층이 절대다수

- 1차산업 종사자 제외하고 일자리 없어 힘든 노후계층 다수
- 지역경제 침체와 활력이 없는 고장이 되어가고 있음
- 실버전문 일자리 연계센터 개설 운영
- 단순·전문 경험과 경력을 분석하여 관련 일자리 취업 유도
- 지역 특화 콘텐츠를 체험·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실버 일자리 창출
- 교육도시 특성을 살려 평생학습·경력전수 등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돈버는 노년, 소비하는 노년, 삶을 누리는 노년, 지역경제 활성화, 활력있는 능동적인 지역으로 변화
- 시도재정 예비비나 고용노동복지에 배정된 지자체·정부예산에 추가 활용
- 비교적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도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목	공공도서관의 활성화	지역	부산광역시
----	-------------------	----	-------

북구내 공공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 제안합니다.

1. 공공 도서관의 열람실이 대부분 중고생들의 시험기간에 공부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도서관 본래의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시험기간에는 도서관을 가보면 분위기 조성도 안되고 학생들의 수다공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여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되지 않을 뿐더러,

3. 도서관내 문화강좌 공간이 부족하여 문화강좌를 듣기가 충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재능 기부형식으로 유익한 강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엄마가 함께하는 스타트 리딩북 프로그램도 좀 더 활성화 될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4. 부산시내 도서관 관련 학과생들의 전문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졸업 후 전문인들의 활용도 더욱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제목	재활용 자판기	지역	부산광역시
-----------	----------------	-----------	-------

요즘 음료수, 캔, 병, 집에서 많이 쓰고 있는 개인용 프린트기 잉크가 마구 버려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가정에서 잉크젯 프린트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다 쓴 프린트잉크통을 그냥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프린트 잉크통에 금이 함유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다 쓴 프린트기 잉크통을 한곳에 모아 재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 앞이나 지하철역에 자판기를 만들어서 자판기에 넣으면 에코카드에 충전되어서 일정한 금액이 모이면 쓸 수 있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재활용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거나 귀찮아서 마구 버리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재활용했으면 합니다.

제목	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인척 보육교육 후 보수지급 공약	지역	대구광역시
-----------	---	-----------	-------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고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고 보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전 TV에서 이미 타 지역 시에서 공약실천 중인 사례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육에 관한 교육을 받고 50~6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 보육에 관한 안정감,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고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실천 가능한 부분임에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구에서도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부러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거부감보다, 친인척이 이 교육을 듣고 보수를 받는다면, 혁신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자발적 우리 아이 지킴이 제안	지역	서울특별시
----	------------------	----	-------

은평구는 비행청소년 범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자발적 우리 아이 지킴이’라는 방법대 조직안을 제안합니다.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과 더불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은 청소년 범죄·비행에 있어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사업장 등은 협약을 통해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약 1시간 정도 조정, 조정된 시간 동안은 방법대원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직접 방법대원으로 관할 구역을 순찰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비행률은 줄어들 것이고, 약 1시간 정도 출퇴근 시간이 미루어지는 부모들은 조금 수월한 출퇴근길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행 청소년들을 적발, 훈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방법대원으로서 활동,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 동마다 ‘자발적 우리 아이 지킴이’ 신청을 받거나, 일정 대원을 선정합니다. 해당된 인원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 사업장 등에 시·구에서 발급된 협조문을 제출하게 되고, 방법대원의 활동 주기에 따라(최소 1주일에서 최대 2주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중 택 1) 출·퇴근 시간을 조정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비행 등에 가장 취약한 시간으로 꼽히고 있는 등하교 시간에 강화된 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의 혼잡한 상황 또한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순찰을 통해 적발된 학생들에 대해선 학교재량의 별점부과 및 ‘학생 방법대원’으로 선정, ‘자발적 우리 아이 지킴이’와 함께 관할 구역을 순찰하며 자신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후 우수 대원에게 시상과 표창을 하여, 주민들의 소속감 증대 및 주민특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시상과 표창을 겸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주민회의’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참여도 상승, 주민 행복도를 크게 올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최소규모로는 각 동, 중간규모로는 각 구 별로 정기적인 모임과 시상을 할 장소가 필요하겠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주민센터와 구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대원의 기본 장구는 ①호각 ②손전등 ③방법대원 완장 ④필기구로 합니다. 기본 대원 구성은 15~20명으로 하여 2~3인 1조로 편성합니다. 1인당 약 5,000원 정도의 장비구입이 필요하며 이는 각 동에서 출근시간 방법대원 20명과 퇴근시간 방법대원 20명을 선정할 경우, 총 40명의 방

범대원이 구성되며, 초기 방법대원 구성 예산으로 약 200,000원이 필요로 합니다.

초기 방법대원 선정시 지역발전 기부금이라 명하여 5,000원을 기부금으로 받는다면, 사실상 동에서 들어가는 제반비용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초기 장비 구입을 제외하고서, 이후 대원의 순환이 일어날 시, 장비의 대물림을 통해 유지 보수를 한다면 별 다른 유지비용 예산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외적으로 대원에 대한 지원비나 시상 준비비(상패와 소정의 활동료 혹은 세제감면 혜택 등)가 제반될 수는 있습니다.

‘자발적 우리 아이 지킴이’는 월례주민회의와 방법대원 모임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사 소통 또한 늘어날 것이고, 이를 통해 지자체에 대한 주민의 소속감과 충성도, 주민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한 크게 증대되리라 예상합니다.

제목	학교에서 대피방법 관련한 교육 실시	지역	서울특별시
----	---------------------	----	-------

일본은 지진이 잘 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대피방법을 어릴적부터 배워 지진으로부터 일어날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를 들어서 저는 대피방법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피요령을 가르치면 첫째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피요령교육을 안하고 사고가 나서 보험금 물어주고 시설 복원할 돈보다 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줄어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통한 수업시간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Project 추진	지역	서울특별시
----	---	----	-------

시도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되실 예비 교육감 후보들이 우리 학생들이 매일 매일 즐겁게 공부 하면서, 동시에 21세기 미래 사회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변화의 핵심을 학교 생활의 대부분이 되는 수업시간에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 공약 :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통한 수업시간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Project 추진

-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실현

○ 세부 실천 계획

1. 교육감 직속 미래 사회 대비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혁신팀 조직 운영
(가칭: 미래역량강화팀)
2. 과학,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을 수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목표 : 임기내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1인 1태블릿 PC 활용 학습 환경 구축
 - 방법 : 가정에서 사용하는 학생 태블릿 PC 학교 수업에 활용 가능한 제도 마련
학교별 학기 단위의 태블릿 대여 지원 체제 구축, 교육청 차원의 인프라 지원팀 운영 등
3. 자율적 수업 연구 분위기 확산을 통해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변화 유도
4. 직업, 진로 탐색 Project 중심의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5. 국제교류협력학습 확대 및 세계 시민 교육
6. 다문화 교육
7. 학생 특성 중심의 개별화 교육

제목	공교육강화 사교육억제	지역	경기도
----	-------------	----	-----

공교육을 제대로 이루어 지려면 사교육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논술을 입시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논술이 교과목으로도 안되었으니 논술학원들이 몇백씩 학원비 받으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선생님들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공교육이 제대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에게 행정실무를 시키지마시고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인원을 더 늘려야 선생님들도 교과수업준비를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잘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들께서는 밤잠 줄이시면서 수업준비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그냥 그냥 원래 했던대로 가르치니 발전이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가 임용후에도 계속해서 되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자질테스트부터 해서 30%는 매년 재교육시키고 일부는 탈락시켜 젊은 선생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디 공교육, 선생님들이 정말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후보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산외곽지역 장난감 도서관 설립 확대	지역	부산광역시
----	----------------------	----	-------

☐ 제안이유

- 저소득층·취약계층·일반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장난감 구입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 교육, 문화, 놀이시설이 부족한 도심외곽지역의 자녀교육 양극화 문제 해결

☐ **설립 희망 지역** : 영·유아·초등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 및 저소득층·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장난감 도서관 설립 확대(부산광역시와 부산교육청 협약)

☐ **부산지역 장난감 도서관 현황** : 대략 11개 기관

- 부산보육지원센터 내에 있는 그린나래 장난감도서관(연산동)
- 동산원내에 있는 가온누리 부산장난감도서관(수영구 광안동)
- 부산종합사회복지관내 장난감 도서관(수영구 망미동)
- 반송 운봉 복지관 내 장난감도서관 드림팩토리
- 남산동 장난감 도서관
- 남구종합복지관 내 장난감 도서관
- 동구 범일 4동 사회 종합복지관, 희망 장난감 도서관
- 동구 수정동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꿈을 여는 장난감도서관
-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내 장난감도서관
- 사하구 초록꿈 장난감 도서관
- 강서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내 장난감 도서관
- ※ 도시외곽지역 및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 영도구, 서구(남부민동), 남구(감만동, 우암동), 부산진구(당감동, 개금동), 해운대구(반여동, 재송동), 금정구(서동), 기장군(정관), 강서구에는 장난감 도서관이 부족한 실정
- ※ 장난감도서관이 대부분 복지관 내 있고 몇 군테를 제외하고는 교통편이 편리하거나 접근하기 쉬운 장소가 아니라서 유아학부모들이 자주 가기 힘든 편이다.

☐ 자원조달 방안

가.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시 단지 내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 설립시 부산시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 모색

☞ 사례) 부산 부곡 롯데캐슬 디아망은 단지 내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 운영(부산 시에서 혜택을 주었는지는 알수 없음)

나.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 및 단체와 MOU체결을 통한 자금 마련

- ☞ 사례1) (주)신세계 자사 임직원 기금으로 부산시 동구 종합사회복지관 4층 희망 장난감 도서관 5호점 설립
- ☞ 사례2) (주)세정이 모라종합복지관 2층에 약 100㎡크기의 ‘별난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설립
- ☞ 사례3)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동구 부산종합사회복지관 내 장난감 도서관 설립
- ☞ 사례4) 스타벅스코리아는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시가 운영하는 녹색장난감 도서관과 함께 어린이용 장난감 모으기 행사를 진행, 장난감 도서관에 기증. 행사 참여고객에게는 스타벅스 공짜음료 한잔을 제공

다. 부산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내 유휴 시설 활용

- ☞ 사례) 부산 강서구 명지동사무소 별관으로 주민들의 체력단력실로 쓰였던 단층건물을 장난감 도서관으로 개조. 강서구청은 전기세와 수도세 등 제반 비용 지원

제목	지하철 연장	지역	경기도
----	--------	----	-----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사와서 산지 벌써 13년째입니다. 남들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제가 사는 의정부 특히 민락동은 살기가 참 좋은 동네라고 자부합니다.

학교가깝고 공기 좋고 마트도 가까워 장보기 쉽고. 이렇게 다 좋은데 문제는 교통편이 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의정부 사는 사람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첫관문인 도봉산역까지 가는데만 30분이 걸리니까. 그 다음은 말 안해도 아실거고. 그래서 이곳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 의견이 지하철 7호선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만 연결된다면 굳이 복잡한 서울에서 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강 이북 의정부, 양주, 포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유독 지하철은 한강 이남으로만 연장시키는지. 강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하철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제주도의 무분별한 개발 제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	----	---------

요즘 제주도에는 **월드, **박물관 등 즐길거리의 관광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관광 요소가 많으면 관광객도 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녹지를 훼손시켜가며 제주도와 관련 없는 테마파크 같은 관광지가 과연 제주도 관광객을 더 유치 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람들은 ‘제주도’라고 하면 “자연 환경 그대로” 또는 “때묻지 않은”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특징 때문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예를 들어 제주 삼다수도 이러한 제주도의 특징을 잘 살렸기 때문에 생수 사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처음 온 사람들은 테마파크 여러 곳을 가지만, 결국에는 한라산이나 오름과 같은 친환경적인 요소에 매력을 느껴 제주도를 다시 찾게 되는 것임을 제가 제주도에 20년 넘게 살면서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도 제주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캐릭터 파크, 박물관입니다. 굳이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테마 파크를 세우는 것이 제주도의 관광객을 더 유치시킬 수 있을까요.

제주도의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제주와 무관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하는 것을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민들이 지켜야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제주의 아름다운 자원이 더이상 훼손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목	아파트 조경관리 중간검사제 도입	지역	경기도
----	-------------------	----	-----

1. 아파트 조경은 대부분 준공 후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후 몇 년간은 잘 유지되는 듯 싶지만 5~10년이 넘으면 방치수준으로,

2.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조경수도 잘 관리되지 못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조경 유지관리 검사제를 도입하여 5년 단위로 시군구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3. 조경시설 변경도 아파트에서 맘대로 하고 있고, 고사목도 보식하지 않으며,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는 물론 바닥재 중 모래 개회충알 등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지 공약으로 걸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사교육 과외교사 인증마크(면허) 부여	지역	경기도
----	----------------------	----	-----

☛ 제1안이유

사교육이 저변화 되어 있어 공교육과 경계가 모호해 졌다. 그리고, 공교육에 비해 사교육중 특히 과외선생님들은 자격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교육이 무너지 현실을 감안했을 때 국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교육을 하고자 하는 권리를 무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겠지만, 사교육을 어느정도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마크(면허)를 발급하여 자격이하의 과외교사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유도하여 사교육의 질을 높여 공교육에도 이바지 하도록 하자.

☛ 주요내용

1. 정부에서 과외교사들의 이력을 확인하여 인증마크를 발급한다. 만약, 인증마크가 없이 과외를 할 경우 제재와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2. 검증이 되고 인증마크가 발급되면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들이 보고 간단한 이력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3. 인증마크가 발급이 된 과외교사들에게는 일정부분 세금과 면허세를 부과하여 국고의 세금으로 수입을 발생하도록 한다.(많은 과외교사들이 높은 수업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는 현실이다.)
4. 과도한 과외비를 요구할 경우 페널티를 주거나 인증마크를 취소한다.(과다한 교육비 지출이 가계부채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5. 인증마크가 있는 경우 공교육의 강사로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재능있는 과외선생님들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아이들의 실력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한다.

제목	집 근처에 어린이, 아이들을 위한 소아과 병원 시설 외에 문화시설, 문화센터, 어린이집, 학교, 공원 등 설치	지역	서울특별시
----	---	----	-------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을 다니는 엄마로서 저희 동네에 어린이, 아이들을 위한 부족한 시설, 찾기 힘든 시설들이 언젠가 생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결혼 후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전철, 버스를 타려면 어느 정도 걸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래도 교통편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 동네에 어린이,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주위가 거의 회사 건물이 많다보니.. 아이가 아프면 가까운 소아과 병원 찾기도 힘든 편이며 무조건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뿐 만 아니라 유치원도 가까운 거리에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다른 동으로 알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직장인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하고 싶지만 일을 하고 늦은 저녁에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라 뭔가를 함께 배우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주말 밖에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 근처 가까운 곳에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설이 없고 아이를 데리고 다른 동, 다른 구로 이동을 해야만 하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약, 인원제한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포기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기도 하고 아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이집도 집 근처에 있더라도 사는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여 대기자는 너무 많고 유치원은 근처에는 없고 거리는 멀고 학원도 찾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시설들이 부족한편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집근처에는 대형마트라도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없어서 항상 필요하다고 느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구로구가 넓고 동이 워낙 많다보니 활성화 되는 지역은 아이들을 위한 주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되어 있지만 제가 사는 동네 근처 가까이에는 시설들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손길이 필요한 곳이 바로 제가 사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엄마들 자녀들을 위한 시설들이 근처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도 함께 아이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꿈인 어린이,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여러 시설들이 제가 사는 가까운 곳 동네에도 생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목	동래문화회관의 활성화	지역	부산광역시
----	--------------------	----	-------

동래문화회관은 위치도 위치일뿐더러 교통망에 있어서도 자가용이 없으면 방문하기가 쉽지는 않고, 다양한 문화공연들의 유치가 사실상 힘든 점 때문에 동래구민이 아닌 외부인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오랜 기간 거주해온 저에게도 동래문화회관보다는 금정문화회관이나 해운대문화회관이 조금 더 익숙하다고 느낄 만큼 구민들에게 친숙한 문화공간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네요. 예술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동래구에도 계시지만 대부

분은 다른 구에 있는 문화회관과 같은 공연장을 이용하는 것만 보더라도 동래문화회관의 실사용도는 낮음이 현저히 드러나는 듯합니다.

물론 매년 성황리에 실시되는 동래읍성축제가 열리는 기간만큼은 동래문화회관에서도 마당놀이와 같은 다채로운 공연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만, 그 기간이 아닌 상시에는 특별한 공연을 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양한 콘텐츠라는 것이 사진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 부산시내에도 많이 생기고 있는 무명작가들의 갤러리처럼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동래문화회관이 숨은 명소였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듯합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울 만한 역사의 보고인 마안산을 우리 동래구가 끼고 있고, 그 곳에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산책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복천박물관과 장영실과학동산이 위치해있다는 점은 더없이 좋은 여건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동래문화회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의 문제도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동래문화회관으로 출입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정도가 있으나 하나는 마안산을 넘어서 오는 산책길을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마을버스 7번이 다니는 2차선 좁은 도로입니다. 시내버스조차 다니지 못하는 길입니다. 진입하기 위해서는 온천입구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방법인데 이조차도 사실은 방문을 희망할 정도로 쉬워 보이지는 않는 길인듯 합니다.

동래구 이 곳 저 곳을 다니다보면 동래문화회관의 위치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설명을 해드리기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통의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저 산 속에 묻혀있는 작은 건물이 아니라, 동래구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래문화회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앞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진입로를 기준으로 동래문화회관으로 가는 길을 잘 표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문화회관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소요예산과 같은 문제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겠으나, 차후 실시될 모든 공연을 굳이 무료화하지 않고도 주민들이 돈을 지불하고라도 볼 만한 내용들을 제공한다면 재원조달의 문제는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그리하여 역사적 동래구에 더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획기적이면서도 좋은 정책들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온천천이 봄날 벚꽃축제의 대표적 장소로, 산책로의 대표적 장소로 변해왔듯이, 오랜 역사의 고장인 동래구의 마안산을 기준으로 복천박물관, 충렬사, 그리고 동래문화회관까지 이르는 역사 동래의 새로운 문화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지역 거점대학교와 교육연계방안	지역	전라남도
----	------------------	----	------

■ 제안이유

현재 무안은 전라남도 지역에 속해 있으며 전라남도는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으로 속해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지역마다 도시권에 비해서 적게 되어있으며 그에 따라 아무래도 학원이나 주변에 교육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도시권 학생들에 비해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곳이 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 돈이 도시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보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향에서 고민하였습니다. 특히 무안에는 전라남도 도청 중심에 있는 국립목포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점은 무안 지역에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더불어서 학교 내에 존재하는 사범대와 교직이수 학생들을 활용해보는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 주요내용(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이 점에서 지역에 있는 목포대와 연계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국립대로 지정되어서 도청과 제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지역거점 국립대학이다보니 아무래도 지역과 관련된 제도를 같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목포대에는 사범대나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들은 교과목에 교육봉사라든가 사회봉사가 배정되어 있으며 지역에서는 아직 활용할 기회가 적을 뿐더러 경제적인 여건에서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최소 수준만 예산을 만들어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을 선발하여 무안 내에 있는 학교에 봉사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아이들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역에 있는 학생들 등에게 멘토링이나 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그런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장학재단에서 하는 청소년 지원 지역 멘토링은 목포대에서는 하지 않은 것을 비롯) 만약 이 정책이 실행되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된다면 지역사회발전과 학교발전 그리고 교육여건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소요예산

학생들에게 일정 교통비와 장려금만 간단하게 편성하여 무안 지역과 근처 지역만을 하기에 많은 예산은 들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학업에서 봉사라는 과목하에 진행하기에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재원조달방안

단순히 지역 내에서만 편성하기에는 그렇고 학교의 지원과 교육청의 예산 그리고 지역과 도의 입장 내에서 각각 분배를 하여서 예산을 만들면 상대적으로 한 쪽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줄어들 뿐더러 각각 만들어서 학교 따로 교육청 따로 지역청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통합하여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청소년관)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청소년을 둔 학부모로서 겪어보니 청소년들이 쉬는 날이나 친구들과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거리를 배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PC방이라든지 결국은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으로 가게 되더군요.

정보문화센터라든지 동사무소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모이는 숙된말로 꺼리가 없어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건전하게 학생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자그마한 청소년회관을 만들어서 건전하게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노래방이나 각종 학교숙제에 대한 정보 및 프린트를 할 수 있는 PC 및 프린터 구비 그리고 청소년 카페 등을 만들어서 유흥거리로 굳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스타벅스나 기타 다른 커피전문점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카페는 없는 것 같아요.

☐ **주요내용** : 청소년회관(부대시설 : 노래방, 분식점, 카페 및 PC방 시설완비)

☐ **운영방식** : 청소년들이 저렴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제목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환경 오염 문제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서 문제점을 최소화 하면서 나아가서는 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 주요내용(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는 그나마 별도의 수거통이 있어서 덜하지만 주택에서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내놓다 보니까 더워지는 날씨에 위생적인 면에서도 안 좋지만 미관상으로도 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거를 해가도 과연 매립을 하는 건지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건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일반주택가에도 음식물 수거용 통을 설치하고 자주 비워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특별, 광역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만을 처리하는 사료공장 및 퇴비농장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 또는 외주경영 체제로 한다면 공장 설립 비용 등 초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만 공장에서 수익이 나올 때쯤 되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생길 것이며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건설한다면 기계, 화학, 포장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하여 Know-how를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히 투입 비용 대비 수익을 따지기보다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하천 등의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환경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질 높은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소요예산은 용역을 통해서 건설비 등을 산출한 후 지자체 40%, 기관투자가 30%, 시민들의 공모주 30% 정도로 조달하면 될 것입니다. 질 좋은 사료나 퇴비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을 받는다면 초기 비용을 회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근무하는 직원들도 임금 삭감을 감수할 수 있는 은퇴 또는 실직한 베이비부머 위주로 채용한다면 사람들과의 경쟁도 피해서 또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 기타

공장의 설립은 각 구별로 한 개씩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몇 개의 구를 합쳐서 공동 관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목	동사무소 및 문화센터 주차장 야간이용 및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지역	서울특별시
----	-----------------------------------	----	-------

금천구 주택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각 동사무소 및 금천구문화센터의 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배정하고 실제거주지에서 멀리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차비를 조금 낮게 책정하는 것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에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수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빛공원, 산기슭공원, 금천초등학교 앞 공원, 엘림공원 등등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이용률이 낮습니다.

한편 금천구에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지역이 많은 데 밤만 되면 주차문제로 시비가 끊이지 않고 도로변을 차가 뒤덮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 상부를 공원으로 활용하기만 해도 주차난이 상당히 해결될 것입니다.

건설비용은 지금 4만원 정도인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인상하고 불법주차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불법주차파파라치제도를 해서 충당하고 부족분은 차입을 한 뒤에 추후 공원주차장사용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목	급식 관리 감독 체제 강화	지역	서울특별시
----	----------------	----	-------

급식이 무상급식으로 바뀌며 다소 질과 맛이 떨어졌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조금의 돈을 받던 때에는 그나마 질과 맛은 보장되었지만 지금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받자 그 품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맛만 그렇다면 이렇게 글을 올리지 않았겠지만 최근에 급식을 먹고 많은 학생들이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식중독이라고 추정되었으며 다행이도 대부분 빠른 시일내로 회복하였지만, 이런 일이 다시 있을 것 같아 제안합니다.

- 급식예산의 분배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주세요. 예산에 비해 급식의 품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오죽하면 아이들 입에서도 급식관련 예산이 모두 다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 급식의 원재료의 유통과정과 잔반처리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잔반에 대한 재활용으로 식재료의 신선도를 알 수 없습니다.
- 공립뿐만이 아니라 사립에도 제재를 강화해주세요. 사립은 교육청에서도 제재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립에서 일어나는 자살한 사건사고 등은 그대로 묻혀버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무상급식제를 폐지해주세요. 무상급식은 되려 더 많은 피해를 낳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이니 ‘참아야지’하는 생각을 버려주세요. 학생들은 죽을 맛입니다.

제목	어린이 시티투어버스 운영	지역	충청북도
----	---------------	----	------

충주에는 여러 개의 좋은 공원과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원을 가려고 하면 자가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방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티투어버스를 만들고 코스를 체험장이나 생태박물관등 어린이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구성 한다면 여러모로 어린이들이 여가시간을 부모와 보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실례로 시티투어버스는 아니지만 서울의 타요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여러 도시들이 관광을 연계한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목	한눈에 알아보는 남산동 지도 제작 활용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배경

- 남산동에는 자주 이용하는 업체가 곳곳에 있음(ex. 파리바게트, 남산문고 등)
- 또한 은행 및 병원 등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개인 용무로 이용하는 곳도 다수 있음
- 하지만 신입사원 및 길 찾기 어려워하는 사람 등 남산동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한 번에 찾아가기 힘들어 다른 직원이 동행해야 할 수도 있음.

☐ 제안내용

- 남산동 지도에 자주 찾아가는 업체 및 병원 등 편의시설을 표시하여 그룹웨어에 등록, 직원들이 다운받아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남산 맛집 남남남’과 연계하여 식당 위치 표시 가능
- 구글맵 등 기존 지도 활용, 또는 직접 제작하여 활용

☐ 기대효과

- 인근 업체 방문이 용이하여 업무 편의성 증진
- 신입사원의 보다 원활한 센터 적응에 기여

제목	진정한 양성평등의 기회제공	지역	경기도
----	----------------	----	-----

- 1960 ~ 70년대 각 시·군·구별 복지회관이 생길 때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지 않았던 시기로 주부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형태의 가정이 많았다.
- 잘 다니던 직장도 결혼을 하면 대부분 사직을 하고 출산, 육아, 살림의 패턴으로 이어지던 시기라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 잘나가는 직장을 다니던 여성들도 결혼 전,후로 대부분 사직을 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 아이들이 초등학교(국민학교) 다닐 시기가 되면 많은 주부들이 집 주위의 복지회관에서 제2의 직업을 꿈꾸며 취업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을 선택해 복지회관을 이용하며 실제 각 시에 소재한 복지회관에서는 많은 전문인을 양성. 양장기술, 도배기술, 미용기술, 요리기술(한식, 양식, 제과·제빵, 일식), 컴퓨터기술, 꽃꽂이기술, 서예(사군자, 한글, 한문) 등등,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각 사회의 구석구석에 재취업으로 많은 여성들이 제2의 직업갓기에 큰 역할을 해내왔다.
-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달하여 이제는 여성이 차별받는 사회란 있을 수 없는 시대에 도달했다고 본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양성 평등화” 직장에서도 가끔 이수하게 되는 교육으로 남·여의 개념은 평등선상에서만 해석이 가능하다 볼 수 있다. 6,70년대에 집에서 살림만하던 여성들이 재취업을 꿈꾸며 이용하던 여성특권 시설인 여성복지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복지관 등등의 특정 성을 지칭한 명칭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본다.
- 따라서, 진정한 “양성평등화”의 실천을 위해 또한 역사별적인 상대 성을 가진 분들의 불이익을 없애고자 이제는 여성이란 두 글자는 과감하게 빼어버리고 지역명칭이나 교육특성을 살린 명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 명예퇴직 또는 전직등 제2의 직업을 꿈꾸는 자라면 남·여 누구나 예외없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범위를 확대 사용케 하여야 한다고 본다.
- 위의 내용을 실제 적용하려면 지자체 조례의 여성 두 글자를 지역명칭이나 교육관 특성을 살린 명칭으로 개명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반사회보, 지역방송사 등을 통한 지역주민에게 홍보가 필요하겠으며, 수강생 모집에 성차별 없는 남·여 누구나 수강생 접수가 가능하며 교육관 현판변경 등이 필요할 것으로 큰 예산낭비 없이 진행 가능한 유익한 사업이라 본다.
- 2014년 하반기에 개정작업을 통하여 2015년 1분기 부터는 시행가능한 것으로 본다.
위의 내용은 어느 특정 시·군·구를 국한한 내용이 아닌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 시행하여 어느 지역은 발빠른 개선으로 남성이용 가능한 반면,

어느 지역은 아직도 양성평등의 개념 미적용으로 안된다는 등 국민의 혼선을 사전 예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본다.

지방이라고 해서 배우고 싶은 남성이 없으리라 볼 수 없으며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제목	어린이놀이터의 해묵은 모래 교체	지역	서울특별시
----	-------------------	----	-------

취학 전 어린이들은 교육보다 놀이가 더 중요합니다. 실생활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손쉽게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는 바로 놀이터(어린이공원)입니다.

또한 놀이터에서 만질 수 있는 모래는 아이들의 심리적 발달에도 매우 건강한 유익을 줍니다. 어린이놀이터의 해묵은 모래를 새모래로 교체하는 공약은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도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공약이 될 것입니다.

자치구 내 해당 놀이터(어린이 공원 중 모래밭 시설이 있는 곳)의 모래를 점검하고 필요시 새 모래로 교체하는 작업이며, 소요예산은 구 예산으로 충당하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긴급안전반 조직 운영	지역	충청남도
----	-------------	----	------

■ 제안이유

세월호 사건이후로 긴급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전문성을 가진 조직을 상시 운영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비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긴급안전반을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주요 내용

가. 무엇을 : 자치단체에서의 긴급을 요하는 안전사고 및 처리를 위하여 긴급 안전반을 운영하여 사전에 긴급조치를 하거나 대형사고로 발전되는 부분을 막고자 하는 조직을 운영하여 안전사고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임.

나. 어떻게

- 1) 자치단체별 긴급안전반 조직 운영: 자치단체별로 안전사고예방전문가를 임용하여 긴급한 안전사고의 조직을 운영한다.

- 2) 안전사고 예방 추진 계획 수립
 - 3) 안전사고 예방 추진 계획에 의거 자치단체내 위험지역 및 안전사고 발생부문을 검토하여 미연의 예방 역할을 추진
 - 4) 자치단체별로 긴급안전반 시범적으로 운영후 전국적 확대 실시
- 다. 언제까지: 10개년 긴급안전반 운영 추진계획으로 2024년까지 추진

■ **소요예산** : 긴급안전반운영자치단체에 10억씩*10개단체 =100억

■ **재원조달방안** : 중앙정부에서 예산 마련으로 실시

제목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공약 제안	지역	경기도
----	--------------------	----	-----

■ **제안이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도로에서의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각 지역별로 여러 교통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내용을 보면 단순한 시청각 교육이나 표지판 교육 등이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주요내용**

제가 경기도 내에 있는 교통공원을 몇 군데 방문해 보고 실망하던 차에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키즈오토파크(<http://www.kidsautopark.org/>)라는 곳을 알게 되어 방문해본 결과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경기도내에 있는 다른 교통공원과 비교했을 때 질적인 부분에서도 월등히 나아 보였고, 아이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어린이 면허시험이었습니다.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아이가 직접 운전을 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받아 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에는 왜 이런 시설이 없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교육을 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정말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고 형식적인 교육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교통공원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식 공간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재원조달방안

제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키즈오토파크는 모자동차회사가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조성한 교통공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및 각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교통공원을 바꾸기 힘들다면 경기도 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 중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의 지원을 일부 받아 어린이가 흥미를 가지고 교육 받을 수 있는 체험식 교통안전공원으로 바꾸어 보는 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제목	유치원 보조 교사 배치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	----	---------

정책의 목표

- 유치원 재원 유아들의 원활한 수업 진행
- 유치원 교사에 대한 적절한 처우 개선
- 유아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의 우선 순위

최우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

- 예산 편성
- 예산 우선 순위의 조정

정책 완성의 기한 : 2015년

정책을 위해 드는 재원 및 조달 방법 : 약 26억원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공립 유치원 94개 학급(3세 22학급, 4세 25학급, 5세 43학급, 특수 4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 수업은 정규과정 5시간과 방과후과정 3시간이 담임교사 1명과 방과후강사 1명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은 유아들의 특성상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으로 구분되지 않고, 연속 5시간 또는 3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들은 생리 욕구(휴식, 화장실, 식사 등)를 해결하기 위한 고충이 있고, 유아들의 생리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업을 담당할 1명의 교사가 유아를 돌보게 되는 경우, 나머지 아이들이 방치되어 수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안전 사고 등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 즉,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유아가 화장

실을 이용하게 될 경우 도움이 필요하고, 갑작스런 안전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아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게 될 경우, 식사 지도를 할 경우, 유아가 수면을 취할 경우 수면실로 옮기게 되는 시간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수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감독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다. 또한 수업의 집중이 어려워져 산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웃 대전광역시에서는 보조교사(정규과정업무실무원, 유치원 교사 자격증 보유)를 정규수업과정에 따로 배치하여, 신체적으로 미숙한 유아들의 원활한 수업진행을 돕고, 개별적인 유아의 지도(식사, 화장실, 수면, 응급처치, 안전사고 감독 등)를 하고 있다.

이 정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정책의 우선 순위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모두 제시하고 있는 스마트 교육보다 앞선다. 유아들에 대한 원활한 수업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은 각종 스마트 기기들을 이용에 따른 popcorn brain 같은 폐해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 1인에게 지워진 과도한 업무량을 경감하고, 최근 사회 이슈화된 안전 문제를 고려하면 유아들에게는 가장 우선하는 정책이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2015년도 예산 편성과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스마트교육에 대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하여 가능하다.

정책의 완성은 예산 편성을 통하여 가능하므로 2015년이다.

정책에 드는 재원은 이웃 대전광역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이 비용은 현원이 정원의 50% 미만인 학급에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감축될 수 있다.

정규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 1,446,920원 × 12월 × 94학급 = 1,632,125,760원

방과후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 1,446,920원 × 3/5시간 × 12월 × 94학급 = 979,275,456원
 계 2,611,401,216원

제목	섬지역 재능기부 강사파견 프로젝트	지역	인천광역시
----	--------------------	----	-------

■ 제안이유

- 인천에는 33개에 섬이 있고, 이 섬들안에 81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섬지역에 살고 있지만 교육·문화적인 혜택은 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도시에 집중된 교육·문화적 혜택을 소외지역 청소년들과 나누고 섬지역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섬지역 재능기부 강사파견 프로젝트 “섬마을선생님”을 제안합니다.

■ 주요내용

- 섬지역 재능기부 강사파견 프로젝트 “섬마을선생님”이란?
“섬마을 선생님”은 교육·문화 소외지역 청소년에 대한 강사 재능기부 프로젝트입니다.
- 재능기부 강사모집
먼저 연초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재능기부 강사”를 모집합니다. 강사는 강 영역에서 전문성이 보장된 사람으로 20회 이상의 강연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강의영역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조사해서 선정하되 “댄스, 연극, 마임, 공예, 사진, 여행, 창의력, 전통음악” 등의 다양한 문화영역과 세월호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교육”, “진로교육” 등 삶에서 꼭 필요한 강의영역도 포함하여 모집합니다.
- “섬마을선생님” 강사 발대식
“섬마을선생님”에 지원한 강사들은 발대식을 참여합니다. 발대식에서는 교육감의 “섬마을선생님” 임명장 전수와 함께 향후 사업진행에 대한 일정과 효과성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강사의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 섬지역 학교 교육신청 접수 및 강사파견
“섬마을선생님”의 지원한 강사의 프로필과 강의내용을 공지하고, 각 학교로 공문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접수받은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강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각 학교로 강사를 파견합니다.
- 강사워크샵
강사 워크샵에서는 사업기간 동안 수고했던 강사들을 위로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또한 우수강사들에 대한 시상과 사업에 대한 소감을 듣는 자리로 진행합니다.
우수강사 : 인천광역시장상, 인천광역시교육감상
인센티브 : 인천 관내 학교 강사프로필 홍보 및 강의기회 마련
- 사업평가
“섬마을선생님” 사업평가는 세 가지입니다.
 - ① 파견학교의 학생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평가
 - ② 강사 워크샵을 통한 강사들의 사업평가
 - ③ 담당자 종합평가
 각 영역의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합니다.

기대효과

- 인천의 도심과 섬지역의 교육 및 문화적 혜택 균등화
- 재능기부 문화의 확산
- 인천시의 나눔 및 긍정적 이미지 상승효과
 - 인천시는 언론에서 강력사건으로만 보도되는 것 같아 아쉬워요

소요예산

- 총600만원
 - 강사발대식 : 100만원
 - 강사워크샵 : 100만원
 - 홍보비(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 100만원
 - 강사교통비 : 10만원 × 30회 = 300만원
 - ※ 강사 재능기부로 강사료 240만원 절약효과 있음
 - 시간당 4만원(2시간 8만원)으로 환산하여 30회 기준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예산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목	군산 바다·생태 박물관 신설	지역	전라북도
----	-----------------	----	------

제안이유

군산은 예로부터 바다와 인접하여 있어, 어업이 발달하였고, 발달한 바닷길과 항구를 이용하여 문화교류 및 다양한 물자를 조달하면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발전하여 왔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김제평야 일대에서 자라는 식량들을 빼앗아 가는 중요한 바닷길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바다와 관련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군산에 바다 박물관을 신설하여 관광객유치와 새만금시대의 50만 국제 관광도시를 꿈꾸어 본다.

주요내용

군산의 내항에는 진포대첩과 해양관련 배와 전투기들을 전기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군산을 배경으로 일어난 진포대첩 관련 유물과 자료등을 전시하면 좋을 것이다.

군산의 인접도시인 서천에는 최근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외국의 생물들을 가지고와 전시함으로써 군산, 서천사람들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와서 즐겁게 놀다가고 있다. 우리고장 군산도 바다와 인접한 곳이기에 바다 생태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또한 “아쿠아리움”과 같이 살아있는 여러 나라의 생물들을 전시한다면,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 할 것이다.

군산의 내항에는 “근대역사 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다. 근대역사박물관은 최근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이다. 이러한 “근대역사 박물관”도 군산 바다·생태 박물관에 통합하여 하나의 코스로 만든다면, 바다 생태와 관련한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소요예산** : 박물관 건립(총 50억)

☐ **재원조달방안** : 도비 : 25억, 시비 : 25억, 총 50억

제목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여가 시설 확충	지역	경기도
----	-----------------------------------	----	-----

☐ **제안이유**

1. 양평군의 문화시설, 여가시설,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양평을 벗어나 타지역으로 문화, 여가, 교육 생활을 누리러 나가는 유동인구 증가(특히, 주말)
2. 개발제한으로 인해 농업, 상업으로 경제활동이 국한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순환을 위해 양평군 지역내 자본이탈을 막고, 타지역민의 자본유입을 위한 문화, 여가,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필요
3.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4. 양평군 관내 프로그램의 적극 활용 및 홍보 필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1. 무엇을 ?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여가, 교육시설 확충
2. 어떻게 ? 기존 시설 및 시스템 활용 및 확충,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한 홍보
 예) 양평군립도서관 : 기존 영화상영 프로그램 활용, 주말 프로그램 운영
 양평군립미술관 : 기존 주말 어린이 예술학교 활용
 양평군충박물관 : 관람 외 참여 프로그램 확충, 주말 프로그램 운영
 양평군보건소 :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교육 신규 프로그램 운영(문화센터)

3. 언제까지 : 신규시설 설립이 아닌 기존시설 활용가능하므로 2015년부터

☐ 소요예산

1. 인건비 : 공공기관 시설의 주말운영을 위한 시설관리자 및 프로그램 강사 등
2. 홍보비 : 지역내 프로그램의 적극 활용 및 참여를 위한 홍보비(절감안 : 각 가정으로 무상 배부되는 양평소식지 활용, 각읍면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회 협조요청, 각 읍면 홈페이지 활용)

☐ 재원조달방안

1. 참가비 : 일회성 프로그램외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정의 수강료
2. 통합예산편성 : 문화, 여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각 기관의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의 중복지출 방지 및 소요예산의 확보방안마련

제목	안전교육 체험관 건립	지역	부산광역시
----	-------------	----	-------

☐ 제안이유

최근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사고발생시 초기대응과 올바른 대처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안전에 대해 교육받거나 대처방법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교육 체험관이 전국에 서울 및 대도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국민이 교육받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현재 체험관을 건립하거나 지을 예정인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및 기타문제 때문에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수습비용보다 예방교육에 드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예방교육을 하면 사고발생율도 줄이고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를 떠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생각이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는 17곳인데 지자체별로 안전교육 체험관을 한군데 이상 건립하여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받듯이 연1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기상황이나 사고시 신속하고 올바른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 및 단체 접수를 통한 상시 체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방의 경우는 버스운행을 실시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빨리 계획되어 2018년부터 시범실시되어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안전교육 체험관을 건립하는 데는 적게는 5억 많게는 3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한 군데 이상 건립한다고 하였을 때 300억 이상 들며 직원 채용 및 안내, 책자, 포스터, 유인물 등을 합하면 약 500억정도 듭니다.

이정도 금액은 지자체 내에서 부담하기는 힘든 액수이므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 국가예산에서 안전교육에 관한 예산을 따로 배정하여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관 건립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역사 인식 개선과 연극 활성화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주요내용

아이들이 직접 홍보하는 역사 연극제를 통한 역사 인식 개선과 연극문화의 활성화

■ 제안 이유

학교에서 배우고 종종 여러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바탕으로 영화도 만들어지고 이슈도 됐지만, 아직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조금은 어려운 분야임이 맞나봅니다.

해마다 아이들에게 역사와 관련해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 끝에 역사 연극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적어 봅니다.

소정의 상금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참여를 유도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연극문화와 그리고 역사를 마주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보통 서울 외에 기타 다른 지역의 연극들은 대중화는 안된 것 같고, 좀 더 많은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었기에 이래저래 좋은 방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올려봅니다.

연극제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서울 역사 연극제를 마치면 다음 지역에서 열리는 식으로 일년에 4개~6개 지역을 선정해서 매년 열렸으면 합니다. 한 곳을 딱 정해서 공연을 올리고 끝낸다면 다른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직접 보지 못하고 홈페이지에 올라 온 영상을 통해서만 보게 된다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까이서 즐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또한 먼저 했던 지역에서 1등 한 팀이 다음 지역에 가서 비경쟁부문으로 초청 공연을 올려서 다음 지역의 아이들이 더 많

은 공연을 접하고 역사를 눈 앞에서 공연으로나마 다양한 창의적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역사를 주제로 하더라도 표현하는 게 다 다를테니까요

■ 방법

역사 연극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1차적으로 각 지역 극단들에게 공모를 합니다. 창작극제이며 주제는 역사이며 일정기간 내에 접수를 받습니다.

둘째는 역사 연극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해당 지역 모든 학교에 공지하는 겁니다. 각 학급에 붙이게 하며 적어도 2주정도의 기간을 둡니다. 그곳에는 초중고등부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소정의 상금을 걸고 기재합니다.

예시)

초등부 1등 50만원

중등부 1등 100만원

고등부 1등 150만원

ㄱ. 역사 연극제 포스터 부문 공개 투표 1등

ㄴ. 역사 연극제 홍보 영상 부문 공개 투표 1등

ㄷ. 역사 연극제 홍보 사진 부문 공개 투표 1등

접수는

언제까지 받고 담임선생님을 통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며, 투표는 각 부문 접수가 마감되면 일주일정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정기간 동안 역사 연극제 홈페이지를 투표를 받습니다.

투표 마감 후

초중고 각 1등 중 제일 투표가 많이 된 학생의 포스터로 해당 지역에 배포되고 홍보 영상 또한 초중고 1등 학생들 중 제일 투표수가 많은 영상을 TV 매체 홍보가 됩니다.

그렇게 포스터부터, 홍보를 모두 청소년의 손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이 개최되면 일정기간 공연을 보고 학생들의 공연 후기를 A4 한 장씩 받습니다. 대신 후기는 각 반마다 후기를 올리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각 반에서 담임선생님의 검증으로 거쳐 장난으로 A4를 채운게 아니라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각 반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기 1등은 일주일 동안 재밌게도 조회수가 가장 많은 학생 후기에 1등을 주고 홈페이지를 열면 작은 창으로 후기 1등 학생의 글이 1달 가량 항상 띄어집니다.

그리고 후기를 올린 친구들 모두에게 공연 관람 50% 할인권이나 공연장에 2인까지 초대권을 주는 등의 상품으로 연극제 마무리쯤에는 다른 이유로 많은 극단 공연에 긍정적 관심을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서울 외 지역에는 아직 그렇게 긴밀하게 시민들과 극단들이 호흡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디서 아이들이 공연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해서 역사 연극제 홈페이지 한쪽에는 청소년 관람가능 공연들을 각 극단별로 다양하게 올려져있어 아이들이 이곳에 가면 공연 정보를 전국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아이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를 매 년마다 주고 연극문화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팀 공연은 전문가 심사위원 결과와 학생들 홈페이지 투표를 통해 1등한 극단 또한 천만원정도의 우승 상품을 건다면 많은 극단에서 전국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 공약실행 비용

홈페이지 개설, 각 부문 소정의 상금, 포스터 제작, 진행 위원회 등등
 약 1년 1억 5천 ~ 2억 예상

제목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찰자 안전도우미 선생님 필요	지역	경기도
----	------------------------------	----	-----

저는 중학교 학교폭력위원 학부모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의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저하되어 폭력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폭력 발생시 교육청이 다른 곳으로 강제전학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강제전학을 오게 된 친구들이 다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보고 제안을 하나 하려합니다.

학교는 전학 온 아이를 세심히 관찰할 수 있는 제도나 여건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전학의 타이틀로 전학을 온 아이들이나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텐데요. 상담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는 수업시간 외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이동시간 등등 모든 시간에 안전도우미 선생님을 배치해서 관찰자로서 옆에 계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부모 일손을 통하는 방법도 좋겠지요. 또 하나의 인력창출이구요. 되풀이 되는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보람교사들도 계시지만, 그 아이만 상주해서 관찰하는 관찰자 안전도우미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문제성이 심각한 학생에게 관찰자 안전도우미(일꾼자면) 선생님이 항상 계시는 겁니다.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학생인권침해라고 할지 몰라도 관찰자로서 역할이라면 괜찮을 겁니다.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는 것은 추후 논의합지요.

더 이상 학교폭력이 작은 것이라도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학부모의 의견입니다.

제목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제안	지역	서울특별시
----	-----------------	----	-------

배움과 지식을 위한 학교에서 폭력은 있어서도 안되고 없어서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 줄 울타리를 만들어 놓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1) 교실마다 소리함 설치

한순간의 용기가 인생을 바꾸듯, 언제든지 나를 지켜 줄 수 있는 방패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2) CCTV로 증거확보

선생님들에 관심을 높이고 폭력을 일삼는 친구들에게 보이지 않는 눈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 * 수업 시간외에 학생들만 있는 시간에만 CCTV 운영 ⇒ 비용 절약 및 사생활 존중
- * 시청각 교육을 위해 이미 각 반마다 설치되어 있는 TV를 줄임

(3) 명상의 시간

공식을 하나 깨우치는 것보다 아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갖고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조회시간에 5분씩 명상의 시간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4) 명상의 시간 또는 학교폭력 방지 일주일에 1회 교육

공식을 하나 깨우치는 것보다 아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갖고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조회시간에 5분씩 명상의 시간을 의무화하였으면 합니다.

(5) 미성년자 처벌 극강화

학교폭력과 그로 인한 처벌 또한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이는 한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행위이며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제목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의 안전 확보	지역	부산광역시
----	--------------------	----	-------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금정구 남산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온천천을 꾸미면서 테크로 보행자 인도를 꾸미고 있는데 미화아파트 앞 구간에는 나무가 중간에 있어서 한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경우는

차도로 나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정이 필요합니다.

2. 안국선원 근처 인도의 경우 석가탄신일 전후로 등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해당 주차장에 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인도에 2-3줄로 등을 달아놓아 보행시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하며, 비가 오는 날은 등이 장애물이 되어 우산을 들고 보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번씩 전구가 터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플래카드를 다는 것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는 안전점검이나 검토 없이 허용해도 되는지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목	전신주의 무분별한 전기선 제거 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이유

도심의 화려한 개발을 다소 피해간 은평구의 특성상 골목마다 하늘에는 전기선, 통신선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다. 당연하게도 미관상 좋지않을 뿐아니라 길게 늘어지거나 뭉쳐있는 전선 꾸러미들을 보면 무척이나 위험스럽게 보인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중 일부가 안쓰는 전선들임을 알 수 있다. 유선방송 케이블이나 통신선들이 그것인데 절단된 채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알기로는 전신주의 설치는 한전에서, 케이블 관리는 각 통신사에서 한다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폐전선을 제거하는 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 주요내용

- ㄱ. 각 골목마다 위치한 전신주의 폐전선 제거
- ㄴ. 동 또는 구역단위로 통신사에게 제거 요구
- ㄷ. 입찰 또는 유사 형태로 제거업체 또는 단체 지정
- ㄹ. 저소득층 인력 위주 동원

☐ 소요예산 : 인건비와 사다리 등의 설비 구입 또는 리스 비용

☐ 제원조달 방안 : 폐전선 판매 비용으로 제원조달 가능하나 일부 지원 검토

제목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지역	대구광역시
----	-------------------------	----	-------

☛ 제안이유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 명, 서울에서만 5만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중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은 매년 천여 명에 이른다.”라는 보도와 “한 해에만 6만여 명의 청소년이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고,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곳이 없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방송통신중학교 설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 대안학교 설립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중학교, 대안학교의 입학자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학생 사정에 따라 이러한 학교에도 갈 수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 주요내용

이에 대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서 힘을 합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제도를 구체적으로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1.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공공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은 많이 있으나, 이러한 장소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교육 사각지대에서 잊혀져 가는 아이들에게 늦기 전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2.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진학에 대한 상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두고 난 후, 특별히 학원 같은 곳을 가지 않을 경우 무엇을 해야할 지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릅니다. 뒤늦게 찾은 꿈을 떠올리며 마음을 잡아도 공부하는 법도 잘 모릅니다. 진로진학센터 같은 시설을 만들어 진로진학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3. 교과서, 참고서 구입비 및 점심급식비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교과서와 참고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점심을 먹을 경우 점심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학교 밖 청소년’들을 연령대별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연령대(만 18세)까지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정에 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과 일을 병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우선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 소요예산

1. 시설은 현재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소요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인력도 일부만 새로 채용하고, 현재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를 활용하면 소요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재원조달방안

시·도교육청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어려운 환경에도 성공한 분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분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기부금을 받아서 재원조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	방화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각급학교 조무직 채용	지역	경상북도
----	----------------------------------	----	------

☐ 제안이유

며칠 전에도 대구사대부고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고, 세월호 침몰등 각종 안전사고 문제가 학생의 학교생활 활동반경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의 안전과 학생의 활동반경이라 할 수 있는 학교내외의 시설물들의 건물안전을 지켜줄 방화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각급학교 조무직 채용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 주요내용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그리고 방화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채용 시험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자를 뽑고 학교 내 시설물 관리와 방화관리업무, 그리고 학생안전보호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 소요예산

각급 학교별로 9급 교육청 행정직 공무원 1명에 해당하는 연봉과 복지에 따르는 비용이 듭니다.

☛ 재원조달방안

현재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고용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지킴이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그 예산을 조무직 채용의 비용으로 대체합니다. 부족한 예산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보충합니다.

☛ 맺음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안전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기에 반드시 채용이 이루어져 안전한 학교,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청소년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멘토시스템	지역	경기도
----	------------------------	----	-----

☛ 제안이유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에 소질이 있는지 깨닫게 되어 향후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만 목표로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고 흥미를 느끼는지 알게 된다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미리 발전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멘토 시스템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시간이 생긴다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소요예산 : 예산이 필요없을 수 있음.

학교에서 공문을 통하여 졸업한 선배들에게 문의를 통하여 요청을 하면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자원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학교에 멘토 시스템을 지원하러간다는 것을 회사측에서도 장려하게 만들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 재원조달방안 : 학교의 졸업한 각 분야의 선배들에게 문의를 통해 방문을 요청

제목	공공 도서관 활성화	지역	경상남도
----	------------	----	------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며 지식이야말로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아득한 옛날부터 인류의 역사와 성장을 주도해온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21세기 동북아의 중심이자 IT 강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도서관 현실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 성공의 비결을 어릴 적 애용했던 마을도서관에 두고 있으며 그 도서관이야말로 하버드 졸업장보다 유용했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상남도는 2008년 개정된 도서관 진흥법을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도서관은 더 이상 단순히 책을 저장하고 대출해 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지역 주민의 문화 활동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넘어 전인적 교육기관이 되어야 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화인민공화국의 아버지라 할 만한 모택동은 북경 대학 사서 출신이었습니다.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이주자의 자활 및 사회 적응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히 현재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인 초강대국 USA를 일군 밑거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업적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드시피 우리나라 특히 경상남도의 공공도서관 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감히 제안합니다.

1. 인구 5만명 당 1개의 공공도서관을 세워 주십시오.(문고나 평생교육원 따위가 아닌 최소한 장서 1~2만권 이상의 도서관입니다.)
2. ‘경남대표도서관’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굳이 새로 짓지 않더라도 기존의 도서관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지원 확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도내 각급 학교에 정규직 사서를 배치해 주십시오.
4. 학교 도서관 계약직 사서의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5. 마지막으로 학교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집 근처 주차와 속도 규정	지역	서울특별시
----	-------------------	----	-------

- 제안 이유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근처에 차들이 다니는 것도 불안한데 주차할 때 후진하는 차량을 아이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와 사각지대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차량 외 어린이집 근방 3m~5m 내에 주차금지와 적정한 시속 30km를 규정한다.
- 소요예산 : 30km 표지판 비용, 주차구역 선 지우는 비용
- 재원조달방안 : 어린이집 내 찬성 학부모의 일부부담, 복지비용

제목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인프라 구축	지역	충청남도
----	-------------------	----	------

■ 개요

자전거 이용을 권장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한다.

■ 현황 및 문제점

천안시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자전거 분담률을 기록하고 있다. 조사 구간별 자전거 일일 교통 분담률이 낮은 곳은 충무로, 동서대로, 서부대로, 남부대로, 북부대로 순이다. 자전거 보호소의 설치가 매우 미흡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보행자 겸용 도로인 경우가 많아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이로 인해 사용에 불편함을 겪을 뿐만 아니라 부상의 위험 또한 커진다.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들이 차들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 개선방안(개선내용)

- 자전거등록제 실시 : 천안 시청 홈페이지에 천안시 자전거 등록 페이지를 생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각종 자전거 대회 개최 : 유관순 자전거 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홍보효과와 더불어 자전거 이용을 촉진시킨다.

- 자전거 관련 전담 부서 설치 : 천안시 노후 자전거를 관리 및 보수하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천안시의 자전거 관련 시설에 대해 꾸준히 검토한다.
- 자전거 전용 시티투어 관광 상품 개발 : 기존 시티투어 상품에서 자전거로 이용할만한 가까운 거리의 볼거리들로 구성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보행자 겸용도로 축소

기대효과(개선성과)

차후 피크오일을 대비할 수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자전거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천안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 자전거 이용의 문제점과 필요성

가. 전국 자전거 이용 현황

1) 자전거의 교통분담률과 환경 효과

자전거 이용이 자가승용차 이용감소로 이어져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교통분담률이 높아질수록 이산화탄소 배출 역시 줄어들고 석유 사용량 또한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자전거 이용률 : 수단분담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공포하는 등 정부의 노력, 자전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등의 이유로 자전거의 이용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기준 2010년 교통수단별 수단분담률은 승용승합차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보도, 버스, 철도 순으로 높았다. 자전거의 수단분담률은 2.2%로 2006년 1.2%에서 약 1%정도 증가하였다. 자전거 도입 이후, 자전거의 수단분담률이 증가한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

나. 천안시 자전거 이용 실태

1) 자전거 이용현황

- 자전거 보관소 설치

항 목	자전거 보관소		합계	항 목	자전거 보관소		합계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관공서	23	58	81	교육기관	45	40	85
천안시	20	30	50	초등학교	12	27	39
경찰서	1	7	8	중학교	15	6	21
소방서	0	5	5	고등학교	10	6	16
우체국	1	7	8	기타	8	1	9
기타	1	9	10	잡화시설	18	9	27

- 구간별 교통 분담률 조사

조사 구간별 자전거 일일 교통 분담률이 낮은 곳은 충무로(충무병원3-일봉회관) 38명 (0.299%), 동서대로(롯데4-인쇄창4) 59대(0.354%), 서부대로(개목3-백석4) 50대 (0.362%), 남부대로(한라A3-남부대교4) 48대(0.378%), 북부대로(부성10통3-두정우 성3) 103대(0.445%)순이다.

2) 자전거 이용의 문제점

-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표면

천안시의 경우 자전거 관련 시설 설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진은 천안시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이다. 울퉁불퉁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부상을 유발하고 자전거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 자전거 전용 도로 부족

사진은 천안시 성정동의 모습이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충되지 않다보니 자전거는 차들 사이를 아찔하게 가로질러 다닐 수 밖에 없다. 그에 따른 자전거 사고의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대안정책

1. 자전거 안전대여제 시행

가. 정의

자전거 안전 대여제는 필요한 곳에서 자전거를 빌려 목적지까지 타고 가서 반납하는 무인 자전거 대여 서비스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1) 정책 분석 : 자전거 대여제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편리한 자전거 이용 도모 ○ 공공자전거 거치를 위한 보관소 설치 → 개인이용자 이용 편리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 및 반납 관리상의 어려움

2) 선진사례

- 프랑스의 ‘벨리브’
- 바르셀로나의 ‘바이싱’
- 서울시의 ‘누비자’
- 대전시의 ‘타슈’
- 일산의 ‘피프틴’

3) 예상효과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안전대여제를 실시한다면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 시킬 방안으로 하나의 중요한 촉매가 되어 줄 것이다. 또한 피크 오일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자전거 안전 대여제를 실시하여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높여나간다면 피크오일에 대비하는 시민들의 자세 또한 길러질 것이다.

2. 자전거의 날 실시

2010년 6월 29일에 자전거의 날이 제정 된 후 매년 4월 22일마다 전 국민의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과 그 주간에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자전거의 날이 제정되었는지도, 자전거 행사와 같은 문화활동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기에 이를 조금 더 개선하여 자전거의 날을 확대해 간다면 자전거 안전 활동은 물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10대 중심 자전거도시 조성 정책

10대 중심의 자전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선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 목적으로 꼽히는 통학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주 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의 학교들은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길 꺼려한다. 위와 같이 자전거도시 조성 정책의 주 인물이라 볼 수 있는 10대의 자전거 분담률이 적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10대들의 통학과 관련된 지원정책을 내세운다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자전거 문화생활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려한다.

- 자전거 문화유적지 탐방

청소년의 부족한 역사의식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청소년 자전거 문화유적지 탐방을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제시한다면 청소년의 역사의식 고취와 더불어 자전거를 통한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 자전거운전면허

자전거 안전운전습관 형성과 운전 인증제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 교통문화를 조성 할 수 있으며 자전거 주요 사고들과 그에 따른 대처법,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전거 도난 방지 시스템, 그리고 자전거 등록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 자전거운전면허를 발급한다면 안전한 10대 중심 자전거 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클럽 자전거 대축제

자전거 클럽 활동을 도모해 매년 클럽 대항 자전거 대회를 연다면, 스포츠 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줌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제공할 수 있고 클럽간의 협동심을

기를 수 있으며 대회 참가를 통한 성취감을 고취 시킬 수 있다.

- 자전거 교실

자전거를 배워볼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을 위해 자전거 교실을 운영해 간단한 안전교육과 자전거 타는 법을 교육함으로써 올바른 자전거 운전 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다.

■ 공공정책

1.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

가. 필요성

자전거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의 자전거 사업을 시행하도록 돕는다. 최근 자전거 도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자전거 분실사고 예방 및 효과적 회수를 위한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한다.

나. 장점 및 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인 자전거 관련 사업 제시 가능○ 불필요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자전거 전담교육 실시로 건강한 자전거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활동 어려움

다. 자전거 전담부서의 역할

① 자전거 사업의 효과적 추진

자전거 도로 설치의 경우, 필요한 구간을 담당부서가 조사한 후에 설치를 제안할 때 더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실제 천안시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전담부서 없이 자전거사업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증가를 불러왔고 결론적으로는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다.

②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자전거 전담 부서는 각 시, 도의 자전거 관련 교육을 철저히 전담해야 한다. 실제 자전거 이용자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전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 많은 사람에게 치이는 도시에서 자전거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다. 특히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의 70%는 자전거 안전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세 이하의 어린이들 중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다니는 학생은 전체의 3%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아래와 같다.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미다.

제21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정책 제안

도차원의 육성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 받지 못한 도시들은 예산확보가 어려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전담 부서 설치를 의무화해 시민들의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촉구한다.

2. 자전거 등록제 실시 의무화

가. 자전거 등록제의 정의

자전거등록제는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전거를 자동차처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제도이다.

나. 자전거 등록제 실시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데 아무런 제약도 없고, 자전거를 다시 찾더라도 자신이 자전거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자전거 등록제는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 기존 자전거 등록제 실시의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분실시 회수율 증가 ○ 자전거 관련 통계 및 전산처리 편리 ○ 불법 중고 자전거 유통 방지 ○ 방치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소요 많은 반면 실효성이 떨어짐 ○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 ○ 개인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음

라. 자전거 등록제 실시 의무화의 효과

1) 자전거 분실 회수율 증가

높은 자전거 분실률은 자전거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에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큰 요소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자신의 자전거에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므로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때,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실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우 2002년 자전거 분실률을 16%에서 2008년 10%로 낮출 수 있었다. 더불어 회수율의 증가로 경제적인 손해까지 예방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자전거 등록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자전거등록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자전거 대수(대)	800만대
도난률(추정)	10%
등록제 시행 이후 회수율	50%
평균자전거가격	30만원
절감비용(억원/년)	1200억원

2) 자전거 관련 통계 및 전산처리 편리

현재 자전거 관련 통계를 내려고 하면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한다면, 자전거 관련 통계를 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 등의 수고스러운 일을 덜게 되어 보다 쉽게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불법 중고 자전거 유통 방지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 훔친 자전거를 자신이 타던 중고 자전거로 속여 팔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혹여나 주인이 이 광경을 목격하더라도 자신의 자전거라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불법 중고 자전거들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 등록제이다.

4) 방치 자전거 관리 효율성 증대

창원시에서 1주일간 방치자전거를 수집한 결과 2400여대가 모일 정도로 방치자전거 처리방안은 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창원시의 경우, 1주일간 수거한 방치 자전거 수가 2400여대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으로 나타났다. 방치자전거와 관련된 정책이 수립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무단방치 자전거의 해결방안과 관련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마. 필요성

자전거의 분실 경우가 많고, 이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떨어진다. 경찰 조차 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자전거 보험 처리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자전거 전담 부서가 설치된다면, 자전거 보험 처리 문제도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다.

바.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 1) 예산 소요에 비한 실효성 부족
- 2) 자전거 등록 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실행 어려움
- 3) 단편적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경우 다수

현재 전국 15곳에서만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 중이므로 그 지역을 벗어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의무화시킨다면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등록제를 통해 자전거 도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정책 제안

이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의무화 정책을 실시한다면 등록제를 통한 효과가 증대할 것이다.

제목	인천시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추진 방향	지역	인천광역시
----	---------------------------------	----	-------

인천이 타시도보다 학습성취도가 많이 낮아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는 교육감 후보분들이 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공약이 다반수입니다. 현재도 인천만 영어듣기평가를 따로 실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저는 위같이 단순히 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이미 예전의 학습량, 학습수준을 현저히 뛰어넘었습니다. 부모님들 세대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현재는 초, 중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셨지만, 저희들의 부모님들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 세대들은 예전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명문대를 나오고도, 독립할 나이지만 집에서 똥굴거리며 독립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인천이 타시도에 비해 공부를 못한다고, 타시도와 동등, 그 이상이 되게 하고자 공부를 더 시키는 것은 닭 쫓는 개의 꼴이 되는 겁니다.

인천이 공부를 더 하는 만큼 타시도에서도 공부를 계속할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인천은 그냥 타시도의 뒤를 졸졸 쫓아가는 것 일뿐, 앞서나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주입식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교육 방식, 과정 등을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타시도를 따라잡기 전에 인천의 지역별 교육수준차이를 줄여야합니다.

제가 다니는 특성화고에는 인천의 여러 구,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재학중인 고교의 내신 컷라인은 20~40퍼센트 정도입니다. 제가 졸업한 중학교내에서는 20퍼센트와 40퍼센트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퍼센트 대의 학생이 20퍼센트 대의 학생보다 영어, 수학같은 주요 교과목의 점수가 더 높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 비슷한 성적대의 학생들이 온 고교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이 시험공부를 특히 많이 하거나, 안한 것도 아닌데, 그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므로 인천의 앞으로의 교육계획을 단순한 타시도를 따라잡기 위한 강화가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배움의 의미인 교육이 되도록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혁신,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목	경북 봉화 춘양) 숲, 생태체험 -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관련 공약제안	지역	경상북도
----	---	----	------

▣ 주요내용(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저는 현재 타지에서 생활하며 교육대학원 영재교육과에 재학중입니다.

이쪽으로 전공을 하다가 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곳 도시에는 숲, 생태,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말이 되면 체험을 위한 캠핑을 떠나고, 일부러 숲과 문화재를 찾아 떠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몇 해전 춘양상업고등학교가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라는 산림특성화고등학교로 탈바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활동중이신 전문 숲해설가는 총 21명인데, 우리아이들이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같이 체험하고 학습시켜주는 숲해설가가 되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요즘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해 자기의 꿈과 적성을 찾다가 시간을 보내고 취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수도룩합니다.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의 학교 특성에 맞게 아이들을 현장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어렵게 싶습니다.

또, 수익으로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 1) 무엇을 - 숲, 생태, 문화재 체험교실.
- 2) 어떻게 -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 3) 언제까지 - 활성화 시켜서 계속적으로.

☐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봉화교육청의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예산으로 홍보, 버스 등의 초기자금 지원, 아이들 스스로 코스를 짜고, 공부하여 숲해설을 하게 됨. 창출되는 이익으로 장학금 또는 대학등록금을 지원

☐ 기대효과

- 특성화 고등학교를 더욱더 활발히 발전시킴.
- 학생들의 적성을 찾아줌.
- 연계되는 대학(과)에 진학하여 더욱 심화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줌.
- 지역특성(국립수목원)을 잘 살림.
- 수익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 등록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춘양은 작은 마을이라, 점차 학생의 수가 줄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모교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춘양의 발전을 위한 공약제안이었습니다.

제목	도지사, 교육감에 바라는 청소년 정책 제안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	----	---------

☐ 제주특별자치도청에 바란다

1.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제도 확립 및 시행

현재 제주도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부재로 인하여 청소년에 대한 행정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효율성 및 효과성 또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문제점

- 1) 청소년수련시설이 행정시에 대부분 귀속되어 있으나,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정책의 효율성 저하
- 2)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협의회 또는 전담기구의 부재로 인한 악순환 반복
- 3) 청소년은 제주도 전체 인구대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은 빈약한 실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인구 현황 : 124,663명(도 전체인구의 21.3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관련 예산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예산 : 약 3조6천억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예산의 0.25%미만
- 청소년관련예산 : 80억 미만

2. 청소년 관련 조례의 개정 및 통합 촉구

현재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이하 육성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수련시설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문제점

- 1) 육성조례, 수련시설조례에는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의 운영을 위한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 육성조례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수련시설조례에는 수련시설 등록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단체에 관한 사항, 운영대표자에 관한 사항 등만 나열되어 있을 뿐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단체협의회도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운영대표자도 없이 수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3. 청소년시설의 예산 확보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시급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는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며, 종사자 또한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청소년 관련 예산 참조)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임을 인식하여 청소년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신속히 수행해야 한다.

- 단적인 예로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급여는 7년째 동결이며, 월급여 외에는 각종 수당 및 초과 근로, 상여금 등 아무런 소득이 없는 현실

4.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 정책의 신속한 대응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은 크게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시행계획으로 나뉠 수 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지자체는 해마다 수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까지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2012년도의 계획만 있을 뿐이다.

여성가족부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정책방향 중 발췌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전담과 설치 및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추진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 바란다

1.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전문가 채용

1) 청소년기본법 제24조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난 여름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건, 올 초의 부산외대 리조트 붕괴사건,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 등 청소년의 안전이 부실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위해서라도 교사, 상담사, 원어민 뿐 만이 아닌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전문가의 채용이 필요합니다.

2.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학교 만들기

현재의 학교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학부모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의 주체는 학생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학생이 주인인 학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학교를 위해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 법제화의 필요성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조성 및 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등 학교운영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허나, 학교운영 전반의 모든 내용을 결정함에도 그 운영의 최대수혜자이자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은 전혀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일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게 되어있다.

○ 많은 학생 청소년들은 스스로 학생회장이나 부회장을 선출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대표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한다. 학생회가 주관하는 회의가 사라져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견이 수렴되는 자리가 실종되기도 했지만 학생회가 법적으로 권한과 역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사라질 수도, 만들어질 수도 있는 임의 단체이고 선출된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학생회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건의나 불만 사항을 학교 측에 전달 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지 못하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교복, 축제와 같이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서 조차 교사와 학교에 지시를 따라야 한다(설사 소풍이나 수학여행 장소 등을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할 때도 그 결정권을 주는 사람들은 학교와 교사이다).
- 또한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 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등 학생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할 권한이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학생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오랫동안 학생회의 역할이 강조되어 온 대학에서는 대학평의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3.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커뮤니티스쿨 시행

공교육의 산실인 학교가 청소년의 꿈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자유학기제가 제주도내 모든 중학교에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장 재량에 맡긴 현재 학교의 체험활동은 성공적인 정착은 아니기에 이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수행 및 정착을 위해서라도 학교라는 울타리를 과감히 넘어뜨려 지역사회 자원인 청소년유관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개인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교육청,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4. 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력

청소년기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0교시의 전면적 폐지를 요청한다. 0교시 수업을 출석하기 위해 수면 뿐 만이 아니라 식생활의 파괴까지도 이어져 청소년의 정신 및 신체 건강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족 간의 대화시간이 짧은 요즘 청소년들에게 더욱 더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앗아가는 제도이기도 하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552명에게 설문을 조사한 결과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1시간 이상 하는 경우는 28.8%, 대화시간이 10분에서 30분인 학생은 36.6%, 10분 이내도 14.2%로 나타나 대화의 단절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5. 안정적인 청소년 인권 조례 제정을 통한 서로 존중받는 학교 분위기 마련

-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총 4곳이다. 경기도(2010년 10월 5일),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라북도(2013년) 공포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약 2달만에 각

시·도 교육청이 별도로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학교장이 학교규칙(학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상위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의 의해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장이 학생들의 두발·복장 제한, 체벌 등을 통한 학생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학칙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 16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음.
- 또한 제정이 된 지역의 경우에도 조례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학교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음. 특히 서울의 경우 학부모나 학생들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도하였음. 특히 동성애나 임신 등에 대한 민감한 사항으로 보수적인 여론을 이용
- 전반적으로 아직 대한민국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의식은 부정적이고 보수적이다. 이에 인권조례의 제정은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의 의식보다 매우 앞선 것이었다. 이에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학교내 기존 관행과 교사들의 인식, 학생들의 인식 등)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현재 전북지역교육감후보 5명중 2명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힘
- 그리고 현재 학생인권교육이나 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세부공약 사항

-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안정화를 통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이 꽃피는 교실 마련
 - 1)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정기적인 인권교육이 필요
 - 2)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 내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인권교육과 문화행사들 개최
 - 3) 인권조례가 실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권조례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제목	안산시 문화시설 확충	지역	경기도
----	-------------	----	-----

안산에 문화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처 수원시만 봐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산에는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광장, 주점, 술집 유흥업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안산에 문화시설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안산을 보았을 때 살기 좋은 도시로 보일뿐만 아니라 우리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로 인해 더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산을 위해서 공연장, 야외음악당, 농구경기장, 야구경기장, 수영장, 박물관, 미술관, 조각공원, 청소년활동시설, 국악원, 전수회관 등 여러 문화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산은 공업도시이다 보니 환경유해물질로 인하여 가끔 이상한 냄새도 나고 공기가 안좋습니다. 환경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다 멋진 도시에 맞는 시민성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강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할지라도 홍보도 하며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언젠간 시민들의 참여율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는 안산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점점 안산에 대해 알아가게 되어 시민의식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안산은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학생들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서관을 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에 성포도서관, 관산도서관, 감골도서관 등 여러 도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자신의 집 근처에 도서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사람들은 안산중앙도서관으로 몰립니다. 도서관 분위기, 시설, 주변 환경 등 여러 이유로 중앙도서관이 훨씬 좋다고 느껴 성포동, 선부동 등 고잔동과는 조금 먼 곳에 살고계신 분들이 고잔동까지 오셔서 공부 하는걸 여럿 봤습니다. 고잔동 주민들만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 주민들께서도 공부하러 오시기 때문인지 항상 중앙도서관은 꽉 찼습니다. 우리 안산시민 모두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 사람이 많아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것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시장님께서는 수원에 도서관 11개를 지어 도서관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산도 도서관거리가 생겨 도서관근처에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안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고 있다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개발·지원	지역	충청남도
----	------------------	----	------

☐ 제안이유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2000년대 이후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을 앞다퉈 건설했다. 그러나 시설은 지어 놓고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에는 관심을 두지 않다보니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이 없고, 취미교실 위주의 수익사업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또한 일회적인 행사나 지식 전달을 위한 강좌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결국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청소년은 없다’

☐ 목적

기존에 구축된 청소년 문화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 방법

- 청소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수련시설, 청소년센터, 문화원, 학교, 동사무소 등)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 지역청소년 단체와 문화예술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전문기관 등(대학, 병원)과 연계하여 심리치료, 리더십 프로그램 등 제공
- 청소년문화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봉사활동점수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관과의 연계·추진

☐ 기한

- 청소년 문화시설 정비 : 2014년까지
- 문화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2014년까지
-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 2015년부터
-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정기평가 : 2015년부터 매년 연말 실시

☐ 재원조달 방법

- 청소년 문화시설 정비 : 국비 50%, 지방비 50%
- 문화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해당 단체의 재능기부 유도

제목	밀양시 버스환승시스템 도입	지역	경상남도
----	----------------	----	------

밀양은 시내버스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환승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시내가 아닌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시내에 불일이 있으면 농어촌버스를 타고 나가서 또다시 시내버스를 타야합니다. 왕복으로 버스를 네 번이나 타야되고 이 비용도 결코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밀양시의 농어촌버스와 시내버스간의 환승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내이동에 살고 있는데 단장면에 사시는 할머니댁에 갔다 오기 위해서는 왕복 4번의 버스비를 모두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생각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생활을 창원에서 하면서 버스환승시스템이 잘되어있으니 어디를 가든 교통비 부담이 적어 좋았습니다.

밀양시에는 표충사, 얼음골 등 관광지들이 주로 시의 외곽에 있는데 외부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밀양을 관광하려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모두 타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승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버스비를 지불해야합니다. 다른 도시의 관광지에 가보면 버스, 지하철 환승시스템이 잘 되어있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편하게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 다른 도시를 관광할 때에 비하여 교통비가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밀양시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또한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 버스환승시스템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젝트	지역	경기도
----	---------------------------	----	-----

의정부에는 다양한 국적의 가정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 아직까지도 태국 필리핀 등에서 온 가정들을 향한 인종차별이 만연하고 문화적으로 서로를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들이 많습니다.

서로를 인식하고 한국인이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복지만이 아니라 전체인구에게 다양한 가정형태에 대한 교육이 어릴적부터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릴적부터 학교와 공영방송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가정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키고 알려주어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글로벌시대에 맞게 변화되어가는 한국의 인구 형태에서도 더이상 인종차별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방법은 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의 교류를 만들어주고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한 화상수업) 프로젝트 영상을 만들어서 다양한 가정의 생활을 알려주며 인종차별적인 언담이나 행동의 안좋은 사례를 부각시켜서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칠수 있도록 인도해주어야 합니다. 기간은 최대한 빨리 시행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같은 국민으로서의 인식이 확립될 때까지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 소요예산

우선 초기예산으로 5천만원을 보고 차츰 늘려가야 한다고 봅니다.

프로젝트 영상물 작업에 1500만원을 투자하고 각 교육기관에 시행안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1000만원 투자 2500만원을 안내 학습 책자와 사이트 제작에 소모하면 되리라 예상해봅니다.

제목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해결	지역	서울특별시
----	-----------------------	----	-------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란 주제로 공약을 제안한 이유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국민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자신이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오염 같은 생활면에 있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제로 공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1만 1,237톤이고, 1년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약 410만여톤으로 8톤 트럭으로 1,400여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 정도에 해당됩니다.

수집, 운반 단계, 쓰레기의 수집&운반 단계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① 오수통의 설치 및 수송컨테이너의 밀봉에 따른 장비가격의 상승
- ② 음식물쓰레기의 부패에 따른 수집빈도의 증가
- ③ 매립지의 반입정지에 따른 정상적인 조직운영의 장애

첫 번째의 경우 : 오수통의 설치 및 수송컨테이너의 밀봉에 따른 장비가격의 상승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체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오수통 설치비용은 4.5톤, 수집차량의 경우 25만원, 11톤 수송차량의 경우 50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송과정에서 오수의 흘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밀봉함으로써 컨테이너의 가격이 기존의 300만원 선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두 번째의 경우 : 음식물 쓰레기의 부패에 따른 수집빈도의 증가

생활 쓰레기를 분리할 경우 주 1회 빈도의 쓰레기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주거지역의 경우 주 2회 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1일 1회의 수거빈도가 음식물 쓰레기가 없다면 1/2배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쓰레기의 수거기간이 2배로 증가하면 수거효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차능력의 증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위 거리 당 쓰레기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미화원의 상차능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 : 매립지의 반입정지에 따른 정상적인 조직운영의 장애

자치구 수송차량에 등록된 차량중 오수가 줄줄 흐르는 쓰레기봉투를 적재한 차량이 35% 이상일 경우 자치구 전차량에 대하여 3일간 매립지 반입정지를 명하는 것이 현재 매립지의 운영 원칙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199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34개 자치구 차량이 3일간의 반입정지처분을 받았고 이를 전체 운행일수중 반입정지일수로 환산하면 4.3%에 이른다. 결국 정상적으로 조직이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음식물쓰레기에 의하여 100일 중 4.3일이 수거 또는 수송 등의 기능이 정지됨으로써 비용에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 미화원 분들께서 쓰레기를 수거하실 때 오수가 줄줄 흐르지 않게 잘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구역을 나누어 놓고 쓰레기 봉투를 교체해 주면서 쓰레기를 이동시키면서 적재 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소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침출수의 처리비용
2. 복토재 과다사용

각각의 경우에 처리비용 상승효과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침출수 처리에 미치는 영향 음식물쓰레기가 침출수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많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 필요하였다.

첫 번째 가정 ⇒ 음식물이 오염물질 배출량에 미치는 기여율 음식물쓰레기 혼입율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cr, 이하 약어로 부른다.) 관계식에서 음식물이 100%일때의 CODcr은 유출량이 112g/kg(음식물)이고, 없을 경우는 29.8g/kg이므로 매립지에서 음식물이 CODcr의 생성에 미치는 기여율은 73.4%이다. $CODcr(g/kg음식물) = 0.82X(쓰레기 중 음식물 함량, %) + 29.8$ (결정계수 : 0.99)

두 번째 가정 ⇒ 음식물쓰레기에 의하여 유발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혐기성처리 단계, 폭기처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또 펜톤처리시설의 62.8%를 사용하게 된다.

쓰레기 반입량 매립지 반입쓰레기 중 음식물 함량은 1994년과 그 이전에는 37.1%, 1995년에는 41.4%, 1996년에는 46.8%로 본다.

하수·정수오니중 하수슬러지의 비중은 88%, 하수슬러지 중 생물분해성 물질은 가연성물질 25%중 40%이며,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와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이러한 가정하에서의 음식물쓰레기의 반입량은 매립지가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10,068,162톤에 이른다. 한편 쓰레기의 총반입량은 39,007,741톤이다.

침출수 처리비용 매립지의 침출수 처리장 운영비용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2년 이후 이 부분에 총 200억 정도가 소요되었고, 이중 전기료는 80%가 폭기처리공정에, 약품비는 100%가 펜톤처리공정에 소요되었다고 한다.

음식물쓰레기에 의하여 유발된 오염물질의 제거에 소요된 비용은 약 50억이고, 쓰레기당 처리비용을 환산하면 전체쓰레기를 기준으로 1,313원/톤, 음식물을 제외한 기타쓰레기에 의하여 유발된 오염물질의 제거에는 58원/톤, 음식물쓰레기를 기준으로 한 처리비용은 4,293원/톤이다.

매립작업에의 장애 매립지에서는 운영관리비, 위생매립작업비, 주민수해사업비 등 다양한 사업에 지금까지 약 3,500억원이 소요되었다. 그렇지만 주민수해사업비, 자본비용 등은 장기투자 비용이므로 매립지 이용예정기간 25년으로 감가상각하고, 비용을 재산정하면 약 2,22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다량 혼입시 반입정지에 의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일수(율)가 전체 작업일수중 4.3%에 이르므로 비용상승은 전체 반입쓰레기 기준에서 225원/톤으로 산정된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토대로 산정하면 989원/톤이 된다. 현재의 매립비용은 전체쓰레기량과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할 때 약 5,700원이 소요되지만 음식물쓰레기로부터 유발된 침출수중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및 매립지의 운영장애에 따른 비용상승을 포함하여 음식물쓰레기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11,593원으로 산정된다. 결국 혼합매립상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복토재 비용에 미치는 영향 음식물쓰레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서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립작업시 복토재를 과량 사용하므로써 초래되는 비용상승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사용하는 복토량은 일반적인 국내 및 외국의 매립지 복토규정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추가적인 복토재 사용은 없다고 판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비용의 상승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비교 혼합쓰레기 상태에서의 처리비용과 혼합쓰레기내에서의 음식물쓰레기에 의하여 유발된 비용을 산정한 결과 음식물쓰레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소각지역에서는 28%, 매립지역에서는 22%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파트에서 생활거주지를 마련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도 중요하지만 각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제조해서 먹고 냉장고나 냉장실에 음식을 잘 정

리하는 것도 중요하며 음식물 찌꺼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먹고난 후 음식찌꺼기의 물을 잘 뺀 후에 음식물 찌꺼기를 생활용 분리수거 통에 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음식물 찌꺼기 통을 환경미화원 분께서 와서 직접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이 아니라 주 2회 정도로 늘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특수교사 증원의 확대	지역	전라북도
----	--------------------	----	------

저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매년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은 상실감에 빠지곤 합니다. 교사를 뽑기 위해 TO가 발표나면 턱없이 부족한 자리에 학생들은 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쉽게 저버리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며 보내온 시간들이 아깝기도 하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매년 복지정책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사를 뽑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모순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법적 인원에 맞는 교사를 충원해서 학생들이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아 4명당 1명, 초등학교 6명당 1명, 중·고등학교 6명당 1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우리 아이들 및 학생들이 잘 자라고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제목	어린이 보호를 위한 난간설치 제안	지역	경기도
----	---------------------------	----	-----

양수초등학교는 용담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재학생 중 절반 이상은 양수리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양수리에서 용담리에 위치한 학교까지는 도보로 10분 내지는 15분 정도 걸리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보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6번 국도를 지나 등교하는데 그 사이에는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학교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다리는 아닌데 강 사이로 6번 국도가 있어 마치 다리과 같은 환경입니다. 국도 양편으로 보행자를 위한 길이 나 있으나, 거기에는 도로와의 차단을 위한 난간이 없습니다.

한 편에는 드문 드문 화분이 놓여 있고 다른 한 편은 노란색 시멘트 구조물이 있으나 그 사이는 비어 왕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길을 아이들은 도보로 혹은 자전거로 다니는데 달리는 차 옆으로 아무 보호막도 없이 통학하는 모습은 위험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전거가 도로쪽으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장난하다 찾길로 나가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길은 용담리에 위치한 체육공원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여 휴일에도 아이들의 왕래가 빈번합니다. 이 길에 안전한 난간을 설치하여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제목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대책 제안	지역	인천광역시
----	-------------------------	----	-------

☛ 현행문제점

현재 지방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은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주체적으로 신설된 조직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설치 되었기 때문에 지자체, 소방, 경찰, 민간의료기관의 협조 경험 부족으로 재난 발생 시 민·관의 정보 및 자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긴급재난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의 확실한 업무 주체로 나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의 민간자원(구조 장비 및 시설, 전문가 등)과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파악하여 긴급할 때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주민과 함께 훈련하는 체계가 필요.

둘째, 고령화 사회에 따른 유휴인력 활용과 재난 예방 및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인천지역 실정에 밝고 재난안전 전문 지식을 가진 지역 퇴직자들로 구성된 재난안전실버감시단을 구성하여 재난우려지역, 재난안전 취약위험요소 등을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인천시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수영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

넷째, 긴급재난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 매뉴얼 제작과 정기적으로 민·관·군 간 연계 위기대응 교육과 훈련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수립

다섯째,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단체로 이동할 때 전문안전요원이나 경찰 동반 의무화

☛ 기대효과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수립과 민·관·군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긴급재난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목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수능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약	지역	서울특별시
----	-------------------------------	----	-------

☛ 공약 선정 동기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한다. 단지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을 그리고 재수를 택하면서 단 하루에 끝날 수능에 매달리는 건 아니다. 비단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외의 경우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학벌주의가 만연해 있다. 사람들의 일류대 선호에서 나타나듯이 왜 우리가 3년 내내 단 하루를 위해 피와 땀을 쏟아야 하는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사고를 하루아침에 뜯어 고칠수는 없다.

대학입시제도 자체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년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 시험을 준비하지만 그동안 바친 공을 단 하루만에 쏟아내게 해서 해마다 수능성적을 비관한 수험생들의 자살을 유발하는 것이다.

인생이 결정난다는 하루를 망친 것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감이 상상을 초월한다. 하루아침에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이 ‘패배자의 낙인’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고려할 정도의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자살은 결코 나약하고 철없는 일부 수험생들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능을 본 거의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엔 ‘이럴 바에 차라리...’라는 위험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의 박탈감과 절망감은 깊은 것이다.

‘대학입학정원 역전 시대’ 등 대학 가기 쉬워졌다는 허울 좋은 말들은 수험생들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소위 ‘상위권 대학’에 가기는 오히려 전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수능문제는 더 이상 수험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관련 개혁조치가 연달아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근시안적 집권논리로 인해 개혁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말이 있다. 청소년의 자살과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사교육으로 가정경제까지 흔들고 있는 수능문제는 우리 고장뿐만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 바빠 바뀌어야 할 문제이기에 공약으로 선정하여 본다.

☛ 공약별 기본구상

1) 공약-[1]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등학교 3학년 말에 한번만 보는 현 제도를 수정해서 2학년부터 볼수 있는 자격을 준다.

교육당국은 시험을 1회이상 치르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수험생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수능 연 2회 실시는 전 정권의 공약이었기도 할 만큼 실행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라 사료된다.

위와 같이 함으로써 고3까지의 실력을 단 하루의 시험으로 좌우하는 폐단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줄일 수 있으며, 학생들의 능력을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도 대학을 조기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시킬 수 있는 길도 마련하게 될 것이다.

2) 공약 -[2]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비판을 조리있게 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받아왔던 암기위주의 교육으로선 단편적인 지식의 향상밖에 기대할 수 없다. 근래에 들어 논술을 보는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고액 논술과의 또한 늘어나는 실정이다. 논술을 각 대학의 선택이 아닌 대학입시 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정해 생각의 체계적인 행상의 도모를 꾀한다.

■ 각 공약의 구체적 절차

1) 공약-[1]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자신이 원하는 만큼 여러번 볼 수 있게 한다. 그러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만을 관장하는 독자적인 교육부 산하 부서를 둔다. 이는 마치 토플시험을 관장하는 미국의 ETS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 기관에서는 수학능력시험문제들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문제은행을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약간씩 차이가 나는 난이도에 따른 점수의 평가를 공평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이는 또다시 토플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가 방법을 분석연구하면 시험의 난이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여러번 응시한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한다. 응시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주관사에 자신이 지망하는 대학이름을 몇 군데 보내면 주관처에서 대학으로 직접 수능성적을 보낸다.

필요하면 수학능력시험에 주관식을 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제시하여 주관처에서 선정하는 대학교수들이 채점위원으로 나가서 채점을 할 수 있다. 각 대학은 학생선발의 자율성이 완전히 주어진다. 수능주관처에서 보내온 성적과 학생이 제출한 다른 서류(그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를 갖고 학생을 선발한다.

필요하면 학생 개별면담을 실시할 수도 있다.

2) 대안-[2]

수업과제의 경우에도 단답형 문제가 아니고 대학의 텀페이퍼(Term Paper)같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참고서적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합해서 논문을 쓰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

미국 SAT처럼 수능에 에세이를 포함시키거나 논술을 필수화한다.

단 논술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주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논술의 고액과 외를 유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각 대학에서도 논술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정하고 수험생이 시험 후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때 수능위원회에서 그 학생의 논술답안지를 대학에 보내 주고 그 대학의 교수들이 채점하게 한다.

예산 문제로 몇몇가지의 교육정책들은 시행되기도 전에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와 함께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능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재원이 조달 되어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두번이상의 수능과 논술시험을 필수로 지정하기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수능 문제점이 해결 되면 사교육 근절, 수능으로 인한 청소년의 자살과 비행방지, 가계경제 안정 등 예산을 넘어서는 더 큰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모든 공약이 중요하겠지만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아이들의 교육문제들이 우선적으로 시행 되어 변화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래 본다.

제목	대전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수 공급	지역	대전광역시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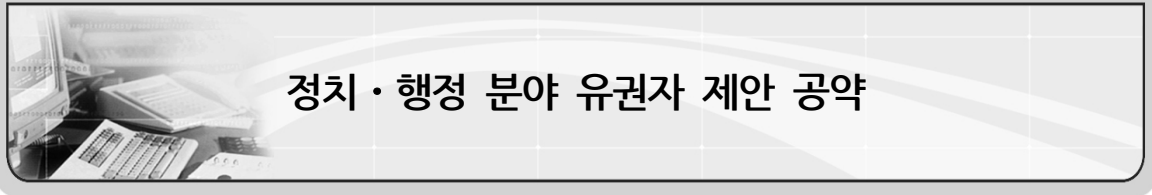
☐ 제안이유

- 대전 충청지역은 예로부터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유명하며, 관내에 대청댐이 위치하고 있어 청정수를 주민들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민들이 집안에 각종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음용 식음료에 대한 기호가 증가하고 있으며, 직접 수도물을 먹는 것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함. 또한, 관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개수대나 공동식수대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수를 먹으려는 시민들은 거의 없음. 서울에서는 '아리수' 라는 안전한 서울시민의 식수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 개개인의 식수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와 관련 기관(수자원공사, K-water)들의 협력하여 대전의 안전한 식수 "청명수"(가칭)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전의 식수를 공급하도록 함. 연구용역을 대전발전연구원과 K-water 협의를 2015년 말까지 완료한 다음, 소요예산 약 5억은 시 환경관련 예산과 중앙정부 환경발전기금을 교부 받아 2016년 하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II

정치·행정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제목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지역	경기도
----	-------------	----	-----

1. 시의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최소한 활동비만 지자체에서 지급, 지역 현안 및 긴급 민원 해결 능력등을 평가한 후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정부에서 특별 예산 편성하여 연봉외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 합니다.

※ 특별예산부족시 : 대기업등에서 공개적 모금형태도 좋을 듯

◆ 평가방법

- ㉠ 매 분기별 주민 여론조사 70%
- ㉡ 관계 전문가 30%

◆ 기대효과

- ㉠ 소신 있는 신인정치 무대 마련 기회(후보자난립방지 → 정리된 후보자로 인해 선거시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유도)
- ㉡ 지방 자치단체 예산(시의원연봉) 으로 서민일자리 창출

2. 관료들 퇴직후 산하단체 및 대기업 임원으로 자동취업 되는 전관예우 근절(예 : 법조계 등) 방법을 생각해봅니다.

◆ 제안방법

- ㉠ 고위공무원 채용 및 승진 시 협약서(퇴직과 동시 2년동안 재능 기부 형식으로 관련 업체나 후진 양성위해 소외된곳에 의무적 근무)
예 : 국선변호사, 영세업자 중소기업등의 자문 및 고문 역할 2년 근무후 근무평가로 일시불 지급

※ 재원조달방법 : 대기업에서 영입할 임원들을 고려, 예비비를 정부에 세이브하는 방법 즉 일시불을 주고 필요한 인재를 모셔가는 방식

- ㉡ 2년 근무 평가후 대통령령으로 산하단체에 임명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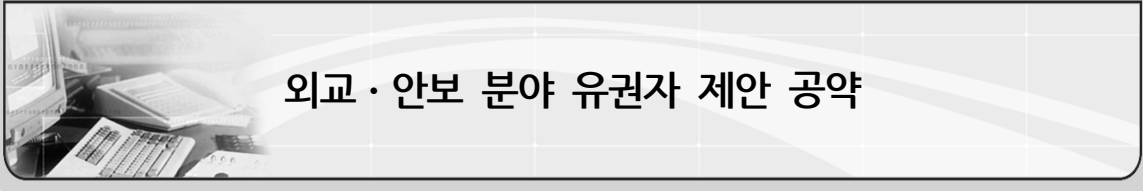
◆ 기대효과

- ㉠ 관료들의 봐주기식 행태로 일어나는 사고 미연 방지 및 관행 근절
- ㉡ 재능 기부를 통한 사회 연결 통로 확산 및 정신적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현 첫걸음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II

외교·안보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제목	행복한 파주	지역	경기도
----	--------	----	-----

파주는 통일에 있어서 요충지입니다.

파주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바른 의식을 고취시키고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키 위하여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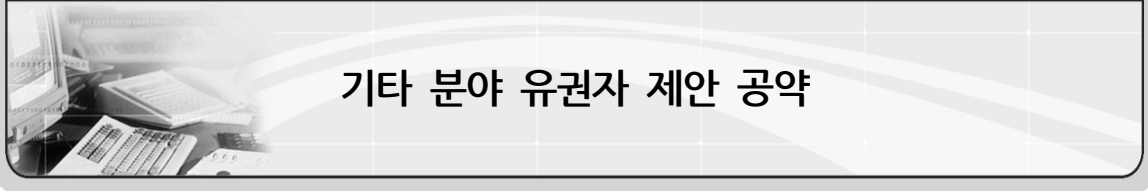
1. 탁월한 통일 전문가팀 구성
2. 파주의 여러 교육기관 및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교육
3.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한 교육 및 홍보
4.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발하는 행사 개최
5. 통일 홍보 책자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대하며~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II

기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기타 분야 유권자 제안 공약

제목	육교의 안전성 점검	지역	대구광역시
----	------------	----	-------

작년에 저희 집 앞에 육교가 생겼습니다.

도로가 좀 넓은 편이라 육교가 좀 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육교가 도로 사이에 너무 길어서 도로 중간에 받침대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차가 많이 지나가거나 했을 때 육교가 울려서 그런지 육교를 지날때 육교가 흔들흔들거립니다. 이러다가 무너지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믿을수 있고 안정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육교에 대한 흔들거림이 정상인지 아닌지 재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지역마다 오래된 육교도 다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구요.

요즘 새롭게 설치된 육교 중 특히 도로가 넓어 길게 설치된 육교는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흔들거리는 게 기술력이라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는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육교마다 계단이든 다니는 길이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구청에 전화를 해서 청소가 된 이후 괜찮습니다만 다른 동네나 지역별로 깨끗하고 청결한 대한민국 육교를 응원합니다.

제목	모세의 기적, 건강한 도로 만들기	지역	충청북도
----	--------------------	----	------

요즘 ‘심장이 뛰다’라는 TV 프로그램을 감명깊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이란 캠페인을 진행중인데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긴박한 구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 일반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그 시간을 소비해버려 더욱 위험하고 악한 상황을 연출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내가족, 지인, 친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져서 구급차 안에 몸을 신고 달릴지도 모를 입니다. 이렇게 매년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모세의 기적 캠페인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 제안 한가지를 해 볼까합니다. 시민들에게 무언가 편리하고 운택한 생활을 위한 공약은 아닙니다. 또한 당장 체감 상으로 느껴지진 않겠지만 이 제안으로 부디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제안

교차로나 교통이 혼잡한 도로 위에 소방차에게 길을 먼저 양보해주자는 내용의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도로에 페인팅하여서 운전자들에게 인식을 심어주자는 제안입니다. 제안이 꼭 우리 지역 동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행됐으면 하는 강한 마음이 듭니다. 도로 위에 아름다운 캠페인을 영원히 전국민과 함께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더불어 제안을 하자면 픽토그램이 페인팅된 도로위를 지나칠때마다 내비게이션 제작 회사에 협조하며 픽토그램이 의미와 운전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때 길을 양보하자는 안내멘트를 흘러나오게 함으로써 운전자 분들의 의식을 바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페인팅 설치 장소는 고속도로, 교차로부근, 번잡한 골목 상권 및 유흥가 등 차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집중적으로 픽토그램 페인팅이 되어야 하며 분기별로 한번씩 재 페인팅을 하여 내용이 지워지지 않게 보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내비게이션 회사와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목	안전한 귀가길을 위한 장치	지역	광주광역시
----	----------------	----	-------

☛ 제안이유

동구 남광주사거리에서 충장로까지 이어지는 인쇄거리의 길이 지나다니기에는 여성들에게 무섭다는 생각에 제안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둬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성들에게는 안전을,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에겐 위협을 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 끝과 중간에 한개씩 달아서 4개나 6개의 고성능 CCTV를 설치하면 될 것 같구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중간지점에 컨테이너나 작은 쉼터나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2명 이상의 경찰관이나 지킴이 등이 근무를 통하여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지켜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란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구요. 당장이라도 실행하여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요예산

CCTV 넉넉하게 1,000만원 정도 소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인건비 등등을 생각하면 CCTV는 한번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진행될터이니 초기비용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인건비와 근무자들이 편안하고 위사시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하므로 한달에 2명 기준으로 약 100~200 만원의 지원비를 통하여 안전한 귀가길을 형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제목	지역축제 활성화	지역	전라남도
----	----------	----	------

☛ 제안 이유 : 우리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지역축제 개발이 부족합니다.

☛ 주요 내용

타지사람들이 매화축제를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내리지도 못하고 차 안에서만 돌다가 왔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지역 사람들은 밀리는 차, 주차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타지역에서 보통 두 세시간 걸려서 오는데 주차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옆에 섬진강을 보며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걸어서 10분정도 되는 거리에 주차장 공간을 만들어 걸어오게 하거나, 축제기간 동안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부터 행사장까지 차가 들어올 수 없으니 도로는 자전거 도로로 바뀌어 운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하고 내릴 때와 행사장 도착할 때 양쪽에 대여소를 두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이색적인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축제를 좀 더 활성화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카파라치(블랙박스)를 이용한 교통질서 확립과 산불예방	지역	경상북도
----	-------------------------------	----	------

☐ 제안이유

울산과 경주 그리고 포항에 이르는 7번국도를 자주 운행하는 자가 운전자입니다. 주간 및 야간에 많은 차량이(화물차가 많음)신호위반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 뿐만 아니라 각 시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에 많이 보이는 장면이 담배꽂초를 함부로 버리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큰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일거에 두가지 이상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 주요내용

운행하는 각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주간 및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위반(신호)사항을 적발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며 담배꽂초의 무분별한 투척행위도 같이 적발, 고액의 범칙금을 부과해 투척행위와 위반사항을 점차 줄이고 교통질서에 대한 경각심과 확립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소요예산

범칙자에게서 발생하는 범칙금으로 신고자에게 60%정도를 지급. 나머지를 관계부처에서 예산 및 제도 운영자금으로 활용 합니다.

☐ 재원조달

범칙자에게서 계속 조달 가능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목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신호체계	지역	인천광역시
----	--------------------	----	-------

☐ 제안이유

- 강화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신호에서 불필요하게 대기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다수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 주요내용

현 교통신호체계를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교통신호체계를 확립

- * 보완방향 : 현 교통신호체계에 센서를 장착하여 정지선에 대기 중인 차량이 생기면 교통신호를 변경하도록 함
- * 구현방법 : 적외선카메라센서(공중) 또는 중량감지센서(정지중량)(도로밀)를 설치하여 정지 중인 차량 인식토록 통합신호체계 구현

☐ 소요예산

가. 용역연구(1억원) : 약 6개월

- 1) 시스템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
- 2) 강화 내 비용 대비 설치효과가 높은 곳 선정

나. 시스템 설치 및 기존 교통체계 개조(5천만원/1개소)

☐ 재원조달방안

가. 시 및 군 교통지원 예산 활용

나.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 등 정부산하 기관 및 연구소 용역과제 제안

제목	공공시설내 각종 재난안전 실시간 알림망 및 대피동선 설치 의무화	지역	대전광역시
----	-------------------------------------	----	-------

☐ 개요

대전서구지역의 모든 공공시설내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 및 데이터를 철저 분석하여,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 및 각종 재난시를 대비하여 공공시설내 대피동선(라인) 표시와 대피동선 상세도 비치 의무화는 물론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실시간 119행정과 첨단 IT기술을 융합한 재난안전 실시간 알림망(Safe Net) 필요성 대두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전서구내의 공공기관(특히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시설 중심) 및 일부 상업적 대형건물의 경우 화재 및 각종 재난시 대피동선(라인) 표시나 대피동선 상세도 비치상태가 관계자 이외는 잘 모르는 상태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상황인식(인지)이 안되어 더 큰 안전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수 있음

■ 개선 방안

이에 적극적으로 “공공시설내 각종 재난시 대피동선(라인)표시 및 대피동선 상세도 비치 의무화” 를 지정 및 지원조례안으로 채택하고, 재난안전 실시간 알림망(Safe Net)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유정보로 상시화

1. 각종 재난시 대피동선(라인)표시 및 대피동선 상세도 비치 의무화

- (1) 대피동선(라인)표시 : 어두운 실내에서도 잘 보이는 형광도로 또는 발광소재를 사용하여 표시하되, 이 선만 따라가면 안전한 장소 또는 비상구로 유도될 수 있도록 의무화
- (2) 대피동선 상세도 비치 : 건물내의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화재 및 각종 재난시의 대피동선 상세도 비치 의무화
- (3)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모든 곳과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적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차후 점차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건물(공간) 의무화 실시

2. 재난안전 실시간 알림망(Safe Net)

- (1)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유정보로 상시화하되, 재난현장을 실시간으로 누구든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면서도 관리·통제는 물론 정보 공유 가능토록 개방화된 시스템 지향
- (2) 실시간 ‘빅데이터’ 에 의한 “재난안전 실시간 알림망(Safe Net)”을 통해 재난지점 및 상황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으로 확산이나 건물 붕괴 등의 위험에 사전 대응 가능
- (3) 매년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첨단 IT기술을 융합한 재난안전 실시간 알림망(Safe Net) 활용 활성화 유도(구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활용 확대 도모)

■ 기대 효과

상기와 같은 공공시설내 각종 재난시 대피동선 및 재난안전 실시간 알림망(Safe Net)을 통하여 각종 재난시 실시간 현장 대응력 강화로 재난으로부터 대전서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대응) 및 보호 가능

제목	지하철에 민원서류발급기, 도서반납기 설치	지역	인천광역시
----	------------------------	----	-------

☛ **제안이유:**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절약과 편의를 위하여

☛ **주요내용(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과 개통될 2호선 전동차(맨 앞 칸이나 맨 뒷 칸)에 민원서류 발급기 및 공립 도서관 도서반납기를 설치하여 인천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킨다.(지하철 역사 등에 기설치된 민원서류 발급기는 위치가 좋지 않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율이 저조하여 유지비도 건지지 못하는 적자 상태이다.)

☛ **소요예산**

기 설치된 민원발급기가 한 대당 2,00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들어감.

제목	기존 태양광사업의 마을단위 전기생산 저장소 건립으로 농업인과 저소득층의 노후대책	지역	전라북도
----	--	----	------

☛ **제안이유**

농촌에 살다보니 농촌들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적잖은 분들이 태양열을 시공하고 있고 논과 밭에서 많이 들어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어야할 땅에 태양광에너지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촌에너지 사업은 기존의 농가주택에서의 태양광에너지 사업을 더욱 확대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 **주요내용**

현재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1인가구 중심으로 태양광설비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를 마을 단위로 태양광을 만들어내는 생산단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설은 기존의 자가주택 지붕에 설비하며 자기부담이 덜하고 마을단위로 전기를 모아서 설비 크기에 맞추므로 배분하여 농가소득에도 큰 몫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 단위로 전기 발생, 저장소 역할을 함으로써 여름, 겨울철 전기사용급증에 따른 국가발전기여도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태양광설비로 벌어들이는 개개인의 수입에도 큰 영향을 끼쳐 저소득층이나 독거 노인분들에게도 그 수익이 배분되므로 개개인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

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생기는 노부모님들도 든든한 은행이 생기고 자식에
 계만 의존하는 기존의 가정경제구조나 농업만으로 수입을 연명해야하는 농업인들에게도 큰 수
 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망

지금 전 세계에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도 없습니다.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보
 다 대체에너지 개발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 나은 방법을 도입추진하
 면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재원조달방법

원자력발전소 건립기금과 한국전력공사에서 설비 공사를 추진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인력
 이 필요하므로 국가 취업발전에도 영향을 끼치므로 소비활성화가 많이 늘어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제목	안산에 경기도119안전체험관(세월호 희생자 추모관 포함) 건설	지역	경기도
----	---------------------------------------	----	-----

세월호 사건으로 안산은 너무나도 슬픈 분위기이며, 국가 전체가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
 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시도에는 있는 안전체험관이 경기도에 없는 것을 모르는 경기도민들 많을 겁니다.
 이는 경기도민에 대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대구는 대구지하철 사고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대구시민안전테
 마파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으며(<http://safe119.daegu.go.kr>) 서울, 전북, 강원도 등 타 시도
 에서도 있으나, 우리나라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도가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안전교
 육에 대한 혜택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타시도 안전체험장은 연초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찾
 는 것이죠. 이 안전체험관의 위치는 안산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를 겪을 부모들이 있는 안산에 추모관과 같이 건립해야만이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안산시민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위치는 안산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안산스피드웨이로 결정해야한다고 봅니다. 이 곳은 예전
 경기안산항공전도 개최한 바 있으며 교통도 좋고 부지도 넓습니다.

안산시민으로부터 잘 설명하면 기부채납형식이나 영구임대식으로 부지를 안산시에서 빌려 줄 수 있다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임기내에는 건립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제목	20대가 꼭 가고싶은 충남 공주	지역	충청남도
----	-------------------	----	------

☛ 제안이유

공주는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또는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플들이나 대학교학생들이 유적지를 구경하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올해 24살인데 요즘 20대들 사이에서는 SNS가 유행이고 홍보효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대 커플들과 대학생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저희 공주에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많은 20대들이 공주를 찾아올 것 같습니다.

☛ 주요내용

어떤 식으로 20대 커플들이 오게 만들 것 인가하면 우선 요즘 커플들과 대학생들은 인증샷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에 놀러가면 그곳의 배경과 같이 사진을 찍고 SNS 올립니다. 구체적으로 커플들을 위해 문화재로 가는 길 벽에 문화재와 관련된 재미있고 재치있는 그림들을 그려 커플들이 사진을 찍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한 대학생들이 MT를 오면 유적지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경주와 비슷한 스탬프를 공주의 상징동물 곰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공산성, 무령왕릉, 공주박물관 스탬프를 만들게 하여 스탬프를 완성하면 응모하여 한달에 한번씩 추첨을 통하여 사은품을 증정하게 되면 더욱더 효과도 클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간단한 먹을거리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상권도 발전되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 소요예산

- 문화재 관련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그림 한 개당 50만원~100만원)
- 스탬프 제작(스탬프 가격 1개당 15,000원~20,000원, 스탬프 찍을용지 한개당 1,000원)
- 한달에 한번씩 사은품 (농협상품권 5만원 10명=50만원)

☛ 재원조달 : 도비, 시비

